



기술
PICK

정답과 해설

중학 역사

2·1

655제

개념 확인 문제

6쪽

001 계급	002 위만	003 순장	004 제가 회의
005 족외혼	006 천군	007 청동기	008 한
009 송화강	010 무천	011 민머느리제	012 마한

난이도별 필수 기출

6쪽~11쪽

013 청동기 시대	014 ④	015 ②	
016 해설 참조	017 ①	018 ④	019 ②
020 ②	021 단군왕검	022 ①	023 ①
024 세형 동검	025 ③	026 ⑤	027 ①
028 ②	029 ③	030 ⑤	031 해설 참조
032 ⑤	033 ④	034 ⑤	035 ④
036 (가) 고구려, (나) 옥저	037 ①	038 해설 참조	
039 ⑤	040 ④	041 ③	042 소도 043 ③
044 ④	045 (마)		

013 기원전 2000년에서 기원전 1500년 무렵 만주와 한반도에서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었다.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로는 청동 방울, 비파형 동검, 거친무늬 거울 등이 있다.

014 제시된 도구는 반달 돌칼로, 주로 청동기 시대에 곡식의 이삭을 자르는 데 사용되었다. 청동기 시대에는 일부 지역에서 벼 농사가 시작되었다.

바로 알기 | ①, ③은 구석기 시대, ②, ⑤는 신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이다.

015 청동기 시대에는 농경과 목축이 발달하였으며 조, 피, 보리 등 다양한 잡곡을 재배하였다.

바로 알기 | ㄴ, ㄹ. 청동기 시대에는 나무나 돌로 농기구를 제작하였으며, 빈부 격차와 계급이 발생하였다.

016 **예시 답안** 거대한 규모의 고인들은 주로 지배층의 무덤이었다. 이를 통해 청동기 시대에 많은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지배자(군장)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017 청동기 시대에는 거친무늬 거울, 청동 방울, 비파형 동검, 민무늬 토기 등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바로 알기 | ㄴ은 철기 시대의 철제 무기, ㄹ은 철기 시대에 사용된 중국 화폐이다.

018 비파형 동검과 탁자식 고인들의 분포 지역으로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알 수 있다. 따라서 (가)는 고조선이다. 고조선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8개의 법 조항을 만들어 적용하였다.

바로 알기 | ①은 삼한, ②는 동예, ③, ⑤는 부여에 대한 설명이다.

019 (가) 시기는 위만의 고조선 이동과 고조선 멸망(왕검성 함락) 사이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 준왕을 몰아내고 집권한 위만은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였으며, 고조선은 중국의 한과 한반도 남쪽 나라들 사이에서 중계 무역으로 성장하였다.

바로 알기 | ②는 고조선 멸망 이후에 있었던 일이다. 한은 고조선의 옛 땅과 주변 지역에 군현을 설치하였다.

020 제시된 자료에서 바람, 비, 구름은 농업에 중요한 요소로, 환웅이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를 거느리고 내려왔다는 내용을 통해 고조선이 농경 사회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바로 알기 | ① 고조선은 제정일치 사회였다. ③은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다. ④ 고조선은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이루어진 계급 사회였다. ⑤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하였다.

021 『삼국유사』에는 환웅과 웅녀 사이에 태어난 단군왕검이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고 쓰여 있다. 단군왕검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는 건국의 신성함과 지배자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만들어졌다.

022 고조선 사회는 왕을 비롯한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이루어졌으며, 왕 아래에는 상, 대부, 장군 등 다양한 관직을 두고 나랏일을 나누어 맡게 하였다. 또한 8개의 법 조항을 만들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였는데, 그중 오늘날 전해지는 3개의 조항을 통해 고조선에서 생명과 노동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개인이 재산을 소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알기 | ① ㉠은 부여에 대한 설명이다. 부여에서는 왕이 중앙을 다스리고 왕 아래 ‘가(加)’들이 각자의 영역을 다스렸다.

023 제시된 법 조항은 고조선의 8조법 중 오늘날 전해지는 3개의 조항이다. 남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식으로 갚고,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을 노비로 삼는다는 조항을 통해 개인이 재산을 소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임으로 갚게 한다는 조항을 통해 고조선에서 노동력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알기 | ㄴ, ㄹ. 고조선은 계급 사회이자 제정일치 사회였다.

024 청동기 제작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한반도 지역에서 비파형 동검은 점차 세형 동검으로 바뀌었다. 세형 동검은 거푸집이 함께 발견되어 한반도에서 자체적으로 동검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025 초기 철기 시대의 유적인 경남 창원 다호리 고분군에서 중국 동전, 청동 거울 등 중국과의 교류를 보여 주는 유물이 출토되었다. 한편, 무덤 안에서 발견된 붓을 통해 한반도에 한자가 전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026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만주와 한반도에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삼한 등 여러 나라가 성장하였다.

바로 알기 | ①은 삼한 중 변한, ②는 고구려, ③, ④는 고조선에 대한 설명이다.

027 기원전 1세기 무렵부터 만주와 한반도에서 철기를 널리 사용하면서 사람들은 낫, 도끼, 괭이 등 철제 농기구와 화살촉, 칼 등 철제 무기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철기를 잘 만들고 다루는 부족은 주변 지역을 통합하며 세력을 키워 나갔고, 그 결과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삼한 등 여러 나라가 성장하였다.

바로 알기 | ①은 청동기 시대에 대한 설명이다. 청동기 시대에 농경과 목축이 발달하면서 남는 생산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 빈부 격차와 계급이 발생하였다.

028 제시된 자료는 부여의 풍습에 대한 내용이다. 부여에는 고조선처럼 엄격한 법이 존재하여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하고 그 집안의 사람까지 노비로 삼았으며, 도둑질하면 물건의 12배를 갚게 하였다.

029 부여는 왕 아래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등 가족의 이름을 딴 ‘가(加)’들이 각자의 영역을 다스렸으며, 왕이나 귀족이 죽으면 사람을 함께 묻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 또한 넓은 평야와 초원 지대가 있어 밭농사와 목축이 발달하였다.

바로 알기 | ㉓ 부여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지냈다.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지낸 나라는 고구려이다.

030 압록강 유역의 졸본 지역에 세워진 고구려는 적극적으로 주변을 정복하며 세력을 키워 나갔다. 다섯 부족이 연합한 연맹 왕국이었던 고구려는 왕과 부족의 대표들이 제가 회의에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정하였으며,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10월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지냈다.

바로 알기 | ㉑ ㉒ 민며느리제의 혼인 풍습이 있었던 나라는 옥저이다. 고구려에는 사위집 제도(서옥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031 예시 답안 고구려는 산간 지역이 많아 농사지를 땅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농지 확보와 영토 확장을 위해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무예를 중요하게 여겼다.

032 부여와 고구려는 여러 부족이 연합하여 세운 연맹 왕국이었다. 부여는 여러 부족이 힘을 합쳐 세워졌으며, 고구려는 다섯 부족이 연합하여 세워졌다.

바로 알기 | ①, ②는 고구려, ③, ④는 부여에 대한 설명이다.

033 제시된 자료는 옥저의 풍습인 가족 공동 무덤에 대한 내용이다. 옥저에는 가족이 죽으면 뼈를 추려 가족 공동 무덤을 만드는 풍습이 있었다.

034 옥저에는 민며느리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신랑이 될 집안이 혼인을 약속한 여자아이를 데려와 키우다, 아이가 자라면 남자가 여자의 집에 예물을 주고 혼인을 청하는 풍습으로, 이는 당시에 노동력을 중시하였음을 보여 준다.

바로 알기 | ①, ④는 동예, ②는 부여, ③은 고구려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하다.

035 한반도 동해안에 자리 잡은 옥저와 동예는 농사가 발달하고 소금과 해산물이 풍부하였으나, 고구려의 간섭을 받아 크게 성장하지 못하였다.

바로 알기 | ④는 삼한에 대한 설명이다. 옥저와 동예에는 왕이 없었고, 읍군 또는 삼로라 불린 군장이 각 지역을 다스렸다.

036 (가)는 고구려의 사위집 제도(서옥제), (나)는 옥저의 민며느리제에 대한 설명이다. 고구려에서는 신랑이 신부집 뒤편에 살다가 아이가 자라면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한편, 옥저에서는 신부가 될 여자아이를 데려와 키우다가 성인이 되면 신랑이 예물을 주고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다시 데려왔다.

037 밑줄 친 ‘이 나라’는 동예이다. 동예에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으며, 다른 읍락의 경계 침범 시 노비나 소, 말 등의 가족으로 배상하는 책화와 같은 부족끼리 혼인하지 않는 족외혼의 풍습이 있었다.

038 예시 답안 책화는 다른 읍락의 경계를 침범하면 노비나 소, 말로 갚게 하는 동예의 풍습이다.

039 ㉠은 영고, ㉡은 무천이다. 부여는 사냥이 시작되는 12월에 영고, 동예는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지냈다.

040 한반도 남부 지방에 위치한 삼한은 기후가 알맞고 땅이 기름져 벼농사를 많이 지었다.

바로 알기 | ㄱ은 부여, ㄴ은 옥저와 동예에 대한 설명이다. 삼한은 5월과 10월에 제천 행사를 지냈으며, 신지, 읍차라 불린 군장이 각 지역을 다스렸다.

041 마한, 진한, 변한으로 이루어진 삼한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사회로, 천군이라는 제사장이 제사를 맡아 지냈다. 한편, 세력이 가장 강한 마한의 목지국 군장이 삼한을 대표하여 이끌었다.

바로 알기 | ㉓은 변한에 대한 설명이다. 변한은 철이 풍부하여 철을 낙랑, 왜 등에 수출하였고 화폐처럼 사용하였다.

042 삼한은 제정 분리 사회로, 군장의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소도는 군장의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도망친 사람이 소도에 숨어도 잡아갈 수 없었다.

043 지도에서 (가)는 부여, (나)는 고구려, (다)는 옥저, (라)는 동예, (마)는 삼한이다. 부여에는 엄격한 법이 존재하여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하고 그 집안의 사람 노비로 삼았으며, 도둑질하면 물건의 12배를 갚게 하였다.

바로 알기 | ①은 동예, ②, ④는 삼한, ⑤는 고구려에 대한 탐구 주제로 적절하다.

044 지도의 (라)는 동예로, 동예에는 같은 부족끼리 혼인하지 않는 족외혼의 풍습이 있었다.

바로 알기 | ①은 고구려, ②는 옥저, ③은 삼한, ⑤는 옥저와 동예에 대한 설명이다.

045 제시된 자료는 삼한의 풍습에 대한 내용이다. 삼한은 씨뿌리기를 마친 5월과 농사일을 마친 10월에 제천 행사를 지냈다. 지도에서 삼한은 (마)이다.

개념 확인 문제

14쪽

046 태학	047 남진	048 22담로	049 내물왕
050 법흥왕	051 고령	052 전진	053 금관가야
054 마한	055 사비	056 황룡사	057 진흥왕

난이도별 필수 기출

14쪽~19쪽

058 ③	059 진대법	060 ④	061 ①	062 ④
063 ②	064 ②	065 ⑤	066 충주 고구려비	
067 ③	068 해설 참조		069 ②	070 ②
071 ②	072 ④	073 ①	074 ③	
075 해설 참조		076 ㉠ 이사금, ㉡ 마립간		077 ④
078 ②	079 ④	080 ③	081 ③	
082 골품제	083 ②	084 상대등	085 ③	086 ①
087 ③	088 ⑤	089 ⑤	090 해설 참조	

058 (가)는 태조왕, (나)는 미천왕에 대한 설명이다. 1세기 후반에 태조왕은 동해안의 옥저를 정벌하고 요동 지방을 공격하였다. 4세기 초반에 미천왕은 한이 설치한 낙랑군을 몰아내고 대동강 유역으로 세력을 넓혔다.

059 고국천왕이 시행한 진대법은 백성에게 3월부터 7월까지 관청의 곡식을 빌려주고 10월에 갚게 한 제도이다. 고국천왕은 백성이 귀족에게 빌린 곡식을 갚지 못하여 노비가 되는 것을 막아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고, 귀족 세력을 억누르려 하였다.

060 고구려가 졸본 지역에서 압록강 유역의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긴 이후,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왕위 계승이 확립되었으며, 각 부를 다스리던 ‘가’들은 중앙의 귀족이 되었다. 한편, 고구려는 지방에 관리를 보내 행정과 군사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체제를 정비해 나갔다.

바로 알기 ④는 백제에 대한 설명이다. 고구려는 수도와 지방을 각각 5부로 나누었다.

061 소수림왕은 중국의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 백성의 사상을 하나로 모으고 왕실의 권위를 높이려 하였다. 또한 교육 기관인 태학을 세워 인재를 길렀고, 율령을 반포하여 통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였다.

바로 알기 ①은 광개토 대왕의 업적이다. 광개토 대왕은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062 제시된 자료는 광개토 대왕릉비문의 내용 중 일부로, 밀줄 친 ‘이 왕’은 광개토 대왕이다. 광개토 대왕은 거란과 후연을 공격하여 만주와 요동 지역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숙신과 동부여까지 정벌하였다. 또한 가야와 왜가 신라에 침입하자, 광개토 대왕은 군사를 보내 신라를 지원하였다. 이 시기에 고구려는 광개토 대왕을 ‘태왕(太王)’이라고 부를 정도로 강력하였다.

바로 알기 ④는 장수왕에 대한 설명이다. 장수왕은 백제를 공격하여 수도인 한성을 함락시키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였다.

063 고구려는 ‘(나) 태조왕의 옥저 정벌-(라) 고국천왕의 진대법 시행-(다) 소수림왕의 율령 반포-(가) 장수왕의 평양 천도’의 순서로 발전하였다.

064 지도는 고구려가 영토를 크게 넓힌 5세기를 나타낸다. 이 시기에 장수왕의 남진 정책에 위기를 느낀 백제와 신라가 나제 동맹을 체결하여 고구려에 대항하고자 하였다.

065 5세기에 넓은 영토를 차지한 고구려는 동북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성장하였다. 동북아시아에서 고구려 중심의 세력권을 형성하였고, 고구려 사람들은 고구려를 세상의 중심이라 여기는 독자적인 천하관을 내세웠다.

바로 알기 ㄱ은 신라, ㄴ은 가야 연맹에 대한 설명이다.

066 충북 충주에 있는 충주 고구려비는 한반도에 있는 유일한 고구려 비석으로, 비석의 위치를 통해 고구려가 한반도 중부 지역까지 영토를 넓혔음을 알 수 있다. 비석에는 고구려를 ‘태왕의 나라’로 표현하였다.

067 마한의 작은 나라에서 출발한 백제는 부여와 고구려에서 내려온 세력과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이 연합하여 세웠다. 초기에는 왕족과 여러 귀족 세력이 연합하여 정치를 이끌었으며, 3세기 중반 고이왕 때는 국가 체제를 정비하여 위계질서를 확립하였다.

바로 알기 ③ ㉠은 고구려 소수림왕에 대한 설명이다.

068 예시 답안 백제가 자리 잡은 한강 유역은 농사짓기에 좋고, 교통이 편리하여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유리하였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백제는 빠르게 성장하였다.

069 고이왕은 6좌평을 비롯한 관리의 등급을 마련하고, 관직에 따라 관복의 색을 구분하였다.

바로 알기 ㄴ은 근초고왕, ㄹ은 침류왕의 업적이다.

070 밀줄 친 ‘이 왕’은 근초고왕이다. 근초고왕은 마한의 남은 세력을 대부분 복속시키는 등 영토를 확장하였으며, 넓어진 영토와 해상 교통로를 바탕으로 가야, 중국 남조의 동진과 교류하였다.

바로 알기 ②는 성왕에 대한 설명이다. 성왕은 고구려가 정치적 혼란을 겪자, 신라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071 (가)에는 백제의 수도가 웅진이었던 시기에 있었던 일이 들어가야 한다. 이 시기에 동성왕은 신라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어 동맹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구려에 맞서고자 하였다. 또한 무령왕은 22담로에 왕족을 보내 귀족 세력을 억누르고 지방을 통제하였다.

바로 알기 ㄴ은 사비 천도 이후인 성왕 때, ㄹ은 웅진 천도 이전인 근초고왕 때 있었던 일이다.

072 검색창에 들어갈 왕은 무령왕이다. 웅진 천도 후 무령왕은 백제의 부흥을 위해 노력하였다. 22담로에 왕족을 보내 다스리게 함으로써 귀족 세력을 억누르고 지방을 통제하였으며, 중국 남조 및 왜와 활발하게 교류하여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다.

073 웅진에서 사비(부여)로 수도를 옮긴 성왕은 지방 통치 조직을 개편하여 수도는 5부로, 지방은 5방으로 나누어 다스렸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남조와 활발히 교류하였고, 불교와 유학 등 선진 문물을 왜에 전해 주었다.

바로 알기 | ①은 무령왕의 활동이다. 성왕은 중앙에 실무를 담당하는 22부의 관청을 설치하였다.

074 (가)는 5세기 개로왕, (나)는 6세기 성왕 때 있었던 일이다.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수도 한성이 함락되자, 백제는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다. 이후 사비로 수도를 옮긴 성왕은 국가 체제를 재 정비하여 중앙에 22부의 관청을 설치하고, 신라와 연합하여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신라 진흥왕이 나제 동맹을 깨고 백제를 공격하면서 백제는 한강 유역을 다시 신라에 빼앗기게 되었다.

바로 알기 | ③은 (가) 이전인 3세기 중반 고이왕 때 있었던 일이다.

075 **예시 답안** 신라가 한반도 동남쪽에 치우쳐 있어 중국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076 신라 초기에는 왕권이 강하지 않아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며 '이사금' 자리를 차지하였다. 이후 4세기 후반 내물왕 때부터 왕권이 강해져 김씨가 왕위를 독차지하였고, 왕을 부르는 명칭도 '마립간'으로 바뀌었다.

077 도표는 신라의 왕호 변화를 나타낸다. 신라는 시기마다 왕을 부르는 명칭이 달랐으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 신라에서 왕권이 점차 강해졌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알기 | 가, 다. 신라의 영토 확장과 중국과의 교류 확대는 신라 왕의 명칭 변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078 경주 호우총 출토 청동 '광개토 대왕' 명 호우는 신라의 무덤에서 출토되었으나 그릇의 바닥에 '국강상 광개토지 호태왕'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 5세기에 고구려가 신라에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079 밀줄 친 '이 왕'은 지증왕이다. 지증왕은 나라 이름을 '신라'로 정하고,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다. 또한 순장을 금지하고 우경을 장려하였다.

080 지증왕은 정복한 지역에 지방관을 보내 직접 다스렸다. 또한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울릉도)을 복속시키고 해마다 특산물을 바치게 하였다.

바로 알기 | 가, 르은 법흥왕의 업적이다.

081 법흥왕은 율령을 반포하여 법률로 나라를 다스렸으며, 관리를 17등급으로 나누고 관복의 색을 정하였다. 또한 불교를 공인하여 백성의 사상을 통합하고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였다.

바로 알기 | ③㉔은 진흥왕의 업적이다. 법흥왕은 김해의 금관가야를 복속시켰다.

082 신라의 신분 제도인 골품제는 사람들의 신분을 왕족인 성골과 진골, 그리고 그 아래 6두품에서 1두품으로 나누었다. 신라에서는 골품제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골품별로 올라갈 수 있는 관등의 한계를 정해 놓았다. 결혼도 같은 신분끼리만 할 수 있었으며, 골품에 따라 집의 크기, 가질 수 있는 가축의 수 등 일상생활까지 제한하였다.

083 백제 고이왕, 신라 법흥왕, 고구려 소수림왕은 율령을 반포하여 나라의 통치 기준을 마련하였다.

084 법흥왕은 최고 관직으로 상대등을 두고, 상대등이 귀족 회의인 화백 회의를 이끌도록 하였다. 화백 회의에서는 국가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여 결정하였다.

085 밀줄 친 '이 왕'은 진흥왕이다. 진흥왕은 정복한 지역을 직접 돌아보고 영토 확장을 기념하고자 서울 북한산, 황초령, 마운령에 신라 진흥왕 순수비를 세웠다. 또한 대가야를 정복하고 고구려를 공격하여 함흥평야까지 나아갔다. 한편, 진흥왕 때는 불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대규모 사찰인 황룡사를 지었으며,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바로 알기 | ③은 백제 근초고왕의 활동이다. 근초고왕은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

086 지도는 6세기 신라 진흥왕의 영토 확장을 보여 준다. 진흥왕은 백제 성왕과 연합하여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 상류 지역을 빼앗고, 이어 백제로부터 한강 하류 지역까지 빼앗았다.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점령하면서 신라는 황해를 거쳐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알기 | 다, 르은 4세기 후반 내물왕 때 있었던 일이다.

087 가야는 낙동강 하류의 변한 지역에서 작은 나라들이 연합하여 연맹을 이루었으며, 높은 농업 생산력과 우수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하였다.

바로 알기 | 가, 르은 신라에 대한 설명이다. 신라는 경주 일대의 여섯 촌락이 연합하여 세운 사로국에서 출발하였으며,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이전에는 고구려를 거쳐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였다.

088 (가)는 대가야, (나)는 금관가야이다. 김해의 금관가야는 해상 교통의 중심지에 있어 낙랑과 왜 사이에서 중계 무역으로 번성하였다.

바로 알기 | ①, ②는 금관가야, ③, ④는 대가야에 대한 설명이다.

089 밀줄 친 '이 나라'는 경남 김해가 옛 영토였다는 점 등을 통해 금관가야임을 알 수 있다. 금관가야는 낙동강 하류의 기름진 평야 지대에 자리 잡아 농업이 발달하였다.

바로 알기 | ①은 신라, ②는 백제, ③은 대가야, ④는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한 설명이다. 금관가야는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하지 못하였다.

090 **예시 답안** 고구려군이 신라에 침입한 왜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금관가야까지 공격받아 금관가야가 큰 타격을 입었다.

개념 확인 문제

22쪽

091 유교	092 오경박사	093 침성대
094 아스카 문화	095 담징	096 스에키
097 불교	098 굴식 돌방무덤	099 돌무지덧널무덤
100 남조	101 고구려	102 백제

난이도별 필수 기출

22쪽~25쪽

103 ③	104 ①	105 ⑤	106 ⑤
107 굴식 돌방무덤		108 ②	109 ⑤
110 해설 참조		111 ④	112 ①
114 도교	115 ③	116 ⑤	117 ③
119 ④	120 ⑤	121 해설 참조	122 ①
123 ④	124 ②		

103 굴식 돌방무덤은 돌을 쌓아 방을 만든 무덤으로, 천장과 벽에 벽화가 그려져 있다.

바로 알기 ①, ④, ⑤는 돌무지덧널무덤, ②는 가야의 대형 고분에 대한 설명이다.

104 밑줄 친 '이 무덤'은 묘지석 덕분에 무덤의 주인을 알 수 있었다는 내용을 통해 백제 무령왕릉임을 알 수 있다. 무령왕릉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 벽돌무덤의 형태로 제작되었다.

바로 알기 ㄷ은 돌무지무덤, ㄹ은 고구려의 굴식 돌방무덤에 대한 설명이다.

105 무령왕릉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 벽돌무덤 양식으로 만들어졌으며,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중국 청자와 청동 거울, 일본에서 자라는 나무로 만든 관 등은 백제가 중국 남조 및 왜와 활발히 교류하였음을 보여 준다.

106 돌무지덧널무덤은 구조상 도굴이 어려워 꺼묻거리가 많이 남아 있으며, 신라의 천마총, 황남대총 등이 해당한다.

바로 알기 ①은 백제의 무령왕릉, ②는 가야의 김해 대성동 고분군과 고령 지산동 고분군, ③은 고구려의 장군총, ④는 고구려의 무용총과 강서대묘 등이 해당한다.

107 고구려는 무용총, 강서 대묘 등의 굴식 돌방무덤에 벽화를 그렸다. 처음에는 벽화에 무덤 주인의 초상화나 생활 풍속을 표현하였으나, 점차 도교와 관련된 벽화를 많이 남겼다.

108 고구려는 초기에 돌무지무덤을 많이 만들었으나, 점차 굴식 돌방무덤을 만들고 무덤 안에 벽화를 남겼다. 가야는 김해 대성동과 고령 지산동 등지에 대형 고분을 축조하였고, 신라는 삼국 통일 이전 경주 일대에 거대한 크기의 돌무지덧널무덤을 만들었다.

바로 알기 ② 백제는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 무령왕릉 등의 벽돌무덤을 만들었다.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중국, 일본과 관련된 꺼묻거리를 통해 백제가 중국 남조 및 왜와 활발히 교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109 ㉠은 소수림왕, ㉡은 침류왕, ㉢은 법흥왕이다.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 중국 전진으로부터, 백제는 침류왕 때 중국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다. 신라는 법흥왕 때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다.

110 **예시 답안** 삼국은 불교를 중심으로 백성의 사상을 하나로 모으고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불교를 수용하였다.

111 제시된 탑은 신라의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이다.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은 신라 선덕 여왕 때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은 탑으로, 남아 있는 신라의 석탑 중 가장 오래되었다.

바로 알기 ㄱ은 백제의 익산 미륵사지 석탑에 대한 설명이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해체·수리 과정에서 무왕 때 건립되었음이 확인되었다. ㄷ. 목탑 양식에 따라 지어진 석탑은 백제의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다.

112 고구려의 사찰과 탑은 오늘날 전해지는 것이 없고, 불상인 금동 연가 7년명 여래 입상(①)만 전해진다. 불상의 뒷면에 고구려의 연호로 짐작되는 '연가'라는 글자와 불상을 만든 시기, 까닭이 새겨져 있다.

바로 알기 ②, ④는 각각 백제의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 삼존상, ③, ⑤는 각각 신라의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과 경주 배동 석조 여래 삼존 입상이다.

113 삼국에서는 불교 예술이 발달하여 백제에서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 삼존상 등을 만들었으며, 신라에서는 경주 배동 석조 여래 삼존 입상 등을 만들었다.

바로 알기 ① 경주 침성대는 신라의 천문 현상을 관찰하던 천체 관측기구로 짐작한다. 침성대를 통해 삼국 시대에 천문학이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114 삼국 시대에 중국에서 전해진 도교는 자연 숭배 사상이나 영원한 삶(불로장생)을 추구하는 신선 사상 등과 결합하여 귀족 사회에 널리 퍼졌다.

115 도교의 영향을 받아 백제에서는 ㄴ. 산수무늬 벽돌과 ㄷ. 백제 금동 대향로가 만들어졌다.

바로 알기 ㄱ은 불교의 영향을 받은 백제의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 삼존상이다. 부처의 둥근 얼굴과 인자한 미소가 특징으로, '백제의 미소'라고 불리기도 한다. ㄹ은 신라의 천체 관측기구로 짐작하는 경주 침성대이다.

116 삼국에서는 천체 현상이 왕의 권위와 연결된다고 여겼고, 계절 변화를 파악하는 일이 농사에 중요하였다. 따라서 삼국에서는 천문학이 발달하였다.

바로 알기 ㄱ은 불교에 대한 설명이다. 불교는 왕실과 귀족의 후원을 받아 빠르게 퍼져 나갔고 점차 일반 백성에게도 전해졌다. ㄴ. 천문학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지는 못하였다.

117 고구려 고분 벽화의 별자리와 신라의 경주 침성대를 통해 삼국 시대에 천문학이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118 임신서기석에는 신라의 두 청년이 유교 경전 공부에 힘쓸 것을 다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신라에서 유학이 발달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바로 알기 | ①, ⑤ 불교 수용과 화랑도 개편은 임신서기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③은 고구려, ④는 백제의 사회 모습이다.

119 삼국과 가야는 외교 사절이나 승려, 주민 등이 오가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고 문화를 발전시켰다. 고구려의 승려는 신라와 백제에 불교의 교리를 전해 주었고, 신라는 백제의 건축 기술을 토대로 황룡사 9층 목탑을 만들었다. 또한 한자를 이용한 고구려의 표기법이 신라에 전해졌다.

바로 알기 | ④ 백제의 계단식 돌무지무덤은 고구려 초기의 무덤과 모양이 비슷하다. 백제와 고구려의 돌무지무덤을 통해 백제 건국 세력이 고구려 계통임을 알 수 있다.

120 고구려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 북조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중앙아시아의 유목 민족과도 교류하였다. 백제는 황해를 거쳐 중국 남조와 활발히 교류하였으며, 가야는 바닷길로 중국이나 북방 민족의 문화를 받아들였다.

바로 알기 | ⑤ 신라는 처음에 고구려와 백제를 통해 중국 문화를 수용하였으나 한강 유역을 차지한 이후에는 황해를 거쳐 중국과 직접 교류하였다.

121 **예시 답안** 제시된 유물은 모두 신라의 고분에서 출토된 서역 제품으로, 이를 통해 신라가 서역과 교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122 일본과 활발하게 교류한 백제는 불교와 한문을 일본에 전파하였고, 오경박사 등의 학자와 건축·미술 분야의 기술자를 일본에 파견하였다.

바로 알기 | ㄷ은 신라, ㄹ은 가야에 대한 설명이다.

123 가야의 토기 제작 기술은 일본의 토기인 스에키 형성에 영향을 주었으며, 고구려의 담징은 종이와 떡 만드는 방법을 일본에 전해 주었다.

바로 알기 | ㄱ. 신라가 일본에 배 축조 기술을 전해 주었다. ㄷ. 백제의 아직기와 왕인이 일본에 유학을 전파하였다.

124 제시된 문화유산을 통해 삼국의 문화가 일본에 전해져 삼국과 일본의 문화유산이 서로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삼국과 가야는 왜와 교류하며 문화를 전파하였고, 이는 일본의 고대 문화인 아스카 문화가 발전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최고 수준 도전 기출 01~03강				26쪽~27쪽
125 ②	126 ③	127 ①	128 ②	129 ②
130 ④	131 ①	132 ③		

125 ㉠, ㉡, ㉢은 ○이고, ㉣, ㉤은 ×이다. 청동기 시대는 군장(족장)이 부족을 통솔하고 제사를 주관하는 제정일치 사회였다. 또한 곡식의 이삭을 자르는 데 반달 돌칼을 사용하였으며, 완만한 언덕에 마을을 형성하여 마을 주변에 도랑, 울타리 등 방어 시설을 마련하였다.

바로 알기 | 3은 신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이다. 5. 청동은 재료를 구하기 힘들고 농사짓는 데 사용할 만큼 단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동기 시대에 농기구와 생활 도구는 잘 다듬은 돌이나 나무로 만든 것을 사용하였다.

126 제시된 글에서 왼쪽은 위만의 즉위, 오른쪽은 고조선의 멸망을 다루고 있다. 위만이 고조선의 왕이 된 것은 기원전 194년, 고조선이 멸망한 것은 기원전 108년에 있었던 일이다. 이 사이 시기에 고조선은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고, 한과 한반도 남부 지역 사이에서 중계 무역으로 성장하였다.

바로 알기 | ㄱ은 고조선 멸망 이후, ㄴ, ㄷ은 위만의 즉위 이전 시기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하다.

127 (가)는 고구려, (나)는 부여, (다)는 동예, (라)는 삼한의 제천 행사에 대한 내용이다. 고구려는 산간 지역이 많아 농사지을 땅이 부족하자, 적극적으로 주변을 정복하여 주변 국가인 옥저와 동예를 복속시켰다. 동예에는 왕이 없었고 읍군 또는 삼로라 불린 군장이 각 지역을 다스렸다.

바로 알기 | ㄴ은 고조선의 8조법 중 일부이다. ㄹ. 삼한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사회였다. ㄷ. 고구려, 부여, 동예, 삼한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하였다.

128 ㉠은 신라 진흥왕, ㉡은 백제 근초고왕, ㉢은 고구려 광개토대왕이다. 근초고왕은 마한 지역 대부분을 복속시켜 남해안까지 진출하고, 고구려를 공격하여 황해도 일부 지역을 차지하는 등 영토를 확장시켰다.

바로 알기 | ①은 신라 법흥왕에 대한 설명이다. 법흥왕은 율령을 반포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고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다. ③은 고구려 장수왕에 대한 설명이다. 장수왕은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며 남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④는 진흥왕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차지한 것은 광개토대왕의 아들인 장수왕 때이다. ⑤는 광개토대왕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광개토대왕은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129 (가)는 성왕, (나)는 동성왕, (다)는 고이왕, (라)는 무령왕에 해당한다. 성왕은 국가 체제를 재정비하여 중앙에 실무를 담당하는 22부의 관청을 설치하였으며, 동성왕은 신라와의 동맹을 강화하고 신진 세력을 등용하는 등 왕권을 강화하였다. 고이왕은 안으로는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밖으로는 마한의 소국들을 통합하며 영토를 확장하였다. 무령왕은 중국 남조의 양, 왜와 교류하며 문화를 발전시켰다. 한편, 백제의 왕은 (다) 고이왕-(나) 동성왕-(라) 무령왕-(가) 성왕의 순서로 즉위하였다.

바로 알기 | ②는 성왕에 대한 설명이다.

130 (가)에는 ‘마립간’을 왕호로 사용한 시기에 있었던 일이 들어야 한다. 이 시기에 내물왕은 왕권이 강해져 왕호를 ‘마립간’으로 바꾸었으며,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도움을 받아 신라에 침입한 왜를 물리쳤다. (나)에는 지증왕에 이어 왕위에 오른 법흥왕 때 있었던 일이 들어가야 한다. 법흥왕은 김해의 금관가야를 복속시켰다.

바로 알기 ㄱ은 법흥왕 때의 일로 (나)에 들어가야 한다. 법흥왕은 상대등을 두어 귀족 회의인 화백 회의를 이끌게 하였다. ㄴ은 내물왕 때의 일로 (가)에 들어가야 한다. 내물왕 때부터 김씨가 왕위를 독차지하였다.

131 (가)는 굴식 돌방무덤, (나)는 돌무지덧널무덤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고구려와 백제는 초기에 돌무지무덤, 신라는 초기에 돌무지덧널무덤을 축조하였으나 점차 굴식 돌방무덤으로 고분 양식이 바뀌어 갔다. 한편, 신라의 돌무지덧널무덤에서는 금관을 비롯한 장신구 등 다양한 껍묻거리가 출토되었다.

바로 알기 ㄴ. 고구려는 굴식 돌방무덤에 도교와 관련된 벽화를 많이 남겼다. ㄷ은 돌무지무덤에 대한 설명이다. ㄹ. 장군총은 고구려의 돌무지무덤, 천마총과 황남 대총은 신라의 돌무지덧널무덤에 해당한다.

132 제시된 문제에서 1, 2, 3, 5번의 답은 ×, 4번의 답은 ○이다. 따라서 학생은 3, 4, 5를 맞고, 1, 2는 틀렸다. 일본은 가야의 토기 제작 기술을 받아들여 스에키를 만들었으며, 삼국 중 일본과 가장 많이 교류한 백제는 오경박사 등의 학자와 건축, 미술 분야의 전문가들을 일본에 파견하였다. 한편, 고구려는 중국 남북조를 비롯하여 몽골, 돌궐 등 중앙아시아의 유목 민족과도 교류하였다.

바로 알기 1. 신라의 고분에서 유리 제품과 칼 등 서역 물건이 발견되었다. 2. 신라가 배 만드는 기술과 독 썩는 기술을 일본에 전해 주었다.

04 삼국 통일과 발해의 성립

개념 확인 문제

30쪽

133 백제	134 안동도호부	135 안승
136 매소성 전투	137 고구려	138 발해
139 을지문덕	140 당	141 김춘추
142 황산벌	143 검모잠	144 말갈인

난이도별 필수 기출

30쪽~33쪽

145 돌궐	146 ③	147 ①	148 ②	149 ②
150 ⑤	151 ⑤	152 ⑤	153 ①	
154 연개소문		155 ④	156 ①	157 ④
158 ⑤	159 ②	160 해설 참조		161 ②
162 ③	163 남북국	164 ②	165 해설 참조	
166 ①				

145 6세기 후반에 수가 중국을 통일하면서 주변 국가인 돌궐을 억누르고 고구려를 압박하는 등 돌궐, 고구려와 대립하였다.

146 6세기 말~7세기 초에 중국을 통일한 수는 돌궐과 고구려 등 주변 국가를 위협하였다. 또한 고구려와 백제가 연합하여 한강 유역을 차지한 신라를 공격하였으며, 백제는 왜와의 연합을 더욱 강화하며 신라를 압박하였다.

바로 알기 ③ 수 문제가 남조와 북조로 분열되어 있던 중국을 통일하였다.

147 수 문제의 고구려 침입은 598년, 안시성 싸움은 645년에 일어났다. 이 사이 시기에 수 양제가 별동대를 보내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였으나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크게 물리쳤다. 이후 수의 뒤를 이어 건국한 당은 초기에는 고구려와 친선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당 태종 즉위 이후에는 주변 세력을 정복하며 고구려를 위협하였다. 이에 고구려는 국경 지역에 천리장성을 쌓으며 당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바로 알기 ①은 안시성 싸움(645) 이후인 648년에 있었던 일이다.

148 제시된 글은 수가 고구려를 침략하였을 당시 을지문덕이 수의 장군 우중문에게 철수를 요구하며 보낸 시이다. 을지문덕은 물러나던 수군을 공격하여 살수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바로 알기 ①은 김춘추, ③은 연개소문, ④는 계백, ⑤는 김유신의 활동이다.

149 당이 고구려를 압박하자 고구려가 천리장성을 쌓아 당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이후 당 태종이 연개소문의 정변을 구실로 고구려를 침략하면서 요동성과 백암성을 함락시키고 안시성을 공격하였다. 안시성의 성주와 백성이 당의 공격을 물리쳤으나 고구려는 오랜 전쟁으로 국력이 약해졌다.

바로 알기 ② 안시성의 성주와 백성이 당의 공격을 물리쳤다.

150 고구려는 막강한 군사력과 견고한 산성, 풍부한 철과 뛰어난 제철 기술 등을 바탕으로 외세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었다.

바로 알기 | ① 담징이 종이와 먹 만드는 방법을 일본에 전해 주었다. ② 고구려는 수에 대응하기 위해 백제와 연합하고자 하였다. ③ 고구려 부흥 운동은 지도층이 분열하면서 실패하였다. ④ 고구려는 당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동북쪽의 부여성에서 서남쪽의 비사성까지 천여 리에 이르는 천리장성을 쌓았다.

151 당 태종이 신라 김춘추의 동맹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신라는 당의 군사를 지원받는 대가로 당의 고구려 공격을 돕기로 약속하였다.

바로 알기 | ① 백제 의자왕은 신라의 군사 요충지인 대야성을 함락시켰다. 사비성은 백제의 성이다. ② 신라는 김춘추를 고구려에 보내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실패하였다. ③ 김춘추는 당으로 가서 동맹을 제안하였다. ④ 당 태종은 여러 차례 고구려를 침략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152 나당 연합군은 백제가 지배층의 분열로 혼란한 틈을 타 백제를 공격하였다. 황산벌에서 계백의 결사대가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에 맞서 싸웠으나 백제는 결국 멸망하였다. 백제가 멸망한 뒤 백제 부흥 운동이 일어났으나, 백제를 도우러 온 왜군이 백강 전투에서 패하면서 백제 부흥 운동은 실패하였다.

바로 알기 | ㄱ은 (가) 이전 신라에서, ㄴ은 (나) 이후 고구려 부흥 운동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다.

153 백제가 멸망한 뒤 복신과 도침, 흑치상지 등을 중심으로 백제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 이들은 한때 많은 성을 되찾았으나 지도층의 분열로 세력이 약해지면서 백제 부흥 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바로 알기 | ㄷ, ㄹ. 검모잠과 고연무는 고구려 부흥 운동을 전개하였다.

154 연개소문은 정변을 일으켜 보장왕을 세우고 스스로 최고 관직인 대마리지 자리에 올랐다. 또한 신라를 공격하고 당을 견제하는 등 신라와 당에 강경책을 펼쳤다.

155 연개소문은 천리장성 축조를 관리·감독하였으며, 고구려는 연개소문을 중심으로 당의 공격을 막아 냈다. 그러나 연개소문이 죽자, 그의 아들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일어나면서 고구려의 지배층이 분열하게 되었다.

바로 알기 | ㄱ. 당이 한반도를 지배하고자 옛 고구려 땅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하였다. ㄷ. 검모잠과 고연무 등이 고구려 부흥 운동을 주도하였다.

156 백제와 고구려는 멸망 후 각각 부흥 운동을 전개하였다. 백제 부흥을 위해 복신과 도침이 왕자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였으며, 고구려 부흥을 위해 고연무는 요동에서 당군을 상대로 활약하였다. 한편, 당을 물리치고자 신라가 고구려의 부흥 운동을 지원하기도 하였으나, 백제와 고구려 모두 지도층의 분열로 세력이 약화되면서 부흥 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바로 알기 | ① 흑치상지는 임존성에서 군사를 일으켜 백제 부흥 운동을 전개하였다. 주류성에서 백제 부흥 운동을 전개한 인물은 복신과 도침이다.

157 고구려 멸망 이후 검모잠은 보장왕의 아들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며 고구려 부흥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지도층의 분열로 고구려 부흥 운동은 실패하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였다.

158 ㉠은 웅진도독부, ㉡은 안동도호부이다. 당은 백제의 옛 땅에 웅진도독부, 고구려의 옛 땅에 안동도호부, 신라에는 계림도독부를 두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고자 하였다.

159 지도는 나당 전쟁의 전개를 나타낸다. 나당 전쟁 당시 신라는 고구려 출신 장군, 고구려 부흥 운동 세력 등과 연계하였으며,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이로써 신라는 대동강 남쪽 지역에서 당을 몰아내고 삼국을 통일하였다.

바로 알기 | ②는 고구려와 당의 전쟁에 대한 설명이다.

160 **예시 답안** 삼국 통일 과정에서 신라가 고구려, 백제 유민과 힘을 합쳐 당의 세력을 몰아내고 민족 통합을 시도하였다. 또한 삼국 통일로 삼국의 문화를 융합하여 새로운 민족 문화가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161 (가)는 외세의 세력이 개입된 삼국 통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나)는 삼국 통일로 오랜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시작되었다는 점 등에서 삼국 통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바로 알기 | ㄴ. (가)는 삼국 통일 과정에서 당의 세력이 개입되었음을 비판하였다. ㄷ. (나)는 신라의 삼국 통일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삼국 통일로 신라 중심의 문화가 아닌, 삼국의 문화가 융합된 새로운 민족 문화가 발전하였다.

162 ㉠은 백제, ㉡은 고구려, ㉢은 신라, ㉣은 발해를 가리킨다.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후 남쪽에는 통일 신라, 북쪽에는 발해가 함께 존재하였다.

163 조선 후기 실학자인 유득공은 『발해고』에서 남쪽에는 통일 신라, 북쪽에는 발해가 함께 존재하는 형태를 ‘남북국’이라고 하였다. 이로써 발해를 우리의 역사로 받아들여, 신라와 발해가 모두 우리 민족의 역사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164 옛 고구려 장군 출신인 대조영은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 등을 이끌고 요동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이 과정에서 당군의 추격을 천문령에서 물리쳤으며, 이후 중국 지린의 동모산 근처에 도읍을 정하고 발해를 세웠다.

바로 알기 | ② ㉠은 6세기 고구려에서 있었던 일이다. 수가 세력을 확장하며 고구려를 압박하자, 고구려는 요서 지방을 먼저 공격하였다.

165 **예시 답안** 발해 왕이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 ‘고려(고구려) 국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일본도 발해를 ‘고려(고구려)’라고 불러 주변 국가에서도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였다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166 제시된 자료를 통해 발해가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 고구려를 계승하였음을 드러냈고, 당의 역사서인 『구당서』와 일본의 역사서인 『속일본기』에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념 확인 문제

36쪽

167 관료전	168 9주	169 9서당	170 6부
171 김헌창	172 공예	173 문무왕	174 시중(중시)
175 무왕	176 문왕	177 호족	178 풍수지리설

난이도별 필수 기출

36쪽~41쪽

179 ①	180 ②	181 (가) 관료전, (나) 녹읍	182 ④
183 ⑤	184 집사부	185 해설 참조	186 ④
187 ⑤	188 ⑤	189 해설 참조	190 ⑤
191 ⑤	192 ①	193 ①	194 ④
196 ③	197 ①	198 ②	199 해공왕
201 ①	202 ②	203 호족	204 ③
206 ③	207 ④	208 ③	209 ⑤
211 ④			210 ②

179 ①은 무열왕, ②은 문무왕이다. 김유신의 도움으로 왕위에 오른 무열왕(김춘추)은 진골 귀족을 억누르고 왕권의 기반을 다졌다. 이후 무열왕의 아들인 문무왕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당 전쟁에서 승리하며 삼국 통일을 완성하였다.

180 (가)는 문무왕이다. 문무왕은 나당 전쟁에서 승리하고 삼국 통일을 완성하면서 왕권을 크게 강화하였다.
바로 알기 ① 문무왕 때 발해는 아직 건국되지 않았다. 발해는 문무왕 사후인 698년에 건국되었다. ③은 발해 문왕, ④는 신문왕, ⑤는 무열왕에 대한 설명이다.

181 (가)는 관리가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인 수조권만 가졌다는 내용을 통해 관료전, (나)는 수조권뿐 아니라 노동력을 징발할 권리까지 가졌다는 내용을 통해 녹읍임을 알 수 있다. 신문왕은 토지 제도를 정비하여 관리에게 관료전을 주고, 녹읍을 없앴으로써 귀족의 경제적 특권을 제한하였다.

182 신문왕은 장인인 김흠돌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진골 귀족을 제압하고 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하는 한편 녹읍을 폐지하면서 왕권을 강화하였다. 또한 교육 기관인 국학을 설치하여 유학을 보급하였다.
바로 알기 ④ ⑤은 성덕왕의 업적이다. 성덕왕은 백성에게 정전을 주어 농사짓게 하고 세금을 거두었다.

183 통일 신라의 중앙 정치는 국왕을 보좌하는 기구인 집사부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이에 따라 귀족 회의인 화백 회의의 기능이 줄어들었다.
바로 알기 ① 귀족 세력을 대표하는 상대등의 권한이 줄어들었다. ②, ④는 발해의 중앙 정치에 대한 설명이다. ③ 집사부 장관인 시중(중시)의 권한이 강해졌다.

184 삼국 통일 후 신라의 왕권이 강해짐에 따라 중앙 정치는 국왕 직속 기구인 집사부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185 **예시 답안** 집사부 장관인 시중(중시)의 권한이 강해지고, 화백 회의의 기능과 상대등의 역할이 줄어들었다.

186 통일 신라는 지방 통치 제도를 재정비하여 전국을 9주로 구분하고, 주 아래에 군과 현을 두었다. 군과 현에는 지방관을 보내 다스렸으며, 가장 낮은 행정 구역인 촌은 토착 세력을 촌주로 임명하여 관리하였다.
바로 알기 ④는 발해의 지방 통치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발해는 지방 행정을 5경 15부 62주로 정비하였다.

187 검색창에 들어갈 조직은 9서당이다. 통일 신라는 중앙군인 9서당에 신라인과 함께 고구려, 백제 출신과 말갈인까지 포함하여 민족 융합을 꾀하였다.
바로 알기 ①, ④ 통일 신라는 전국을 9주로 나누고, 지방의 주요 지역에 5소경을 설치하였다. ②는 발해의 중앙군, ③은 통일 신라의 지방군이다.

188 통일 신라는 군사 제도를 중앙군인 9서당과 지방군인 10정으로 정비하였다. 9서당에는 신라인뿐 아니라 고구려, 백제 출신과 말갈인도 편성하여 민족을 융합하고자 하였다.
바로 알기 ㄱ, ㄴ, 10정은 각 주에 1정씩 설치하였고, 국경 지역인 한주에는 2개의 정을 두었다.

189 **예시 답안** 5소경, 통일 신라는 수도 금성이 동남쪽에 치우친 점을 보완하기 위해 5소경을 설치하였다.

190 발해는 (다) 무왕 때 장문휴를 보내 당의 산둥 지방을 공격하였으며, (나) 문왕 때 수도를 중경에서 상경으로 옮겼다. (가) 선왕이 전성기를 이룩한 이후 당이 발해를 '해동성국'이라 불렀다. 따라서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나)-(가)'이다.

191 (가)는 698년, (나)는 9세기 전반의 일이다. (가), (나) 사이 시기에 무왕은 장문휴를 보내 당의 산둥 지방을 공격하였으며, 문왕은 8세기 후반에 '대흥'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바로 알기 ㄱ은 통일 신라 신문왕 때, ㄴ은 (가)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

192 대조영의 아들로, 대조영에 이어 왕이 된 무왕은 '인안'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또한 당이 흑수 말갈과 손을 잡고 발해를 압박하자 돌궐, 일본 등과 친선 관계를 맺어 당과 신라를 견제하였다.

193 제시된 자료는 문왕의 넷째 딸인 정효 공주 묘지석의 내용으로, 여기에 문왕 시기에 사용한 '대흥'이라는 연호와 황제를 뜻하는 '황상'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따라서 밑줄 친 '황상'은 발해 문왕을 가리킨다. 문왕은 수도를 중경에서 상경으로 옮기고, 중앙과 지방의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또한 당과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맺어 당으로부터 문물과 제도를 받아들였으며, 일본에도 자주 사신을 보냈다.
바로 알기 ① 문왕은 교통로를 개설하여 신라와 교류하였다.

194 지도는 발해의 최대 영역을 나타낸 것으로 선왕 때에 해당한다. 선왕은 대부분의 말갈 부족을 복속시키고, 옛 고구려 영토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바로 알기 ㄱ은 무왕, ㄴ은 문왕 시기에 있었던 일이다.

195 도표는 발해의 중앙 정치 제도를 보여 준다. 발해는 중앙 정치 제도를 당의 3성 6부제를 본떠 조직하였으나, 관청의 운영 방식이나 명칭 등을 발해의 실정에 맞게 바꾸어 당과 다른 독자성을 보였다.

바로 알기 | ㄱ. 6부가 행정 실무를 담당하였다. ㄴ. 발해가 정비한 중앙 정치 제도이다.

196 발해는 문왕 때 교통로를 개설하여 신라와 교류하기도 하였으며, 전성기를 이룬 이후에는 중국으로부터 '바다 동쪽의 융성한 나라'라는 뜻의 '해동성국'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바로 알기 | ㄱ. 발해는 거란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였다. ㄴ. 발해는 6부의 명칭을 유교 덕목에 따서 지었다.

197 발해는 지방 행정을 5경 15부 62주로 정비하여 지방의 교통 중심지에 15부를 설치하였다.

바로 알기 | ② 발해의 지방 촌락은 말갈 토착 세력이 수령이 되어 다스렸다. ③ 발해는 행정적·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5경을 설치하였다. 5소경은 통일 신라가 지방의 주요 지역에 설치하였다. ④ 발해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방이나 국경 지역에는 따로 지방군을 두었다. ⑤ 발해는 군사 조직으로 중앙에 10위를 두었다. 10정은 통일 신라의 지방군이다.

198 ㉠은 웅천주 도독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통해 김현창임을 알 수 있다. 김현창은 무열왕의 직계 후손인 아버지가 왕위에 오르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켰다.

199 8세기 후반부터 신라 사회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8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혜공왕은 780년 진골 귀족들의 반란으로 죽임을 당하였고, 이후 정치가 매우 혼란하여 150여 년 동안 왕이 20명이나 바뀌었다. 따라서 밑줄 친 '이 왕'은 혜공왕이다.

200 신라 말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지자 지방에서 김현창의 난, 장보고의 난 등 귀족들의 반란이 이어졌다. 또한 정부의 조세 징수 등에 반발하여 원종과 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 등 각지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

바로 알기 | ② 김흠돌의 난은 신문왕 즉위 직후인 681년, 즉 7세기 말에 일어났다.

201 제시된 자료는 신라 말 원종과 애노의 난이 일어났음을 보여 준다. 귀족의 수탈이 심해지고 흉년과 전염병 등으로 농민의 생활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부가 조세 징수를 독촉하자 원종과 애노가 반란을 일으켰다.

바로 알기 | ㄷ, ㄴ. 호족 세력의 성장과 6두품의 관직 승진 제한은 농민 봉기인 원종과 애노의 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202 밑줄 친 '반란'은 원종과 애노의 난이다. 9세기 말 진성 여왕 때 일어난 원종과 애노의 난을 시작으로 농민 봉기가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바로 알기 | ㄴ은 신라 말 지방 귀족 등 지방 세력, ㄷ은 장보고의 난에 대한 설명이다.

203 제시된 글은 호족에 대한 설명이다. 신라 말 지방에서 성장한 호족은 대부분 토착 세력인 촌주 출신이었으나, 중앙의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귀족이나 무역 활동으로 성장한 해상 세력, 군진의 무장 세력도 있었다.

204 ㉠은 6두품이다. 최치원 등 관직 승진에 제한이 있었던 6두품은 신라 사회의 개혁을 요구하였으나 진골 귀족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05 호족은 자신의 근거지에 성을 쌓고 군대를 거느리면서 독자적으로 지방을 다스렸다.

바로 알기 | ①, ②는 6두품, ④, ⑤는 호족에 대한 설명이다.

206 신라 말에는 지방에서 호족이 성장하였고, 6두품이 사회 개혁을 주장하였다. 또한 장보고가 왕위 다툼에 참여하였으며, 선종 승려인 도선이 풍수지리설을 널리 보급하였다.

바로 알기 | ③ 신라 말에는 선종이 호족과 백성의 호응을 받았다.

207 밑줄 친 '불교 종파'는 선종이다. 참선 등의 수행을 강조한 선종은 호족과 백성의 호응을 받았고, 호족의 후원으로 전국에 선종 사찰이 세워졌다.

바로 알기 | ㄱ은 유학, ㄷ은 불교 종파 중 교종에 대한 설명이다.

208 (가)는 땅의 생김새와 기운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통해 풍수지리설임을 알 수 있다. 풍수지리설은 수도 중심의 인식에서 벗어나 지방의 독자성을 강조하였고, 이는 지방 호족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바로 알기 | ㄱ은 불교, ㄴ은 유교에 대한 설명이다.

209 밑줄 친 '이 사상'은 선종과 풍수지리설이다. 신라 말에 선종과 풍수지리설이 크게 유행하였으며, 지방 호족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바로 알기 | ㄱ, ㄴ. 교종과 도교는 지방 호족이 사상적 기반으로 삼지 않았다.

210 (가)는 후고려(후고구려), (나)는 후백제이다. 신라 말 지방 호족인 궁예와 견훤이 각각 나라를 세우면서 후삼국이 성립되었다. 궁예는 송악에서 후고려(후고구려)를 세운 후 철원으로 수도를 옮겼으며, 견훤은 백제의 부흥을 내세우면서 완산주에 후백제를 건국하였다.

바로 알기 | ② 후고려(후고구려)는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었고, 철원으로 도읍을 옮긴 후에는 다시 태봉으로 고쳤다.

211 (가) 후고려(후고구려)를 세운 인물은 궁예이다. 신라의 왕족 출신으로 알려진 궁예는 복원(원주)의 호족인 양길의 부하로 활동하다가 점차 세력을 키운 후 901년 후고려(후고구려)를 건국하였다.

바로 알기 | ㄱ, ㄷ은 견훤에 대한 설명이다.

개념 확인 문제

44쪽

212 원효	213 『왕오천축국전』	214 승탑	215 청해진
216 문왕	217 발해관	218 국학	219 화엄 사상
220 불국사	221 상경성	222 정효 공주	223 당항성

난이도별 필수 기출

44쪽~47쪽

224 ①	225 독서삼품과	226 ⑤	227 ③
228 원효	229 ④	230 ⑤	231 ④
232 『무구정광대다라니경』	233 ①	234 성덕 대왕 신종	
235 ③	236 ④	237 ③	238 ④
240 ④	241 울산항	242 ①	239 ④
244 ②	245 ④	243 해설 참조	

224 삼국 통일 후 신라 신문왕은 교육 기관인 국학을 세워 유학을 가르치고 인재를 양성하였다.

바로 알기 | ② 태학은 고구려의 교육 기관이다. ③ 빈공과는 당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리 선발 시험이다. ④ 신라방은 당의 산둥반도 일대에 설치한 신라인 마을이다. ⑤ 주자감은 발해의 교육 기관이다.

225 원성왕은 독서삼품과를 마련하여 유학 보급에 힘썼다. 국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유교 경전에 관한 이해도를 시험하여 상중하로 등급을 나누었으며, 이를 참고하여 관리로 등용하였다.

226 통일 신라 시대에 유학이 발달하면서 뛰어난 유학자들이 등장하였다. 설총은 이두를 정리하여 유교 경전을 풀이하였으며, 김대문은 화랑들의 활약을 모아 『화랑세기』를 저술하였다. 최치원은 당에 유학하여 빈공과에 합격하였고, 강수는 뛰어난 외교 문서 작성으로 이름을 알렸다.

바로 알기 | ⑤ 혜초는 승려로, 인도와 중앙아시아 등을 순례하고 돌아와 『왕오천축국전』을 저술하였다.

227 (가)는 김대문, (나)는 설총에 대한 설명이다. 김대문은 화랑의 전기를 모은 『화랑세기』를 저술하였으며, 설총은 이두를 활용하고 정리하여 유교 경전을 우리말로 쉽게 풀이하였다.

228 (가)는 화쟁 사상으로, 원효가 주장하였다. 원효는 화쟁 사상과 아미타 신앙을 전파하였다.

229 원효는 불교계의 사상적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종파 간의 조화를 강조하는 화쟁 사상을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 ①, ②는 의상에 대한 설명이다. ③ 최치원 등 신라의 6두품이 당의 빈공과에 많이 합격하였다. ⑤는 혜초에 대한 설명이다.

230 (나)는 화엄 사상으로, 의상이 주장하였다. 의상은 당에서 화엄 사상을 공부하고 돌아와 통일 이후 혼란한 신라 사회를 통합하는 데 힘썼다.

바로 알기 | ㄱ, ㄴ은 원효에 대한 설명이다.

231 (가)는 불국사, (나)는 석굴암 본존상으로, 통일 신라의 대표적인 불교 문화유산이다. 불국사는 건물과 탑을 균형 있게 배치하여 불교에서 추구하는 이상 세계를 표현하였다. 석굴암 본존상은 인도의 불상 양식으로 만들었으며, 신라인이 생각하는 부처의 이상적인 모습을 표현하였다.

바로 알기 | ④는 감은사에 대한 설명이다.

232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경주 불국사 삼층 석탑의 내부를 수리하던 중 2층에서 발견된 불경이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로 알려져 있다.

233 제시된 글에서 삼국 통일 이후 목조 건축처럼 화려하게 장식된 석탑이 제작되었다는 내용을 통해 경주 불국사 다보탑에 대한 설명임을 알 수 있다.

바로 알기 | ②, ④는 백제의 탑이다. ③은 신라 말에 유행한 승려의 사리를 담은 승탑이다. ⑤는 통일 이전 신라 선덕 여왕 때 만들어졌다.

234 성덕 대왕 신종은 무게가 약 19톤에 이르는 거대한 종으로,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종 가운데 가장 크다. 상원사 동종과 함께 통일 신라의 섬세하고 뛰어난 금속 주조 기술을 잘 보여 준다.

235 발해는 유학을 중시하여 통치 이념에 반영하였다. 교육 기관으로 주자감을 설치하여 유학을 가르쳤으며, 발해 유학자들이 당의 빈공과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였다. 한편, 정혜 공주와 정효 공주의 묘지석에 새겨진 유교 경전 내용을 통해 발해에서 유학이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알기 | ③ ㉠ 독서삼품과는 통일 신라 원성왕 때 마련한 관리 등용 제도이다.

236 발해의 불교는 지배층을 중심으로 유행하였다. 문왕은 스스로를 불교의 이상적인 왕이라 칭하고 불교를 적극 후원하였다. 또한 발해의 상경성과 중경성 일대에는 절터 유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곳에서 발견된 불상이나 석등을 통해 불교가 번성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바로 알기 | ㄱ. 김대문은 통일 신라의 대표적 유학자이다. ㄴ은 통일 신라의 경주 불국사 삼층 석탑에 대한 설명이다.

237 발해의 대표적인 고분으로 정혜 공주 묘와 정효 공주 묘가 있다. 정혜 공주 묘는 고구려 고분 양식에 따라 굴식 돌방무덤 구조를 갖추었다. 정효 공주 묘는 당의 영향을 받아 벽돌무덤으로 만들었지만, 천장 구조는 고구려의 양식을 따랐다.

바로 알기 | ③은 정혜 공주 묘에 대한 설명이다. 정효 공주 묘의 천장은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 점차 좁아지는 평행 고임 구조로 만들었다.

238 제시된 문화유산은 고구려와 발해의 막새, 고구려와 발해의 치미이다. 서로 유사한 모습을 통해 발해가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239 밑줄 친 '이 나라'는 발해이다. 발해는 고구려 문화를 계승하면서 당과 말갈 등 주변의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였다. ①은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발해 막새, ②는 당의 영향을 받은 발해 삼채, ③은 말갈의 전통을 보여 주는 말갈식 발해 토기, ⑤는 발해 석등이다.

바로 알기 | ④는 통일 신라의 경주 불국사 삼층 석탑이다. 석가탑과 무영탑으로도 불린다.

240 통일 신라와 당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당의 산동반도 일대에 신라방, 신라소, 신라원 등 신라인을 위한 시설이 생겨났다. 한편, 신라는 일본과 활발히 교류하면서 금속 제품과 모직물 등을 수출하였고, 당과 일본 사이에서 중계 무역을 전개하였다. 또한 신라의 불교 사상을 일본에 전하여 일본 불교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바로 알기 | ④ 통일 신라는 당에 금은 공예품 등을 수출하고, 당으로부터 비단, 책 등을 수입하였다.

241 통일 신라 때 대외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수도 인근의 울산항과 서해안의 당항성이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특히 울산항을 왕래한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 신라의 이름이 이슬람 세계까지 알려졌다.

242 제시된 유물은 신라에서 발견된 서역인의 모습을 한 원형 왕릉 무인석과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서 유행한 사자 공작 무늬를 새긴 돌이다. 이 두 유물은 신라와 서역이 교류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바로 알기 | ②, ③, ④, ⑤는 모두 맞는 사실이나, 제시된 유물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니다.

243 **예시 답안**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적을 소탕하였으며, 청해진을 중심으로 당, 신라, 일본을 연결하는 해상 무역을 장악하였다.

244 ①은 신라방, ②은 발해관이다. 당의 산동반도 일대에 신라인 마을인 신라방과 발해 사신들의 숙소인 발해관이 설치되었다.

바로 알기 | 신라관은 신라인의 숙박 시설, 신라원은 신라인의 사찰이다. 법화원은 장보고가 신라인들을 위해 세운 사찰이다.

245 발해는 일본에 모피, 인삼 등을 수출하고, 일본으로부터 비단, 귀금속 등을 수입하였다.

바로 알기 | ① 문왕 때 친선 관계를 맺었다. ②는 통일 신라의 장보고에 대한 설명이다. ③ 발해는 당과 신라를 견제하고자 건국 초부터 일본과 적극 교류하였다. ⑤ 발해는 건국 초에 신라와 대립하였다.

246 ③	247 ③	248 ④	249 ④	250 ②
251 ①	252 ①	253 ③		

246 ①은 645년에 일어난 안시성 싸움이다. 수 멸망 후, 수의 뒤를 이어 건국한 당이 고구려의 안시성을 공격하였으므로 ①은 (나) 시기에 해당한다. ②은 660년에 일어난 황산벌 전투이다. 황산벌 전투 패배 이후 백제는 멸망하였으므로 ②은 (다) 시기에 해당한다.

247 (가)는 고연무, (나)는 검모잠, (다)는 흑치상지, (라)는 복신·도침, (마)는 안승에 해당한다. 백제가 멸망한 뒤 백제 부흥 운동은 흑치상지와 복신·도침 등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복신·도침은 의자왕의 아들인 왕자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한편, 고구려 멸망 이후 고연무는 요동에서 당군에 맞서 싸웠고, 검모잠은 보장왕의 아들인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여 고구려 부흥 운동을 벌였다.

바로 알기 | ③은 안승에 대한 설명이다. 고구려 부흥 운동 중 지도층의 분열로 안승이 검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망명하였으며, 신라는 안승을 보덕국의 왕으로 삼아 고구려 유민을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248 제시된 문제에서 1, 3, 5번의 답은 ×, 2, 4번의 답은 ○이다. 따라서 학생은 2, 3, 4, 5를 맞고, 1은 틀렸다. 발해는 지방 행정을 5경 15부 62주로 정비하였으며, 중앙 정치 기구는 당의 3성 6부제를 본떠 조직하였다. 통일 신라의 중앙 정치는 국왕 직속 기구인 집사부를 중심으로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귀족 회의인 화백 회의의 기능은 축소되었다. 통일 신라는 전국을 9주로 나누고 주요 지역에 5소경을 설치하였다. 5소경은 수도 금성이 동남쪽에 치우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바로 알기 | 1. 발해는 군사 조직으로 중앙에 10위를 두어 왕궁과 수도를 경비하였다.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방에는 따로 지방군을 두었다.

249 (가)에는 대조영 이후 왕위에 오른 무왕 때 있었던 일이 들어가야 한다. 발해의 세력 확장을 경계한 당이 흑수 말갈과 손을 잡고 발해를 압박하자, 무왕은 장문휴를 보내 당의 산둥 지방을 공격하였다. (나)에는 문왕 즉위 이후부터 발해 멸망 이전까지 있었던 일이 들어가야 한다. 선왕이 발해의 최대 영토를 확보하며 전성기를 이룩한 이후, 당은 발해를 '바다 동쪽의 융성한 나라'라는 뜻의 '해동성국'이라고 불렀다.

바로 알기 | ㄱ은 문왕 때의 일로 (나)에, ㄴ은 무왕 때의 일로 (가)에 들어가야 한다.

250 A는 호족, B는 6두품이다. 신라 말 지방에서 성장한 호족은 스스로를 성주 혹은 장군이라 부르며, 지방의 군사와 행정을 장악하였다. 한편, 골품제로 고위 관직에 오르지 못하며 관직 승진에 제한이 있었던 6두품은 신라 사회와 골품제를 비판하였다. 6두품 중 일부는 신라에 반기를 들고 호족과 함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 하였다.

바로 알기 | ①은 6두품 출신인 최치원, ③, ④, ⑤는 호족에 대한 설명이다.

251 A는 의상, B는 혜초, C는 원효이다. 의상은 당에서 화엄 사상을 공부하고 돌아온 후 부석사를 건립하여 제자를 양성하였다. 혜초는 인도와 중앙아시아 등을 순례하고 각국의 종교와 풍습 등을 기록한 『왕오천축국전』을 남겼으며, 원효는 백성에게 '나무아미타불'만 외우면 극락정도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며 불교의 대중화에 앞장섰다.

바로 알기 ㄴ, ㄹ은 의상, ㄷ은 원효에 대한 설명이다.

252 제시된 글은 신라 말 원종과 애노의 난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나는 상황을 보여 준다. 신라 말에는 혜공왕 이후 150여 년간 20명의 왕이 바뀌었으며, 지방에서 각자 세력을 거느린 호족이 성장하였다. 또한 호족의 후원으로 전국에 선종 사찰이 세워졌으며, 선종 승려인 도선이 풍수지리설을 널리 보급하기도 하였다.

바로 알기 ① 김흠돌의 난은 신문왕 즉위 직후인 681년, 즉 7세기 말에 일어났다.

253 (가)는 발해, (나)는 통일 신라이다. 발해는 당과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 건국 초부터 일본과 친선 관계를 맺고 적극적으로 교류하였다. 한 번에 백여 명이 넘는 대규모의 사절단을 파견하기도 하였으며, 일본에 모피, 인삼 등을 수출하고 비단, 귀금속 등을 수입하였다.

바로 알기 ① 발해는 문왕 때 당과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맺었다. ②는 통일 신라에 대한 설명이다. ④ 통일 신라는 당으로부터 비단, 책 등을 수입하였다. ⑤ 울산항과 당항성이 통일 신라의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으며, 울산항에는 아라비아 상인들이 방문하였다.

07 고려의 성립

개념 확인 문제

52쪽

254 왕건	255 고구려	256 과거제	257 최승로
258 도병마사	259 음서	260 송악	261 광종
262 상서성	263 안찰사	264 향·부곡·소	265 2군 6위

난이도별 필수 기출

52쪽~57쪽

266 ④	267 ④	268 ⑤	269 ②	
270 서경	271 ④	272 ④	273 ②	274 ②
275 해설 참조		276 ②	277 ⑤	278 ④
279 ④	280 ⑤	281 ④	282 ②	283 ⑤
284 ①	285 해설 참조		286 ①	
287 ㉠ 중서문하성, ㉡ 어사대			288 ⑤	289 ②
290 ①	291 ①	292 ⑤	293 ②	
294 국자감	295 ①	296 ④		
297 ㉠ 전시과, ㉡ 공음전		298 ⑤		

266 후고려(이후 태봉)를 세운 궁예의 신하였던 왕건은 후백제의 금성(나주)을 점령하는 등 공을 세워 최고 관직인 시중에 올랐다. 이후 궁예가 스스로를 미륵이라 부르며 난폭한 정치를 펼치자 호족들이 왕건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이에 왕건은 나라 이름을 '고려'로 바꾸고 태조로 즉위하였다. 태조는 공산(대구) 전투에서 후백제에 패배하였으나, 고창(안동) 전투에서 호족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며 후삼국 통일의 주도권을 차지하였다. 이후 후백제의 내분으로 아들 신검에게 왕위를 빼앗긴 견훤이 고려에 투항하고, 신라 경순왕도 고려에 항복하였다. 결국 고려는 일리천(구미) 전투에서 후백제군에 승리하고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바로 알기 ④ 고려는 일리천(구미) 전투에서 신검이 이끄는 후백제군을 격파하고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267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은 '라) 고려의 고창(안동) 전투 승리 - 나) 후백제 견훤의 투항 - 가) 신라 경순왕의 항복 - 다) 고려의 일리천(구미) 전투 승리'의 순서로 전개되었다.

268 고려는 신라와 후백제의 유민뿐만 아니라 발해 유민까지 포용하여 신라의 삼국 통일 이후 후삼국으로 분열되었던 민족을 다시 통합하였다. 또한 통일을 이끈 호족과 6두품 세력이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신라 시대에 비해 정치 참여 세력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바로 알기 ㄱ. 신라가 삼국을 통일함으로써 우리 민족을 최초로 통일하였다. ㄴ. 신라의 삼국 통일 당시 삼국의 유민들이 힘을 합쳐 당을 몰아냈다.

269 태조는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고자 북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배척하였으며, 발해 유민을 서북 지방에 살게 하여 거란을 경계하게 하였다.

바로 알기 ㄴ, ㄹ은 태조가 호족을 포섭하고 견제하고자 시행한 정책이다.

270 태조 왕건은 고구려 계승을 표방하며 복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고구려의 옛 수도였던 평양을 서경으로 삼고 중시하였으며 남쪽 지방의 백성들을 서경으로 옮겨 살게 하였다.

271 태조는 유력한 호족과 혼인 관계를 맺으며 호족 세력을 포섭하였다.

바로 알기 | ①, ②는 광종, ③, ⑤는 성종이 실시한 정책이다.

272 태조는 지방을 통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호족을 포섭하고 견제하는 정책을 펼쳤다. 태조는 유력한 호족과 혼인 관계를 맺고 관직과 토지, 왕씨 성을 내려 주었다. 또한 사심관 제도를 실시하여 호족이나 공신을 사심관으로 삼아 그들의 출신 지역을 다스리게 하였다. 아울러 기인 제도를 실시하여 호족의 자식을 수도에 머물게 하고 출신 지역의 일을 자문함과 동시에 이들을 볼모로 삼았다.

바로 알기 | ①, ②, ③은 태조의 정책이지만 호족 포섭·견제 정책과는 관련이 없다. ⑤는 성종이 시행한 정책이다.

273 제시된 자료는 태조가 남긴 훈요 10조이다. 태조는 훈요 10조에서 불교를 장려하고 서경을 중시하며, 연등회와 팔관회를 성대하게 개최할 것을 당부하였다. 그는 후삼국을 통일한 뒤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금을 줄였고, 중국 문화를 주체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건국 초부터 복진 정책을 추진하여 청천강에서 영흥만에 이르는 지역까지 영토를 넓혔다.

바로 알기 | ②는 성종에 대한 설명이다.

274 불법으로 노비가 된 양인을 해방한 제도는 노비안검법으로, 이를 실시한 ㉠은 광종임을 알 수 있다. 광종은 고려에 과거제를 도입하였다.

바로 알기 | ①은 태조, ③, ④는 성종, ⑤는 현종에 대한 설명이다.

275 **예시 답안** 광종이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자 호족의 경제와 군사 기반이 약화되었다.

276 ‘준풍’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고려의 왕은 광종이다. 광종은 고려에 과거제를 도입하였으며 스스로를 황제로 칭하였다.

바로 알기 | ㉠은 태조, ㉡은 성종이 시행한 정책이다.

277 태조 사후 외척들의 왕위 다툼으로 혜종과 정종 대에 왕권이 불안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위에 오른 광종은 노비안검법을 시행하고 왕의 정책에 반대하는 공신과 호족을 숙청하였으며, 관복을 제정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바로 알기 | ⑤는 (가) 이전인 태조 때에 있었던 일이다. 태조가 복진 정책을 추진한 결과 영토가 청천강에서 영흥만에 이르는 지역까지 확장되었다.

278 광종은 스스로를 황제로 칭하고 ‘광덕’, ‘준풍’과 같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며 고려가 황제의 나라임을 알렸다.

279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은 최승로이다. 최승로는 시무 28조에서 유교 기반의 정치를 추구할 것을 건의하였다. 성종은 이를 받아들여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고 국가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280 성종은 당과 송의 제도를 참고하여 고려의 중앙 정치 조직을 2성 6부로 정비하였다.

바로 알기 | ①, ③은 태조, ②, ④는 광종의 업적이다.

281 제시된 자료는 최승로의 시무 28조 중 지방관 파견을 제안한 조항이다. 성종은 이 건의를 받아들여 전국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바로 알기 | ①, ②는 광종, ③은 현종, ⑤는 태조가 시행한 정책이다.

282 태조는 호족을 포섭하고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그는 사심관 제도를 실시하여 호족이나 공신을 출신 지역의 사심관으로 임명하고 그 지역을 맡겨 다스리게 하였다. 또한 기인 제도를 통해 호족의 자식을 수도에 머물게 하여 출신 지역의 일을 자문하는 한편 이들을 볼모로 삼았다. 광종은 노비안검법을 시행하여 호족의 경제적·군사적 기반을 약화시키고자 하였다.

283 제시된 자료는 유교 기반의 정치를 제안하는 내용을 통해 최승로의 시무 28조임을 알 수 있다. 성종은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으며, 당과 송의 제도를 참고하여 중앙 정치 조직을 정비하였다. 고려의 중앙 정치는 당의 3성 6부제를 고려의 실정에 맞게 2성 6부제로 고쳐 운영되었으며, 송의 제도인 중추원과 삼사를 수용하였다.

바로 알기 | ①, ②, ③은 태조, ④는 광종에 대한 설명이다.

284 ㉠은 당, ㉡은 송이다. 고려의 중앙 정치 조직은 성종 때 당의 3성 6부를 고려의 실정에 맞게 고친 2성 6부로 정비되었다. 또한 송의 제도인 중추원과 삼사를 받아들여 운영하였다.

285 **예시 답안** 도병마사, 식목도감, 도병마사에서는 고위 관료들이 국방과 군사 문제를 논의하였고, 식목도감에서는 고위 관료들이 각종 제도와 시행 규칙을 제정하였다.

286 도표는 고려의 중앙 정치 제도를 보여 준다. 중서문하성은 고려의 최고 관청으로 정책을 논의하여 결정하였으며, 그 장관인 문하시중이 국정을 총괄하였다. 한편, 고려는 독자적인 회의 기구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을 두었다. 중서문하성과 중추원의 고위 관료들은 이곳에 모여 국가의 중요한 일을 논의하여 처리하였다.

바로 알기 | ㉠. 상서성은 아래에 실두 관청인 6부를 두고 정책을 집행하였다. ㉡. 고려의 중앙 정치는 당의 3성 6부제를 고려의 실정에 맞게 고쳐 2성 6부제로 운영하였다.

287 어사대는 중서문하성의 낭사와 함께 ‘대간’이라고 불리며, 관리들과 왕의 잘못을 비판하거나 왕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였다.

288 ㉠은 주현, ㉡은 속현, ㉢은 향리이다. 고려의 군현은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과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으로 나뉘었다. 주현의 수는 속현보다 적었으며, 주현의 지방관은 인근 속현까지 관리하였다. 한편, 실제 행정과 군사 업무는 각 지역의 향리가 담당하였다.

289 고려는 국왕의 비서 기관으로 중추원을 두었다. 중추원은 왕의 명령을 전달하고 군사 기밀을 다루었다.

290 지도의 빗금 친 지역은 양계(북계, 동계)이다. 양계는 국경의 군사 행정 구역으로, 중앙에서 병마사를 보내 관리하였다. 또한 지방군인 주진군이 주둔하여 국경 경비를 담당하였다.

바로 알기 | ㉠은 특수 행정 구역인 향·부곡·소가운데 소에 대한 설명이다. 소의 주민들은 광산업이나 수공업 등에 종사하며 국가에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였다. ㉡은 5도에 대한 설명이다. 양계는 군사 행정 구역으로 아래에 군현이 설치되었다.

291 지도는 고려의 지방 행정 구역을 나타낸 것이다. 고려는 성종 때 전국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보내면서 지방 제도가 갖추어지기 시작하였다. 고려는 전국을 5도(일반 행정 구역), 양계(군사 행정 구역), 경기(수도 개경과 그 주변 지역)로 나누어 다스렸다. 또한 개경, 서경, 동경을 3경으로 삼고 중시하였는데, 고려 중기 이후에는 개경, 서경, 남경이 3경으로 불렸다.

바로 알기 | ① 고려는 일반 행정 구역인 5도에 안찰사를, 군사 행정 구역인 양계에 병마사를 파견하였다.

292 고려는 특수 행정 구역으로 향·부곡·소를 두었다. 이곳의 주민들은 일반 군현민에 비해 많은 세금을 내는 등 차별을 받았다.

바로 알기 | ①은 개경, 서경, 동경(숙종 이후 남경), ②는 목, ③은 5도, ④는 신라의 5소경에 대한 설명이다.

293 고려는 중앙군으로 2군 6위, 지방군으로 주현군과 주진군을 두었다. 2군은 궁궐과 왕실을 지키고, 6위는 개경과 국경 지방을 방어하였다. 주현군은 5도의 군사 방어와 치안을 담당하였으며, 주진군은 양계에서 국경을 경비하였다.

바로 알기 | 나. 중앙군인 6위가 개경과 국경 지역을 방어하였다. 주진군은 양계에 주둔하며 국경 경비를 담당하였다. 르. 통일 신라의 중앙군인 9서당이 옛 고구려인·백제인, 말갈인으로 편성되었다.

294 고려는 성종 때 개경에 최고 교육 기관인 국자감을 세워 유학과 기술학을 가르쳤다. 국자감은 고려 후기에 성균관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295 고려의 과거는 원칙적으로 양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었으며, 승과를 실시하여 합격한 승려에게 품계를 내렸다.

바로 알기 | 드은 천거, 르은 음서에 대한 설명이다.

296 (가)는 음서이다. 고려에서는 음서를 실시하여 왕족과 공신, 5품 이상 고위 관리의 자손은 시험을 보지 않아도 관리가 될 수 있었다. 이들은 음서를 이용하여 후손에게 관직을 물려주기도 하였다. 고려에서는 음서를 통해 출세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과거 급제자가 고위 관직으로 나아가는 데 좀 더 유리하였기 때문에 음서로 관직에 나아간 사람이 다시 과거를 보기도 하였다.

바로 알기 | ④ 아들과 사위, 친손자와 외손자 모두 음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297 고려는 전시과를 실시하여 관리에게 토지의 수조권을 주었다. 수조권이 적용된 토지는 관리가 관직에서 물러나거나 사망하면 다시 국가에 되돌려 주었다. 그러나 5품 이상 관리에게는 공음전을 지급하였는데, 이 토지는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었다.

298 고려는 지방군으로 주현군과 주진군을 두어 각각 5도와 양계를 방비하였다. 승려는 승계를 받고자 승과에 응시하기도 하였다. 고려의 최고 교육 기관인 국자감에서는 유학과 기술학을 교육하였으며, 특수 행정 구역인 향·부곡의 주민은 농사를 짓고 소의 주민은 광산업이나 수공업에 종사하였다.

바로 알기 | ⑤ 화백 회의는 신라의 귀족 회의이다. 고려에서는 중서문하성과 중추원의 고위 관리들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에 모여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였다.

개념 확인 문제

60쪽

299 문벌	300 교정도감	301 최우	302 서희
303 금	304 삼별초	305 묘청	306 정방
307 망이·망소이 형제	308 강감찬	309 별무반	310 강화도

난이도별 필수 기출

60쪽~65쪽

311 ③	312 ③	313 ④	314 ①	315 ②
316 ④	317 풍수지리설		318 ②	319 ③
320 ①	321 ⑤	322 ①	323 최충헌	324 ①
325 ③	326 ① 도방, ㉠ 아별초		327 ④	328 ①
329 ④	330 해설 참조		331 만적	332 ③
333 ①	334 ④	335 ④	336 ④	337 ④
338 ③	339 ⑤	340 ④	341 해설 참조	
342 ⑤	343 ⑤	344 ③		

311 고려 전기의 지배층 중 일부 가문이 여러 세대에 걸쳐 고위 관리를 배출하며 문벌을 이루었다. 이들은 과거와 음서로 고위 관직을 독차지하고, 왕실이나 다른 문벌과 혼인 관계를 맺으며 세력을 넓혀 나갔다.

바로 알기 | 그은 신라 말에 등장한 호족, 르은 고려 무신에 대한 설명이다.

312 밀줄 친 '이 인물'은 이자겸이다. 이자겸은 자신의 딸들을 예종, 인종과 혼인시키며 막강한 권세를 누렸다. 이후 왕권에 위협을 느낀 인종이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시도하자, 이자겸은 척준경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바로 알기 | ①, ④는 묘청과 정지상 등 서경 세력, ②는 김부식 등 개경 세력, ⑤는 최승로에 대한 설명이다.

313 이자겸의 난은 인종에 의해 진압되었지만, 반란 과정에서 궁궐이 불에 타는 등 왕실의 권위가 크게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후 인종은 왕권을 회복하고자 묘청과 정지상 등 개혁 세력을 등용하였다.

바로 알기 | ①, ②, ③은 서경 천도 운동, ⑤는 신라 말에 일어난 김현창의 난에 대한 설명이다.

314 (가)는 풍수지리설을 내세워 서경으로 천도하자고 건의하는 내용을 통해 묘청, 정지상 등 서경 세력의 주장임을 알 수 있다. 인종은 이자겸의 난 이후 약해진 왕권을 회복하고자 묘청, 정지상 등 개혁 세력을 등용하였다. 이들은 황제 칭호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자고 건의하였으며,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고 금에 맞서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김부식 등 개경 세력의 반대로 서경 천도가 무산되었고, 이에 반발한 묘청 세력은 국호를 '대위', 연호를 '천개'라 내세우며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바로 알기 | ① 묘청과 정지상 등은 인종이 문벌 세력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등용한 인물들이다. 대표적인 문벌 세력으로는 이자겸과 김부식 등이 있다.

315 제시된 자료는 서경 천도를 둘러싼 서경 세력과 개경 세력의 논쟁을 보여 준다. (가)는 풍수지리설을 내세워 서경으로 천도 하자고 건의하는 내용을 통해 묘청 등 서경 세력의 주장임을 알 수 있다. (나)는 서경 천도를 반대하는 내용을 통해 김부식 등 개경 세력의 주장임을 알 수 있다. 묘청 등은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고 주장하였으나, 개경 세력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이에 반발한 묘청 세력은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바로 알기 | 나. 서경 천도에 반대한 김부식 등 문벌 세력이 개경에 세력 기반을 두었다. 르. 묘청 등 서경 세력이 금을 정벌하자고 주장하였다.

316 서경 천도 운동을 주도한 묘청, 정지상 등은 인종이 문벌 세력을 견제하고자 등용한 인물들이다. 서경 천도 운동이 실패로 끝난 뒤, 더 이상 견제 세력이 없어진 개경의 문벌 세력은 더욱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였다.

317 묘청 세력은 풍수지리설을 사상적 기반으로 삼고 서경으로 수도를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18 서경 천도 운동 이후 견제 세력이 사라지자, 대부분 문신 이었던 문벌 세력이 더욱 막강한 권력을 누렸다. 의종은 이들을 견제하고자 정치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문벌의 반발로 실패하였다.

바로 알기 | 나. 1126년의 일로 서경 천도 운동 이전에 일어났다. 르. 무신 정권기인 1176년에 일어났다.

319 의종은 즉위 초반에 문벌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문벌의 반발로 실패하면서 정치에 뜻을 잃고 연희와 놀이에 빠졌다. 이에 따라 대부분 문신이었던 문벌 위주의 정치가 계속되면서 무신에 대한 차별이 심해졌다. 하급 군인은 각종 공사에 동원되는 등 차별 대우를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배경이 되어 무신 정변이 일어났다.

바로 알기 | ③은 무신 정권기에 일어난 일이다.

320 제시된 자료는 문신이 무신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사건을 보여 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중부와 이의방 등은 무신 정변을 일으켜 문신을 제거하고 의종을 폐위시켰다.

바로 알기 | 다, 르. 서경 천도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321 무신 정권 초기에는 무신들 간의 권력 다툼이 발생하여 집권자가 자주 교체되었다.

바로 알기 | ①, ② 무신들 간의 권력 다툼으로 정치가 혼란해지자 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약해졌다. 이에 따라 지배층의 백성 수탈이 심해졌다. ③은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기 이전, ④는 묘청 세력이 반란을 일으키기 이전의 상황이다.

322 검색창에 들어갈 정치 기구는 중방이다. 무신 정권 초기에 무신들은 회의 기구인 중방에서 국정을 처리하였다.

323 최충현은 이의민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였으며, 그의 뒤를 이어 아들 최우가 집권하였다. 최씨 무신 정권은 4대에 걸쳐 60여 년 동안 유지되었다.

324 최충현은 경대승이 설치하였던 사병 집단인 도방을 확대하여 정권을 보호하였다.

바로 알기 | ②는 최승로, ③은 묘청 등, ④는 최우, ⑤는 태조(왕건)에 대한 설명이다.

325 (나)는 최씨 가문이 정권을 장악한 시기이다. 최충현은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였다. 이후 교정도감은 최씨 무신 정권의 권력 기구로 유지되었다.

바로 알기 | ①은 무신 정권 이전의 시기, ②는 이의민 등이 집권하였던 시기, ④는 인종이 재위하였던 시기, ⑤는 광종 등이 재위하였던 시기에 있었던 일이다.

326 최충현은 경대승이 설치하였던 사병 집단인 도방을 확대하여 정권을 보호하였다. 최우는 야별초를 설치하여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 기반으로 삼았다. 이후 야별초는 인원이 늘어 좌별초와 우별초로 분리되었고, 몽골에 잡혔다가 돌아온 군사들로 신의군을 조직하여 삼별초를 이루었다.

327 최우는 자신의 집에 정방을 설치하여 인사 행정을 담당하게 하였다.

바로 알기 | ①의 답은 중방, ②의 답은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③의 답은 교정도감, ⑤의 답은 어사대이다.

328 지도는 무신 정권기에 발생한 농민과 천민의 봉기를 보여 준다. 지도의 봉기가 일어난 시기에는 무신 집권자와 무신 출신 지방관들이 백성의 토지를 빼앗아 농장을 확대하고 가혹한 세금을 거두는 등 백성을 수탈하여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워졌다.

바로 알기 | 르. 태조(왕건) 사후 정권이 혼란하던 시기, 르. 신라 말 호족이 성장하던 시기의 상황이다.

329 (가)는 망이·망소이의 난이다. 망이·망소이 형제는 특수 행정 구역에 대한 수탈에 반발하여 공주 명학소에서 봉기를 일으켰다. 이들은 한때 충청도 일대를 점령하였으나 관군에 진압되었다.

330 **예시 답안** 무신 정권 초기에 권력 다툼으로 정치가 혼란해지고 지방 통제력이 약해지자, 지배층이 백성의 토지를 빼앗고 무거운 세금을 거두는 등 수탈이 심해졌다. 또한 천민 출신 무신 집권자가 등장하면서 백성들 사이에서 신분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331 제시된 자료에서 노비들을 모아 신분 해방을 목적으로 봉기를 준비하는 내용을 통해 ㉠이 만적임을 알 수 있다.

332 사노비였던 만적은 신분 해방을 목적으로 봉기를 계획하였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하였다.

바로 알기 | 르. 망이·망소이의 난, 르. 김사미와 효심의 난에 대한 설명이다.

333 지도에서 발해와 대립하였고 여진(금)에 의해 멸망하였으며, 고려와 교류하였으나 군사적으로 대립한 사실을 통해 (가)가 거란(요)임을 알 수 있다. 10세기 무렵 성장한 거란(요)은 발해를 멸망시키고 세력을 넓혀 나갔다.

바로 알기 | ②는 여진(금)에 대한 설명이다. ③ 고려는 건국 초부터 북진 정책을 추진하여 거란을 멀리하였다. ④는 송, ⑤는 몽골(원)에 대한 설명이다.

334 (가)는 강동 6주가 있는 지역이다. 거란의 1차 침입 당시, 서희는 거란 장수 소손녕과의 담판을 통해 강동 6주를 확보하였다.

바로 알기 | ① 주현군은 5도에 주둔하며 군사 방어와 치안을 담당하였다. ② 윤관은 여진을 정벌하여 차지한 동북 지역에 9성을 쌓았다. ③, ⑤는 서경에 대한 설명이다.

335 밑줄 친 ㉠은 거란의 2차 침입을 가리킨다. 고려가 송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자, 거란은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고려를 다시 침입하였다. 이때 고려는 국왕이 피신하고 개경을 점령당하는 위기를 겪었으나, 양규 등이 활약하여 거란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

바로 알기 | ㉠은 거란의 3차 침입 이후, ㉡은 거란의 1차 침입 당시 일어난 일이다.

336 거란의 3차 침입 당시 강감찬이 이끄는 고려군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거의 전멸시켰다.

337 거란의 침입과 격퇴 과정은 ‘(다) 서희의 외교 담판-(가) 거란의 2차 침입 격퇴-(나) 귀주 대첩-(라) 고려의 나성, 천리장성 축조’의 순서로 전개되었다.

338 12세기 무렵 세력을 키운 여진이 고려를 자주 침입하자, 윤관은 숙종에게 특수 부대인 별무반을 만들어 여진을 정벌하자고 건의하였다. 별무반은 기병인 신기군, 보병인 신보군, 승려로 이루어진 향마군으로 조직되었다.

339 윤관은 예종 대에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한 뒤 점령한 동북 지역에 9성을 쌓아 고려의 영토로 삼았다.

340 여진은 금을 세우고 거란(요)을 멸망시킨 뒤 고려에 군신 관계를 강요하였다. 고려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았으나,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이자겸 등이 반대 세력을 억누르고 금의 사대 요구를 받아들였다.

341 **예시 답안** 강화도는 바다에 익숙하지 않은 몽골군을 방어하고 바닷길로 세금을 거두는 데 유리하였기 때문이다.

342 고려와 몽골이 외교 관계를 맺은 이후, 점차 몽골이 과한 공물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에 왔던 몽골 사신 저고여가 귀국길에 살해당하자, 몽골은 국교를 끊고 고려를 침입하였다. 박서가 이끄는 고려군이 귀주성에서 항전하였으나 여러 지역이 몽골군에 함락되었다. 결국 최씨 무신 정권은 몽골과 강화를 체결하였고, 몽골은 고려에 다루가치를 두고 철수하였다. 이후 고려 정부가 강화도로 천도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몽골은 다시 고려를 침입하였다. 이때 김윤후가 백성들과 함께 처인성에서 몽골군 대장 살리타를 사살하는 등 몽골군에 항전하였다.

바로 알기 | ㉠, ㉡은 (나) 시기 이후에 있었던 일이다.

343 고려 정부의 개경 환도에 반발하며 반란을 일으켰다는 내용, 진도와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기며 저항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밑줄 친 ‘이 군대’가 삼별초임을 알 수 있다. 최우 때 조직되었던 야별초의 인원이 늘어 좌별초와 우별초로 분리되었고, 여기에 신의군이 합쳐져 삼별초를 이루었다.

바로 알기 | ①은 정중부와 이의방 등의 무신 세력, ②는 별무반, ③은 주진군, ④는 도방에 대한 설명이다.

344 고려는 불교의 힘으로 몽골을 물리치고자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다.

바로 알기 | ①, ④, ⑤는 신라 시대에, ②는 거란(요)의 침입 당시 만들어졌다.

09

원 간섭기 고려 사회의 변동과 개혁

개념 확인 문제

68쪽

345 쌍성총관부	346 정동행성	347 신돈
348 신진 사대부	349 흥건적	350 이성계
351 몽골풍	352 응방	353 전민변정도감
354 성균관	355 명	356 최무선

난이도별 필수 기출

68쪽~71쪽

357 ③	358 해설 참조	359 ④	360 ④
361 권문세족	362 ③	363 ③	
364 공민왕	365 ⑤	366 정방	367 ③
369 ⑤	370 ①	371 ④	372 ④
374 ③	375 ⑤	376 ⑤	377 ④
			378 ①

357 원은 일본을 정벌하고자 고려에 정동행성을 설치하고 원정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요구하였다. 일본 원정이 실패한 뒤에도 정동행성은 그대로 남아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였다.

바로 알기 | ㉠은 응방, ㉡은 동녕부에 대한 설명이다.

358 **예시 답안** 고려 국왕이 ‘조, 종’보다 격이 낮은 ‘왕’으로 불렸으며, 왕의 시호에 ‘충(忠)’ 자를 붙였다. 또한 ‘폐하’를 ‘전하’로, ‘태자’를 ‘세자’로 고쳤다. 관제도 격하되어 ‘2성’은 ‘첨의부’로, ‘6부’는 ‘4사’로 바뀌었다.

359 원은 철령의 북쪽 지역에 쌍성총관부, 서경 지역에 동녕부, 제주도에 탐라총관부를 두고 고려 땅 일부를 직접 지배하였다.

360 고려에서 발발 등 몽골 풍습이 유행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밑줄 친 ‘이 시기’는 원 간섭기임을 알 수 있다. 원 간섭기에 고려에서는 발발 외에도 변발(몽골식 머리 모양), 철릭(몽골식 의복) 등이 유행하였다. 원은 고려의 여성을 공녀로 끌고 갔으며, 조공으로 사냥용 매를 요구하여 고려에는 매를 관리하는 관청인 응방이 설치되었다. 한편, 당시 지배층이었던 권문세족은 고위 관직을 독점하여 뇌물을 받고 관직을 파는 등 부정을 저질렀다.

바로 알기 | ④는 고려와 몽골이 전쟁하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몽골이 침입하였을 때 김윤후는 백성들과 함께 처인성에서 항전하여 몽골군을 물리쳤다.

361 제시된 자료에서 토지를 강제로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내용을 통해 밑줄 친 ‘권세 있는 자들’이 권문세족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토지와 노비를 빼앗아 대농장을 경영하였다.

362 권문세족은 기존의 지배층뿐만 아니라, 국왕 측근 세력, 응방의 관리, 몽골어 통역관, 원 황실과 혼인 관계를 맺은 가문 등으로 이루어져 친원적 성향이 강하였다. 이들은 뇌물을 받아 관직을 팔거나, 백성들이 국가에 낸 세금을 가로채는 등 부정부패를 일삼았다. 충선왕과 충목왕은 권문세족의 횡포와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권문세족의 반발로 실패하였다.

바로 알기 | ③ 권문세족은 음서를 통해 고위 관직을 독점하였다.

363 ㉠은 기철이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내용을 통해 권문세족임을 알 수 있다. 권문세족은 다른 사람의 노비와 토지를 빼앗아 불법적으로 대규모 농장을 경영하였으며, 가난한 백성을 노비로 삼아 농장에서 일하게 하였다.

바로 알기 | ①, ②, ④는 신진 사대부, ⑤는 신흥 무인 세력에 대한 설명이다.

364 지도는 공민왕이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되찾은 영토를 보여 준다. 이를 통해 밑줄 친 '이 왕'은 공민왕임을 알 수 있다. 공민왕은 원이 철령 이북 지역을 지배하고자 설치한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그 지역을 되찾았다.

365 공민왕은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회복하고자 개혁을 실시하였다. 그는 기철 등 친원 세력을 제거하고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던 정동행성의 일부 기능을 폐지하였다. 또한 격하되었던 왕실 용어와 관제를 회복하였으며, 원의 풍습을 금지하여 변발을 금지하고 원의 연호를 폐지하였다.

바로 알기 | ⑤ 공민왕은 쌍성총관부가 다스리던 지역을 회복하였다.

366 정방은 최우가 자신의 집에 설치하여 인사 행정을 담당하도록 한 기구이다. 공민왕은 정방을 폐지하고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367 제시된 자료는 공민왕 때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의 설치를 선언하는 내용이다. 밑줄 친 '도감'은 권세가들이 백성들의 땅을 빼앗은 일을 고치려 한다는 내용을 통해 전민변정도감임을 알 수 있다. 공민왕은 승려 신돈을 등용하여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권문세족이 빼앗은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강제 노비가 된 사람들을 양민으로 풀어 주었다.

바로 알기 | ㄱ은 태조가 설치한 흑창 등, ㄴ은 원이 설치한 정동행성에 대한 설명이다.

368 공민왕은 신돈을 등용하여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고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개혁에 반발한 권문세족에 의해 신돈이 제거되고 공민왕이 시해되면서 개혁은 중단되었다.

369 공민왕은 성균관을 정비하여 유학 교육을 강화하고 개혁을 뒷받침하는 세력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유교 지식을 갖춘 신진 사대부가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이들은 권문세족을 비판하며 공민왕의 개혁을 지지하였다.

370 14세기 중반에는 원의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공민왕은 원의 세력이 약해진 것을 기회로 삼아,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 고려의 자주성을 되찾으려는 개혁을 추진하였다.

371 공민왕이 추진한 개혁의 영향으로 고려의 자주성이 회복되었고, 유교 지식을 갖춘 신진 사대부가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바로 알기 | ㄱ. 원은 국내에서 반란이 계속되어 세력이 약화되었고, 여기에 공민왕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고려에 대한 원의 내정 간섭이 약해졌다. ㄴ. 공민왕은 반원 개혁 정치의 일환으로 몽골의 풍습을 금지하였다.

372 권문세족은 대부분 음서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여 고위 관직을 독점하였다. 신진 사대부는 원과 명이 교체되던 시기에 원과 관계를 끊고 명과 우호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 ㄱ은 신진 사대부, ㄴ은 권문세족에 대한 설명이다.

373 제시된 글에서 설명하는 정치 세력은 신진 사대부이다. 공민왕 때 본격적으로 정치에 진출하였으며, 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삼아 개혁을 추진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신진 사대부임을 알 수 있다. 신진 사대부는 대부분 하급 관리나 지방 향리 집안 출신이었다. 이들은 권문세족의 횡포와 불교계의 폐단을 비판하였으며, 토지 제도를 개혁하자고 주장하였다. 위화도 회군 이후에는 고려 사회의 개혁 방법을 둘러싸고 온건파 신진 사대부와 급진파 신진 사대부로 분열하였다.

바로 알기 | ① 신진 사대부는 주로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였다.

374 지도는 고려 말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에 맞선 고려 무인들의 활약상을 보여 준다. 외적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큰 공을 세운 무인들은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 신흥 무인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375 최무선은 고려 정부에 화약을 제조하는 관청을 만들자고 건의하였고, 그 결과 화통도감이 설치되었다. 그는 이곳에서 만든 화약과 화포를 사용하여 진포에서 왜구를 크게 물리쳤다.

376 중국을 차지한 명은 고려를 속국처럼 대하며 공민왕 때 회복하였던 철령 이북의 땅(옛 쌍성총관부 지역)을 직접 다스리겠다고 하였다. 이에 우왕과 최영은 요동 정벌을 준비하였다.

377 지도에 나타난 사건은 위화도 회군이다.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 개경으로 돌아온 뒤 최영과 우왕을 몰아내고 정치·군사적 실권을 장악하였다. 위화도 회군 이후 신진 사대부는 고려 사회의 개혁 방법을 둘러싸고 급진파 신진 사대부와 온건파 신진 사대부로 분열하였다. 결국 이성계와 급진파 신진 사대부는 새로운 왕조 개창을 반대하는 온건파 신진 사대부를 제거하고 고려 왕조를 무너뜨렸다.

바로 알기 | ④는 위화도 회군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

378 온건파 신진 사대부는 고려 왕조를 유지해야 하며, 고려 전기의 제도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색, 정몽주 등이 있다. 급진파 신진 사대부는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국가 제도 전체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조준, 정도전 등이 있다. 이성계는 급진파 신진 사대부와 손잡고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이후 온건파 신진 사대부를 제거하고 고려 왕조를 무너뜨렸다. 온건파 신진 사대부와 급진파 신진 사대부 모두 공민왕 때 본격적으로 중앙 정치에 진출하였다.

바로 알기 | ① 이성계는 급진파 신진 사대부와 함께 개혁을 추진하였다.

개념 확인 문제

74쪽

379 유교	380 이제현	381 「동명왕편」
382 천태종	383 도교	384 송
385 안향	386 「삼국유사」	387 불교
388 상감 청자	389 원	390 문익점

난이도별 필수 기출

74쪽~77쪽

391 ①	392 ①	393 ④	394 ⑤
395 ㉠ 신라, ㉡ 고구려, ㉢ 고조선	396 ①	397 ③	
398 해설 참조	399 ④	400 향도	401 ①
402 풍수지리설	403 ②	404 ④	405 ⑤
406 ③	407 ⑤	408 ④	409 ②
410 벽란도	411 ②	412 ⑤	413 해설 참조

391 고려는 개경에 최고 교육 기관인 국자감을 두고, 지방 주요 지역에는 향교를 세워 유교 경전과 역사서를 가르쳤다. 고려 초기에는 유교 경전의 이해 능력을 강조하였고, 고려 중기에는 시나 문장 짓는 능력을 더욱 중시하였다. 이 시기에는 관학이 쇠퇴하고 최충의 9재 학당과 같은 사학이 번성하였다.

바로 알기 ①은 불교에 대한 설명이다. 고려는 존경받을 만한 승려에게 국사, 왕사의 칭호를 주고 나라의 스승으로 삼았다.

392 제시된 글의 이제현이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며 연구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밑줄 친 '이 학문'은 성리학임을 알 수 있다. 성리학은 충렬왕 때 안향이 고려에 처음으로 소개하였다. 이후 신진 사대부는 성리학을 개혁 사상으로 수용하여 권문세족의 횡포와 불교계의 폐단을 비판하였다.

바로 알기 ㄷ은 풍수지리설, ㄹ은 불교에 대한 설명이다.

393 일연의 「삼국유사」는 처음으로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를 기록하였다. 이승휴도 「제왕운기」에서 단군이 세운 고조선을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로 서술하였다.

바로 알기 ①은 「동명왕편」, ②는 「삼국사」와 「7대 실록」, ③은 「삼국사기」, ⑤는 「사략」에 대한 설명이다.

394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는 오늘날 전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로, 유교 사관에 따라 서술되었다. 일연이 편찬한 「삼국유사」에는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가 처음으로 기록되었다. 일연은 토착 신앙과 문화를 중요하게 여겨 설화와 전설, 불교 의식 등을 비중 있게 서술하였다.

바로 알기 ⑤는 「삼국유사」에 대한 설명이다. 「삼국사기」는 이자겸의 난과 서경 천도 운동 이후에 왕권을 회복하고자 편찬되었다.

395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신라 계승 의식을 반영하여 고려가 통일 신라를 이어받았음을 강조하였다.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하는 서사시로, 고구려 계승 의식을 내세웠다. 일연의 「삼국유사」와 이승휴의 「제왕운기」는 단군과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하였다.

396 검색창에 들어갈 역사서는 「사략」이다. 고려 후기에 성리학을 받아들이면서 정통 의식과 대의명분을 강조하는 역사가관이 등장하였다. 이제현은 이러한 사관을 반영하여 「사략」을 저술하였다.

397 고려 시대의 불교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 크게 발전하였다. 고려는 과거제에 승과를 두어 합격한 승려에게 승계를 부여하였으며, 국사와 왕사 제도를 정비하여 덕망 높은 승려를 나라의 스승으로 삼았다. 또한 사찰에 토지와 노비를 지급하고 승려에게 다양한 특권을 부여하였으며, 연등회와 팔관회 등 종교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하여 백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바로 알기 ③ 국자감은 고려 시대의 최고 교육 기관으로, 유교 경전과 역사서를 가르쳤다. 고려 중기에 관학이 쇠퇴하자, 예종과 인종은 국자감의 교육 제도를 정비하여 관학을 되살리고자 하였다.

398 **예시 답안** 의천은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 하였으며, 천태종을 창시하여 선종까지 포용하려 하였다.

399 지눌은 무신 정권기에 세속화된 불교를 비판하며 수선사(송광사)를 중심으로 불교 개혁 운동을 펼쳤다. 그는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불경 공부, 수행, 노동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눌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용하고자 하였다.

바로 알기 ㄱ은 대각 국사 의천, ㄴ은 통일 신라의 승려인 원효의 활동이다.

400 고려 시대의 백성들은 향도라는 불교 신앙 공동체를 결성하였다. 이들은 마을 일을 함께 도왔으며, 내세의 복과 나라의 부강을 빌며 바닷가에 향나무를 묻는 매향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401 밑줄 친 '이 사상'은 도교이다. 고려 시대 사람들은 도교의 신들에게 불로장생과 현세의 복을 빌고, 국가의 평안과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였다. 고려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도교 행사를 자주 열었으며, 12세기 무렵에는 도교 사원을 세웠다.

402 고려 시대에 풍수지리설은 미래의 길흉화복을 예언하는 도참사상과 결합하여 유행하였다. 묘청은 풍수지리설을 내세우며 개경의 기운이 약해졌으니 서경으로 수도를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03 「수월관음도」는 고려 후기에 지배층의 후원으로 그려진 불화이다.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은 주심포 양식과 배흘림기둥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고려 시대의 사찰이다. 평창 월정사 8각 9층 석탑은 고려 전기에 세워진 다각 다층탑이다.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은 고려 전기에 지역적 특색을 담아 만들어진 대규모 불상이다.

바로 알기 ②는 통일 신라 때 만들어진 불교 문화유산이다.

404 고려 후기에 제작된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원의 영향을 받아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다.

405 제시된 청자는 청자 상감 운학문 매병으로, 대표적인 고려 시대의 상감 청자이다. 상감 청자는 상감 기법으로 표면에 화려한 무늬가 새겨졌다. 고려 말에는 왜구의 침입으로 해안 지역이 피해를 입으면서 청자 생산이 쇠퇴하였다.

바로 알기 ㄱ. 상감 청자는 12세기 중반 무렵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ㄴ. 상감 청자는 고려의 독창적인 제작 기법으로 만들어졌다.

406 팔만대장경판은 최우 때 불교의 힘으로 몽골의 침입을 막고자 만들어졌다. 이는 현재 합천 해인사의 장경판전에 보관되어 있다. 『직지심체요절』은 청주 흥덕사에서 만들어졌으며,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이다.

바로 알기 | ③ 팔만대장경판은 몽골의 침입을 불교의 힘으로 막고자 만들어졌다. 거란의 침입 당시 만들어진 것은 부인사의 초조대장경 목판이다.

407 고려 시대에는 나전 칠기와 같은 목공예품, 은입사 기술을 활용한 금속 공예품이 유행하였다. 고려 후기에는 지배층의 후원으로 다양한 불화가 그려졌으며, 12세기 무렵에는 상감 기법을 사용하여 표면에 화려한 무늬를 새긴 상감 청자가 유행하였다.

바로 알기 | ⑤ 고려 시대의 예술은 송, 원 등 주변 나라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하였다.

408 지도에서 (가)는 거란(요), (나)는 송, (다)는 아라비아 상인, (라)는 일본, (마)는 여진(금)이다. 거란의 침략을 물리친 후 고려는 거란과 정기적으로 사신을 교환하며 교류하였다. 거란에서 들어온 대장경은 고려의 대장경을 만드는 데 영향을 주었다.

바로 알기 | ㄱ. 고려의 학자는 원에서 성리학을 공부하였다. ㄷ. 아라비아 상인은 고려를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서방 세계에 알렸다.

409 지도의 (나)는 송으로, 고려는 주변 나라 중 송과 가장 활발하게 교류하였으며 거란과 여진을 피해 주로 바닷길로 교역하였다. 고려는 송과 교류하며 경제적·문화적 실리를 추구하였다. 고려는 송의 통치 체제를 참고하여 국가 체제를 정비하였으며, 송으로부터 청자 제작 기술, 궁중 음악 등 다양한 문물을 수용하였다.

410 벽란도는 개경에서 가까운 예성강 하구에 있는 무역항이다. 벽란도는 송과 일본, 동남아시아 및 아라비아 상인들이 와서 교류하는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411 고려는 원과 교류하며 다양한 문물을 받아들였다. 원의 역법인 수시력을 도입하였고, 문익점은 원에서 목화를 들여왔다. 최무선은 몽골인에게 화약 제조 기술을 배워 화약과 화포를 만들었으며, 이를 사용하여 왜구를 물리쳤다. 또한 원으로부터 수용한 성리학은 신진 사대부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바로 알기 | ② 고려의 대장경은 거란(요) 등의 대장경을 참고하여 만들어졌다.

412 고려의 신분은 법적으로 양인과 천민으로 나뉘었으며, 양인 중 지배층은 관직에 나아가 녹봉과 토지를 받았다.

바로 알기 | ㄱ. 백성이라 불렀던 농민층은 국가에 세금, 노동력, 특산물을 바쳤다. ㄴ. 고려는 신라와 달리 제한적인 신분 상승이 가능하였다.

413 **예시 답안** 재산이 성별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상속되었고, 부모 봉양과 제사의 의무도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지 않았다.

최고 수준 **도전 기출** | 07~10강 |

78쪽 ~ 80쪽

414 ②	415 ②	416 ⑤	417 ①	418 ③
419 ③	420 ④	421 ⑤	422 ②	423 ⑤
424 ④	425 ③			

414 ㉠은 광종, ㉡은 태조, ㉢은 성종이다. 태조는 호족을 포섭하고 통제하여 왕권을 안정시키고자 기인 제도와 사심관 제도를 실시하였다. 기인 제도는 호족의 자식을 수도에 머물게 하여 출신 지역의 일을 자문하는 동시에 그들을 볼모로 삼은 제도이다. 사심관 제도는 호족이나 공신을 사심관으로 삼아 그들의 출신 지역을 다스리게 한 제도이다.

바로 알기 | ㉠은 성종, ㉢, ㉣는 광종, ㉤는 태조에 대한 설명이다.

415 (가)에는 이자겸의 난(1126) 이후부터 무신 정변(1170) 이전 시기에 있었던 일이 들어가야 한다. 이자겸의 난 이후 인종은 약해진 왕권을 회복하고자 묘청 등 개혁 세력을 등용하였다. 이들은 서경 천도를 주장하였으나 개경 세력의 반대로 실패하였고, 결국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다(1135). (나)에는 무신 정변 이후부터 몽골의 침입(1231) 이전 시기에 있었던 일이 들어가야 한다. 무신 정권기에는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농민과 천민의 봉기가 확산되었다. 이 시기에 만적은 신분 해방을 목적으로 노비들을 모아 봉기를 계획하였다(1198).

바로 알기 | ㄱ. ㄴ은 이자겸의 난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 경원 이씨 가문은 왕실과의 거듭된 혼인 관계를 통해 권세를 누렸다. 특히 이자겸은 정치권력을 장악하였고, 금이 사대를 요구하자 이를 수용하였다. ㄷ은 몽골의 침입 이후에 있었던 일이다. 최씨 무신 정권은 몽골의 재침입에 대비하고자 강화도로 수도를 옮겼다.

416 어사대는 관리의 잘못을 감찰하였다. 그리고 중서문하성의 낭사와 함께 대간으로 불리며 관리들과 왕의 잘못을 비판하고 왕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권한을 가졌다.

바로 알기 | ①은 식목도감, ②는 중추원, ③은 중서문하성, ④는 사사에 대한 설명이다.

417 무신 정권 초기에 무신들 간의 권력 다툼으로 정치가 혼란해지면서 중앙의 지방 통제력이 약해졌다. 이에 지배층의 수탈이 심해지자, 불만을 품은 농민과 천민들이 봉기를 일으켰다. 한편, 최충현은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였으며, 이는 최씨 무신 정권의 핵심 권력 기구로 자리 잡았다.

바로 알기 | ㄷ은 삼별초에 대한 설명이다. 밀줄 친 ㉢은 도방을 가리킨다. ㄹ. 최우는 서방에 뛰어난 문신을 등용하여 자문을 구하였다. ㄴ은 별무반에 대한 설명이다. 밀줄 친 ㉤은 아별초(이후 삼별초)를 가리킨다.

418 (가)는 거란(요), (나)는 몽골, (다)는 여진(금)에 대한 설명이다. 몽골은 고려가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고려를 재침입하였다. 이때 김윤후는 처인성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몽골군에 항전하여 대장 살리타를 사살하였다.

바로 알기 | ① 박서는 몽골의 침입에 맞서 귀주성 전투를 벌였다. ② 윤관은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하였다. ④는 거란(요)의 첫 번째 침입 당시 거란 장수와 협상을 벌인 결과이다. ⑤는 거란(요)의 세 번째 침입 당시 고려가 거란군을 물리친 사건이다.

419 제시된 자료는 권세가들이 백성의 땅을 빼앗고 양민을 노비로 삼는 폐단을 바로잡고자 도감을 설치한다고 선언하는 내용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자료에 나타난 정책이 공민왕의 전민변정도감 설치임을 알 수 있다. 공민왕은 전민변정도감을 두어 권문세족이 빼앗은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강제로 노비가 된 백성들을 양민으로 풀어 주었다. 한편, 공민왕은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던 정동행성이문소를 폐지하였다. 또한 성균관을 정비하여 유학 교육을 강화하고 개혁을 뒷받침하는 세력을 양성하였다.

바로 알기 ㄱ은 최우, ㄴ은 태조, ㄹ은 광종에 대한 설명이다.

420 (가)는 강동 6주 지역이다. 서희는 거란의 첫 번째 침입 당시 거란 장수 소손녕과 외교 담판을 벌여 강동 6주를 고려의 영토로 확보하였다. 태조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내세우며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서경으로 삼고 북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고려는 거란의 세 번째 침입을 물리친 이후 개경에 나성을, 국경 지역에 천리장성을 쌓아 북방 민족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바로 알기 ㄹ. 이성계는 우왕과 최영의 명령으로 요동 정벌에 나섰다 위화도에서 회군하였다. ㄴ. 망이와 망소이 형제는 특수 행정 구역에 대한 차별과 수탈에 반발하여 공주 명학소에서 봉기하였다.

421 (가)는 홍건적, (나)는 왜구이다. 홍건적은 중국에서 원의 지배에 저항하며 반란을 일으킨 한족 농민군으로, 이들 중 일부가 고려에 두 차례 침입하였다. 홍건적은 한때 개경을 함락하여 공민왕이 북주(안동)로 피난하였다. 왜구는 쓰시마섬과 북규수 지역에 근거지를 둔 일본 해적으로, 해안 지역뿐만 아니라 내륙과 개경 근처까지 침입하여 피해를 주었다. 이에 대항하여 박위는 쓰시마섬을 토벌하였다.

바로 알기 ⑤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큰 공을 세운 최영, 이성계 등의 무인들은 백성들의 신망을 얻어 신흥 무인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422 ㉠은 신진 사대부, ㉡은 권문세족이다. 신진 사대부는 명이 성장하여 원을 북쪽으로 몰아내던 시기에 원을 멀리하고 명과 화친할 것을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은 권문세족에 대한 설명이다. 신진 사대부는 주로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였다. ㉡은 신흥 무인 세력에 대한 설명이다. ㉢은 문벌에 대한 설명이다. 권문세족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기철 등이 있다. ㉣은 신진 사대부에 대한 설명이다.

423 (가)는 도교, (나)는 유교(유학), (다)는 불교이다. 고려는 개경에 최고 교육 기관인 국자감을 설치하고, 지방 주요 지역에는 향교를 두어 유교 경전과 역사서를 가르쳤다. 고려 중기에 불교 종파 간의 대립이 심해지자, 의천은 교단 통합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고, 천태종을 창시하여 선종까지 포섭하고자 하였다. 또한 불교계는 원 간섭기에 권문세족과 연결되어 막대한 토지와 노비를 가지고, 고리대로 부를 쌓는 등 여러 가지 폐단을 일으켰다.

바로 알기 ㄱ은 풍수지리설에 대한 설명이다. 묘청 세력은 풍수지리설을 내세우며 서경으로 천도하자고 주장하였다. ㄴ은 성리학에 대한 설명이다. 신진 사대부는 성리학을 개혁 사상으로 받아들여 권문세족의 횡포와 불교계의 폐단을 비판하였다.

424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고려 후기에 원의 영향을 받아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다.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은 가운데가 불룩하여 안정감을 주는 배흘림기둥을 사용하였다. 상감 청자는 고려의 독창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만든 고려청자의 한 종류로, 상감 기법으로 표면에 화려한 무늬를 새겼다.

바로 알기 ㄱ. 통일 신라 양식을 계승한 불상은 영주 부석사 소조 여래 좌상,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여래 좌상 등이 있다. ㄴ. 『직지심체요절』은 금속 활자 인쇄본이다.

425 제시된 문제에서 1, 3, 4, 5번의 답은 X, 2번의 답은 O이다. 따라서 학생은 2, 3, 4를 맞고, 1, 5는 틀렸다. 아라비아 상인들은 고려를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서방 세계에 알렸다. 고려는 대장경을 제작할 때 거란(요) 등의 대장경을 참고하였으며, 송의 제도를 참고하여 중앙 정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바로 알기 1. 고려에 토산품을 바치고 생활필수품을 받아 간 부족은 여진이다. 5. 고려 시대에는 벽란도가 국제 무역항으로 발전하여 송과 일본, 동남아시아 및 아라비아 상인들과 교류하였다.



실전 대비 정답과 해설

I. 국가의 형성과 발전

실전 대비 1회

82쪽~85쪽

1 ③	2 ⑤	3 ⑤	4 ③	5 해설 참조
6 ①	7 ④	8 천군	9 ②	10 ⑤ 11 ⑤
12 ⑤	13 ④	14 ①	15 ③	16 지증왕 17 ②
18 ④	19 ⑤	20 (가) 골식 돌방무덤, (나) 돌무지덧널무덤		
21 ⑤	22 ②	23 ④	24 ④	25 해설 참조

1 청동기 시대에는 조, 피, 보리 등 다양한 잡곡을 재배하였고, 일부 물이 많은 지역에서는 벼농사를 짓기도 하였다. 한편, 농경과 목축이 발달하면서 남는 생산물이 생기자, 생산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 빈부 격차와 계급이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은 군장(족장)이 되어 부족을 다스렸고, 제사를 맡아 이끌었다. 지배층이 죽으면 고인돌이나 돌널무덤 등 거대한 무덤을 만들었다.

바로 알기 | ③ ㉔ 청동기 시대는 군장이 종교적 권위와 정치권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제정일치 사회였다.

2 제시된 유적은 탁자식 고인돌로, 고인돌은 주로 지배층의 무덤이었다. 거대한 고인돌은 수백 명을 동원해 제작하였을 것으로 여겨져 당시 지배자(군장)가 많은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3 밑줄 친 '이 나라'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라는 내용을 통해 고조선임을 알 수 있다. 고조선의 문화 범위는 비파형 동검과 탁자식 고인돌의 분포 지역으로 짐작할 수 있다.

바로 알기 | ㄱ. 주먹도끼는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도구이다. ㄴ. 세형 동검은 한반도 지역에서 청동기 제작 기술이 발전하였음을 보여 준다.

4 고조선은 기원전 4세기 즈음 연과 대립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기원전 194년에는 위만이 고조선의 왕으로 즉위하였는데, 이후 고조선은 한과 한반도 남부 사이에서 중계 무역을 벌였다. 따라서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면 '(나)-(가)-(다)'이다.

5 **예시 답안** 8조법을 통해 고조선에서 화폐를 사용하고 개인이 재산을 소유하였으며, 생명과 노동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급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가)는 동예, (나)는 삼한의 제천 행사에 대한 내용이다. 동예는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삼한은 씨뿌리기를 마친 5월과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10월에 제천 행사를 열었다.

7 제시된 글은 옥저의 혼인 풍습인 민며느리제에 대한 내용이다. 옥저에는 민며느리제라는 혼인 풍습과 가족 공동 무덤을 만드는 장례 풍습이 있었다.

8 삼한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사회였다. 정치적 지배자인 군장과는 별도로 제사장인 천군이 제사를 맡아 지냈으며, 천군은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소도라는 신성 지역을 다스렸다.

9 태조왕은 옥저 등을 정벌하고 요동 지방을 공격하였으며, 고국천왕은 가난한 백성에게 관청의 곡식을 빌려주고 갚게 하는 진대법을 시행하였다. 광개토 대왕은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으며, 장수왕은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시키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였다.

바로 알기 | ② 고구려에서는 소수림왕이 중국의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다.

10 충주 고구려비는 한반도에 있는 유일한 고구려 비석이다. 비석의 위치를 통해 고구려가 한반도 중부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11 신라 법흥왕, 백제 침류왕, 고구려 소수림왕은 불교를 수용하거나 공인하였다. 법흥왕은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으며, 침류왕은 중국의 동진으로부터, 소수림왕은 중국의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다.

12 밑줄 친 '이 지역'은 한강 유역이다. 백제가 자리 잡은 한강 유역은 토지가 비옥하여 농사짓기 편하고, 교통이 편리하여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유리하였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백제는 빠르게 성장하였다.

바로 알기 | ㄱ은 낙동강 하류, ㄴ은 부여에 대한 설명이다.

13 ①은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옮겼다는 내용을 통해 백제 성왕임을 알 수 있다. 성왕은 국가 체제를 재정비하여 중앙에 실무를 담당하는 22부의 관청을 설치하였다. 또한 지방 통치 조직을 개편하여 수도는 5부, 지방은 5방으로 나누어 다스렸다.

바로 알기 | ㄱ은 무령왕, ㄴ은 고이왕의 업적이다.

14 (가) 시기는 고이왕 이후부터 성왕의 고구려 공격 이전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 근초고왕이 영토를 넓혀 황해도 일부 지역을 차지하였으며, 침류왕은 중국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다. 이후 백제는 고구려의 공격으로 수도를 한성에서 웅진으로 옮겼고, 무령왕은 중국 남조의 양 및 왜와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바로 알기 | ①은 성왕의 고구려 공격 이후에 있었던 일이다. 성왕이 신라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공격하였으나, 이후 신라 진흥왕이 나제 동맹을 깨고 백제를 공격하였다.

15 신라에서 왕을 부르는 명칭은 '(가) 거서간-(라) 차차웅-(다) 이사금-(나) 마립간'의 순서로 변하였다. 이는 신라에서 왕권이 점차 강해졌음을 보여 준다.

16 신라는 지증왕 때 중앙 집권 체제를 정비하며 발전하였다. 지증왕은 나라 이름을 '신라'로 정하고, 마립간 대신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

17 (가)는 법흥왕이다. 법흥왕은 관리의 등급과 관복의 색을 정하고, 귀족 세력을 대표하는 최고 관직으로 상대등을 두었다. 또한 금관가야를 복속시켜 영토를 넓혔으며, '건원'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바로 알기 | ②는 지증왕의 업적이다.

18 지도에 표시된 비석을 세운 왕은 신라 진흥왕이다. 진흥왕은 백제 성왕과 함께 고구려를 몰아내고 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하였으며, 이후 나제 동맹을 깨고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하류 지역도 차지하였다.

바로 알기 | ①, ③은 신라 법흥왕, ②는 백제 근초고왕, ⑤는 신라 지증왕에 대한 설명이다.

19 낙동강 하류의 변한 지역에서 여러 작은 나라들이 성장하여 가야 연맹을 이루었다. 각 나라는 독자성이 강하였고, 세력이 가장 강한 나라가 연맹을 대표하였다. 초기에는 김해의 금관가야가 연맹을 주도하였으나 고구려의 공격으로 세력이 위축되자, 후기에는 고령의 대가야가 연맹을 주도하였다.

바로 알기 | ⑤ 금관가야는 신라 법흥왕의 공격으로 멸망하였다. 신라 진흥왕의 공격으로 멸망한 나라는 대가야이다.

20 (가) 굴식 돌방무덤은 돌을 쌓아 방을 만들고, 천장과 벽에는 벽화를 그렸다. (나) 돌무지덧널무덤은 나무 덧널 위에 돌을 쌓은 뒤 흙으로 덮었다.

21 고구려는 초기에 돌무지무덤, 백제는 초기에 계단식 돌무지무덤을 많이 만들었으나 이후에는 굴식 돌방무덤도 만들었다. 신라 또한 돌무지덧널무덤과 함께 굴식 돌방무덤을 만들었다. 신라의 돌무지덧널무덤은 도굴이 어려워 다양한 켜묻거리가 출토되었다.

바로 알기 | ㄱ. 고구려는 처음에 무덤 주인의 초상화나 생활 풍속을 벽화로 남겼다. ㄴ. 백제는 웅진 천도 후 벽돌무덤 양식의 무령왕릉을 만들었다.

22 밑줄 친 '이 왕'은 백제 무령왕이다. 무령왕은 귀족 세력을 억누르고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 지방 행정 구역인 담로에 왕족을 보내 다스리게 하였다.

바로 알기 | ①은 문주왕, ③, ④, ⑤는 성왕에 대한 설명이다.

23 제시된 문화유산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백제 무왕 때 건립되었으며, 석탑이지만 목탑 양식에 따라 지어졌다.

바로 알기 | ①은 경주 불국사 삼층 석탑과 경주 불국사 다보탑, ②는 백제의 벽돌무덤, ③은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⑤는 감은사 등에 대한 설명이다.

24 제시된 문화유산은 도교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 중국에서 전해진 도교는 자연 숭배 사상이나 신선 사상 등과 결합하여 귀족 사회를 중심으로 유행하였다.

25 **예시 답안** 가야는 일본에 발달된 철기 문화와 토기 제작 기술을 전하였다. 가야는 일본의 여러 지역에 철을 수출하였으며, 일본은 가야의 토기 제작 기술을 받아들여 일본식 토기인 스에키를 만들었다.

실전 대비 2회

86쪽~89쪽

1 ④	2 ④	3 위만	4 ①	5 ⑤	6 부여
7 ②	8 ④	9 ③	10 ②	11 해설 참조	
12 ①	13 ②	14 ⑤	15 ⑤	16 ④	17 ⑤
18 화랑도	19 ①	20 ①	21 ①		
22 해설 참조	23 ②	24 ③	25 ⑤		

1 ①은 거친무늬 거울, ②는 청동 방울, ③은 민무늬 토기, ⑤는 반달 돌칼로, 모두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유물이다.

바로 알기 | ④는 명도전으로, 철기 시대에 사용한 중국 화폐이다.

2 청동기 시대에는 지배층이 죽으면 고인돌이나 돌널무덤을 만들었으며, 곡식의 이삭을 자르는 도구로 반달 돌칼을 사용하였다.

바로 알기 | ㄱ은 부여, ㄴ은 신석기 시대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하다.

3 기원전 2세기경 위만이 중국 연에서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으로 들어왔다. 이후 세력을 키운 위만은 기원전 194년, 준왕을 몰아내고 고조선의 왕이 되었다.

4 제시된 자료에서 바람, 비, 구름은 농업에 중요한 요소로, 환웅이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를 거느리고 내려왔다는 내용을 통해 고조선이 농경 사회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단군'은 제사장, '왕검'은 정치 지도자를 의미하는데, 이 칭호로 고조선이 제정일치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알기 | ㄷ, ㄹ. 고조선은 계급 사회였으며,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5 위만이 집권한 이후 고조선은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여 발전시켰으며, 중국과 한반도 남부 사이에서 중계 무역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바로 알기 | ㄱ은 위만 집권 이전, ㄴ은 고조선 멸망 이후에 있었던 일이다.

6 부여에서는 왕이 중앙을 다스리고 왕 아래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등 가축의 이름을 딴 '가(加)'들이 각자의 영역인 사출도를 다스렸다.

7 (가)는 부여, (나)는 고구려, (다)는 옥저, (라)는 동예, (마)는 삼한이다. 연맹 왕국이었던 고구려에서는 왕과 부족의 대표인 '가'가 모여 제가 회의를 열어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였다.

바로 알기 | ①, ③은 삼한, ④는 고구려, ⑤는 옥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다.

8 족외혼과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던 나라는 (라) 동예이다. 동예에서는 같은 부족끼리 혼인하지 않았으며, 각 집단마다 영역의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다.

9 한반도 동해안 지역에서 성립한 동예와 옥저는 왕이 없었으며, 읍군 또는 삼로라 불린 군장이 각 지역을 다스렸다. 두 나라는 고구려의 간섭을 받아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지리적으로 치우쳐 있어 발전도 늦었다.

바로 알기 | ㄱ은 동예에만 해당한다. 동예는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지냈다. ㄴ은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다.

10 동예는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10월에 해마다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지냈다.

바로 알기 ①은 고구려의 제천 행사이다. ③은 부여에서 왕이나 귀족이 죽으면 사람을 함께 묻는 풍습이다. ④는 부여의 제천 행사이다. ⑤는 동예에서 다른 읍락의 경계를 침범하면 노비나 소, 말로 갚게 하는 풍습이다.

11 **예시 답안** 소수림왕, 소수림왕은 중국의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다. 또한 교육 기관인 태학을 세워 인재를 길렀으며, 율령을 반포하여 통치 기준을 마련하였다.

12 고구려군이 신라에 침입한 왜와 가야를 물리치고 금관가야까지 진격하여 큰 타격을 주었다. 그 결과 금관가야의 세력이 위축되어 가야 연맹의 주도권이 대가야로 넘어갔다.

13 고구려 장수왕은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적극적으로 남진 정책을 펼쳤다. 이에 위협을 느낀 신라와 백제가 고구려에 대항하고자 나제 동맹을 맺었으나, 장수왕은 백제를 공격하여 수도 한성을 함락시켰다.

14 마한의 작은 나라에서 출발한 백제는 온조·비류 등 부여와 고구려에서 내려온 세력과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이 연합하여 세웠다. 한강 유역에 자리 잡은 백제는 한강 유역의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초기에는 왕족과 여러 귀족 세력이 연합하여 정치를 이끌었다.

바로 알기 ⑤ 화백 회의는 신라의 귀족 회의이다.

15 (가)는 4세기, (나)는 5세기에 있었던 일이다. (가), (나) 사이 시기에 고구려 광개토 대왕은 군사를 보내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하였다.

바로 알기 ①, ②, ③, ④는 모두 (나) 이후에 있었던 일이다.

16 (가)는 대군장을 뜻하는 마립간으로, 마립간 호칭을 처음 사용한 왕은 내물왕이다. 내물왕 때부터 왕권이 강해져 김씨가 왕위를 독차지하였으며, 내물왕은 광개토 대왕의 도움을 받아 신라에 침입한 왜를 물리쳤다.

바로 알기 ㄱ은 눌지왕, ㄴ은 지증왕에 대한 설명이다.

17 제시된 자료는 서울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로, 선생님이 말하는 '이 왕'은 진흥왕이다. 진흥왕은 나제 동맹을 깨고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하류 지역을 빼앗았으며, 고구려를 공격하여 함흥 평야까지 나아가는 등 신라의 영토를 크게 넓혔다. 또한 불교를 적극 장려하여 황룡사를 짓기도 하였다.

바로 알기 ⑤는 법흥왕에 대한 설명이다. 법흥왕은 상대등을 두어 화백 회의를 이끌게 하였다.

18 신라 진흥왕이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한 화랑도는 화랑과 그를 따르는 낭도로 구성되었다. 화랑도에는 다양한 신분의 청소년이 모여 무예와 학문을 익혔으며, 이후 화랑도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19 제시된 자료는 경남 김해, 부산 동래 등 가야 유적에서 발견된 유물이다. 가야 유적에서 철기를 만드는 재료인 덩이쇠와 갑옷, 말 장신구 등의 철기가 많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가야에서 철기 문화가 발달하였음을 보여 준다.

20 ㉠은 대가야이다. 5세기 후반에 대가야는 소백산맥 서쪽으로 세력을 넓히기도 하였으나, 6세기 이후 세력이 약해지다가 562년 신라 진흥왕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였다.

바로 알기 ㄷ, ㄹ은 금관가야에 대한 설명이다. 김해의 금관가야는 낙동강 하류의 평야 지대에 위치하여 농업이 발달하였으며, 낙랑과 왜 사이에서 중계 무역으로 발전하였다.

21 백제의 무령왕릉은 벽돌무덤으로,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 한편, 고구려는 초기에 돌무지무덤, 백제는 초기에 계단식 돌무지무덤을 많이 만들었다.

바로 알기 ㄷ은 돌무지덧널무덤, ㄹ은 굴식 돌방무덤에 대한 설명이다. 돌무지덧널무덤은 구조상 도굴이 어려워 많은 껌묻거리가 발굴되었다. 굴식 돌방무덤에는 무덤 주인의 초상화나 도교와 관련된 벽화가 그려져 있다.

22 **예시 답안** 천체 현상이 왕의 권위와 연결된다고 여겼고, 계절 변화를 파악하는 일이 농사에 중요하여 삼국에서 천문학이 발달하였다.

23 ①은 백제의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 삼존상, ③은 고구려의 금동 연가 7년명 여래 입상, ④는 백제의 부여 정립사지 5층 석탑, ⑤는 신라의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으로, 삼국의 불교 문화유산에 해당한다.

바로 알기 ②는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로, 산과 나무, 구름 등이 있는 신선 세계인 도교의 이상 세계를 표현하였다.

24 ㉠은 도교이다. 중국에서 전해진 도교는 자연 숭배 사상 및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신선 사상 등과 결합하여 삼국의 귀족 사회에서 크게 유행하였다.

바로 알기 ㄱ, ㄴ은 불교에 대한 설명이다. 백제는 침류왕 때 중국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으며, 삼국은 백성의 사상을 하나로 통합하고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였다.

25 백제는 삼국 중 일본과 가장 활발하게 교류하여 일본에 불교와 한문 등을 전해 주었으며, 일찍부터 황해를 거쳐 중국 남조와 활발히 교역하였다.

바로 알기 ㄱ은 가야, ㄴ은 고구려의 대외 교류에 대한 설명이다. 가야의 토기 제작 기술을 받아들여 일본이 스에키를 만들었다. 고구려는 몽골, 돌궐 등 중앙아시아의 유목 민족과 교류하였다.

1 ②	2 ①	3 해설 참조	4 ⑤	5 ②
6 ①	7 ②	8 옥저	9 ③	10 평양
11 ②	12 ④	13 ③	14 ①	15 해설 참조
16 ④	17 ①	18 (가) 대가야, (나) 금관가야	19 ④	20 ⑤
21 ④	22 ④	23 ②	24 ③	25 ⑤

1 청동기 시대에 청동은 구하기 어려웠고, 단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동으로 거울과 방울 등 주로 지배층의 장신구나 제사용 도구를 만들었다. 농기구와 생활 도구는 여전히 돌이나 나무로 만든 것을 사용하였다. 한편, 청동기 시대에는 남는 생산물이 생기면서 빈부 격차와 계급이 나타났으며, 군장이 정치권력을 가지고 종교 행사를 주관하였다.

바로 알기 ② 청동기 시대에는 지배층이 죽으면 고인돌과 돌널무덤을 만들어 묻었다.

2 제시된 자료는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으로,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유적과 유물이다. 청동기 시대에는 곡식의 이삭을 자르는 데 반달 돌칼을 사용하였으며, 마을 주변에 도랑을 내고 나무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어 시설을 마련하여 외부의 침입을 막고자 하였다.

바로 알기 ㄷ은 신석기 시대, ㄹ은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이다.

3 **예시 답안** 청동은 재료를 구하기 어려웠고, 농사짓는 데 사용할 만큼 단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 철기 시대에는 철제 농기구, 철제 무기 등 철기로 다양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철제 농기구로 도끼, 낫, 쟁이 등을 사용하여 농업 생산력이 늘어났으며, 철제 무기로는 화살촉, 칼 등을 사용하여 전투력이 강해졌다. 또한 철기를 잘 만들고 다루는 부족은 주변 지역을 통합하여 세력을 확대하였다.

바로 알기 ㄱ은 청동기 시대에 대한 설명이다. ㄴ.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등장하였다.

5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만주와 한반도에서 여러 나라가 성장하였다. 그중 삼한에는 신지, 읍차라 불린 군장이 소국을 다스렸으며, 옥저에는 가족이 죽으면 뼈를 추려 가족 공동 무덤을 만드는 장례 풍습이 있었다. 또한 고구려는 왕과 '가'들이 모인 제가 회의에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정하였고, 부여에서는 왕 아래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의 '가(加)'들이 각자의 영역인 사출도를 별도로 다스렸다.

바로 알기 ② 민며느리제의 혼인 풍습이 있었던 나라는 옥저이다. 민며느리제는 신랑이 될 집안이 혼인을 약속한 여자아이를 데려와 키우다, 아이가 자라면 남자가 여자의 집에 예물을 주고 혼인을 청하는 풍습이다.

6 제시된 자료는 부여의 제천 행사에 대한 내용이다. 부여에는 왕이나 귀족 등 지배자가 죽으면 사람을 함께 묻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 또한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하고 그 집안의 사람은 노비로 삼았으며, 도둑질하면 물건의 12배를 갚게 하는 등의 엄격한 법이 존재하였다.

바로 알기 ㄷ, ㄹ은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다. 고구려가 건국된 압록강 유역의 졸본 지역은 산간 지역이 많아 농사짓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고구려는 주변 나라를 정복하여 세력을 키워 나갔으며, 전쟁에 필요한 말타기, 활쏘기 등 무예를 중요하게 여겼다.

7 부여와 고구려는 여러 부족이 힘을 합쳐 세운 연맹 왕국이었다. 부여는 12월에 영고, 고구려는 10월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지냈다.

바로 알기 ㄴ은 삼한, ㄹ은 옥저와 동예에 대한 설명이다. 삼한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제정 분리 사회였으며, 옥저와 동예는 한반도 동해안에 위치하여 농사가 발달하고 해산물이 풍부하였으나 지리적으로 치우쳐 있어 발전이 늦었다.

8 옥저에는 가족 공동 무덤을 만드는 장례 풍습과 민며느리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9 한반도 남부 지방에서 성립된 삼한은 마한, 진한, 변한으로 이루어졌으며, 그중 변한에서는 철이 풍부하여 낙랑과 왜에 철을 수출하였다.

바로 알기 ① 삼한은 소국을 다스리는 군장과 제사를 담당하는 천군이 있는 제정 분리 사회였다. ②는 부여의 영고, ④는 부여의 순장, ⑤는 옥저와 동예에 대한 설명이다. 삼한에는 신지, 읍차라 불린 군장이 있었다.

10 고구려의 수도는 '졸본-국내성-평양'의 순서로 변하였다. 장수왕 때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는데, 평양은 대동강 유역의 평야를 끼고 있어 생산물이 풍부하였으며, 남쪽으로 영토를 넓히는 데에도 유리하였다.

11 광개토 대왕은 북쪽으로 거란과 후연을 공격하여 만주와 요동 지역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동북쪽의 숙신과 동부여까지 정벌하여 영토를 크게 넓혔다.

바로 알기 ㄴ. 광개토 대왕의 뒤를 이은 장수왕이 백제를 공격하여 한성을 함락시켰다. ㄷ. 1세기 후반에 태조왕이 옥저를 정복하였다.

12 (가)는 4세기 근초고왕, (나)는 5세기 장수왕 시기의 한반도 형세이다. (가), (나) 사이 시기에 장수왕은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유역을 차지하였다.

바로 알기 ①은 1세기 고구려 태조왕, ②는 3세기 백제 고이왕 때로 (가) 이전의 일이다. ③은 6세기 신라 법흥왕, ⑤는 6세기 신라 진흥왕 때로 (나)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13 백제의 웅진 천도는 475년, 사비 천도는 538년이다. (가)에는 백제의 수도가 웅진이었던 시기의 일이 들어가야 한다. 이 시기에 무령왕은 왕권을 강화하고자 22담로에 왕족을 보내 지방을 통제하였다.

바로 알기 ①은 고이왕, ④는 근초고왕 때 있었던 일로 웅진 천도 이전 시기에 해당한다. ②, ⑤는 성왕 때 있었던 일로 사비 천도 이후 시기에 해당한다.

14 신라는 초기에 왕권이 강하지 않아 박씨, 석씨, 김씨의 성을 가진 사람이 번갈아가며 '이사금' 자리를 차지하였으나, 왕권이 점차 강해짐에 따라 4세기 후반 내물왕 때부터 김씨가 왕위를 독차지하였다. 왕을 부르는 명칭도 대군장을 뜻하는 '마립간'으로 바뀌었다.

15 예시 답안 지증왕, 지증왕은 순장을 금지하여 노동력을 보호하고, 소를 이용한 경작(우경)을 시작하여 농업 생산량을 늘렸다. 또한 지방 통치 조직을 마련하여 정복한 지역에 지방관을 보내 직접 다스렸고,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울릉도)을 정복하였다.

16 신라 법흥왕은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으며, 고구려 소수림왕은 중국의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다. 또한 법흥왕과 소수림왕은 율령을 반포하여 나라의 통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중앙 집권 체제를 정비하였다.

바로 알기 ㄱ은 법흥왕, ㄴ은 소수림왕에만 해당한다. 법흥왕은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으며, 소수림왕은 태학이라는 교육 기관을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다.

17 신라는 (라) 여섯 촌락의 사로국 건국-(다) 내물왕 대 김씨 왕위 세습 시작-(가) 지증왕의 국호 제정-(나) 법흥왕의 율령 반포 및 불교 공인-(마) 진흥왕의 순수비 건립의 순서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세 번째로 일어난 일은 (가)이다.

18 낙동강 하류의 변한 지역에서 소국들이 연합하여 가야 연맹을 이루었다. 초기에는 김해의 금관가야가 연맹을 이끌었으나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세력이 약해지자, 후기에는 고령의 대가야가 연맹을 이끌었다.

19 (나) 금관가야는 낙랑과 왜 사이에서 중계 무역으로 번성하였으나 고구려군의 공격을 받아 큰 타격을 입고, 가야 연맹에서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바로 알기 ㄱ, ㄴ은 대가야에 대한 설명이다. 대가야는 5세기 이후부터 가야 연맹을 주도하였으나, 백제와 신라의 압박으로 점점 세력이 약해지다가 결국 562년에 신라 진흥왕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였다.

20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현재 남아 있는 석탑 중 가장 크고 오래된 석탑으로, 석탑이지만 목탑 양식에 따라 지어졌다. 압벽을 깎아 만든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 삼존상은 부처의 둥근 얼굴과 인자한 미소가 특징으로, '백제의 미소'라고 불린다.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은 신라 선덕 여왕 때 돌을 깎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은 탑으로, 남아 있는 신라의 석탑 중 가장 오래되었다.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비례와 균형이 잘 맞아 안정감이 있으며, 목탑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

바로 알기 ⑤ 금동 연가 7년명 여래 입상은 고구려의 불상으로, 불상의 뒷면에 고구려의 연호로 짐작되는 '연가'라는 글자와 불상을 만든 시기, 까닭이 새겨져 있다.

21 굴식 돌방무덤에는 벽과 천장에 무덤 주인의 초상화나 도교와 관련된 다양한 벽화가 그려져 있어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사상을 짐작할 수 있다. 고구려의 무용총, 각저총, 강서 대묘 등이 대표적이다.

바로 알기 ① 벽돌무덤은 벽돌을 쌓아 방을 만든 무덤으로, 백제 무령왕릉이 대표적이다. ② 가야에서 김해 대성동 고분군, 고령 지산동 고분군 등 대형 고분을 만들었다. ③ 돌무지무덤은 돌을 쌓아 올린 무덤으로, 고구려와 백제의 초기 무덤 형태이다. ⑤ 돌무지덧널무덤은 나무 덧널 위에 돌을 쌓은 뒤 흙으로 덮은 무덤이다. 구조상 도굴이 어려워 무기, 제사용 도구, 장신구 등의 많은 켜묻거리가 발굴되었다.

22 삼국은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자 적극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였으며, 불교가 널리 퍼지면서 탑과 불상 등 불교문화도 발달하였다. 한편, 삼국은 중국과 교류하며 한자와 유학을 받아들였고, 계절 변화를 파악하는 일이 농사에 중요하여 천문학이 발달하였다.

바로 알기 ④ 삼국에서 도교는 왕실을 비롯한 귀족 사회에서 크게 유행하였다.

23 삼국은 중국과 교류하며 유학을 받아들이고 관련 교육 기관도 설립하였다. 백제에서는 유학 지식이 뛰어난 오경박사가 유학 교육을 맡았으며,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 수도에 태학을 설립하여 유교 경전과 역사를 가르쳤다. 신라에서는 두 청년이 유교 경전을 공부하였다는 사실이 임신서기석에 새겨져 있다.

바로 알기 ㄴ. 신라 진흥왕은 정복한 지역을 직접 둘러보고 영토 확장을 기념하고자 서울 북한산, 황초령, 마운령에 순수비를 세웠다. ㄷ. 백제 금동 대향로의 뚜껑에는 도교 사상, 몸통에는 불교 사상의 영향이 나타나 있다. 특히 도교의 신선 사상에 영향을 받아 산봉우리에 악사, 동물, 신선 등을 새겨 넣었다.

24 신라의 고분에서는 서역에서 전해진 것으로 보이는 유리 제품과 경주 계림로 보검 등이 발견되었다. 유리 제품은 유리의 질과 모양, 색깔로 보아 서역에서 수입된 것으로 짐작한다. 경주 계림로 보검은 유럽, 서아시아 등에서 유행한 양식으로, 신라와 서역 사이에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 준다.

바로 알기 ㄱ. 경주 부부총 금귀고리는 수백 개의 작은 금 알갱이와 얇은 금실로 거북등무늬와 꽃무늬를 정교하게 표현한 것으로, 신라의 섬세한 금속 공예 기술을 보여 준다. ㄷ. 금동 연가 7년명 여래 입상은 고구려의 불교 문화유산이다. 불상의 뒷면에 고구려의 연호로 짐작되는 '연가'라는 글자와 불상을 만든 시기, 까닭이 새겨져 있다.

25 삼국과 가야는 왜와 교류하며 문화를 전파하였고, 일본의 고대 아스카 문화가 발전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그중 신라는 배 만드는 기술과 독 쌓는 기술을, 고구려의 담징은 종이와 떡 만드는 방법을 일본에 전해 주었다.

바로 알기 ㄱ. 백제가 일본에 불교와 한문을 전하였으며, 백제의 오경박사, 의·역박사 등의 전문가들이 왜에 건너가 활약하였다. ㄴ. 가야는 일본에 토기 제작 기술을 전하였는데, 이는 스에키라는 일본 토기의 바탕이 되었다.

II. 통일 신라와 발해

실전 대비 1회

94쪽 ~ 97쪽

1 ④	2 ②	3 ①	4 ⑤	5 계림도독부
6 ⑤	7 ④	8 ③	9 해설 참조	10 ⑤
11 ④	12 ③	13 ②	14 ⑤	15 ④
16 해설 참조	17 ⑤	18 ④	19 ③	20 ②
21 해초	22 ②	23 ③	24 ④	25 ③

1 고구려에서 정변을 일으킨 연개소문이 당에 대한 강경책을 펼치자, 당은 연개소문의 정변을 구실로 고구려를 침략하였다. 당이 안시성 싸움에서 패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고구려를 공격하였으나, 고구려는 이를 모두 막아냈다.

바로 알기 ㄱ. 오랜 전쟁과 지배층의 권력 다툼으로 고구려의 국력은 약해졌다. ㄴ은 고구려와 수의 전쟁인 살수 대첩에 대한 설명이다.

2 고구려가 수와 당의 침략을 물리친 과정은 ‘(가) 수 양제의 평양성 공격 - (라) 살수 대첩 - (다) 연개소문의 정변 - (나) 안시성 싸움’의 순서로 전개되었다.

3 제시된 글은 642년에 일어난 대야성 전투에 대한 설명이다. 살수 대첩은 612년, 신라가 당과 동맹(나당 동맹)을 체결한 것은 648년의 일이다.

4 제시된 인물들은 고구려 부흥 운동을 전개하였다. 고구려 멸망 이후 고연무는 요동 지역에서 당군과 맞섰고, 검모잠은 한성에서 보장왕의 아들 안승을 왕으로 받들고 고구려 부흥 운동을 벌였다.

바로 알기 ①은 보장왕의 아들인 안승에게만 해당한다. ②는 백제 부흥군, ③은 발해의 장문휴, ④는 복신과 도침, 흑치상지 등에 대한 설명이다.

5 당은 백제와 고구려의 옛 땅에 각각 웅진도독부와 안동도호부를 설치하고, 신라에도 계림도독부를 설치하여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려고 하였다. 도호부와 도독부는 당이 점령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 설치한 군사 통치 기구로, 도호부 아래에 도독부가 설치되었다.

6 삼국 통일로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을 이루었으나, 고구려 땅이었던 요동과 만주 지역을 잃으며 우리 민족의 영토가 대동강 이남으로 축소되었다. 또한 신라의 삼국 통일은 그 과정에서 당의 세력을 끌어들이었다는 한계가 있다.

바로 알기 ㄱ. 삼국 통일 전후로 신라의 왕권이 강해졌다. ㄴ. 삼국 통일로 삼국의 문화가 융합되어 새로운 민족 문화가 발달하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7 발해는 대외적으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임을 분명히 드러냈다. 발해의 왕은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 ‘고려(고구려) 국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일본도 발해를 ‘고려(고구려)’라고 불러 주변 나라에서도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였다고 여겼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바로 알기 ㄱ은 발해가 전성기를 맞았음을 보여 주는 사실로 고구려 계승 근거와는 관련이 없다. ㄴ. 발해의 지방 촌락은 말갈 토착 세력이 수령이 되어 다스렸다.

8 밑줄 친 ‘그’는 김춘추(무열왕)이다. 신라가 위기에 처하자, 김춘추는 당으로 가서 나당 동맹 체결을 주도하였으며, 이후 김유신의 도움을 받아 진골 출신 중 최초로 왕위에 올랐다.

바로 알기 ①은 문무왕, ②는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 ④, ⑤는 신문왕에 대한 설명이다.

9 **예시 답안** 신문왕은 김흠돌의 난을 진압하였으며, 국학을 설치하여 유학을 보급하였다. 또한 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

10 삼국 통일 후 신라의 중앙 정치는 국왕 직속 기구인 집사부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이에 따라 집사부 장관인 시중(중시)의 권한은 강화되고, 귀족 대표 회의인 화백 회의의 기능은 줄어들었다.

바로 알기 ㄱ. 왕의 권력이 강해졌다. ㄴ. 상대등의 역할이 줄어들었다.

11 (가)는 문왕, (나)는 선왕에 대한 설명이다. 8세기 후반에 문왕은 수도를 상경으로 옮기고, 교통로를 개설하여 신라와 교류하는 등 중앙 및 지방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이후 9세기 전반에 선왕은 말갈 부족 대부분을 복속시키고 요동으로 진출하였으며, 남쪽으로는 신라와 국경을 맞닿으면서 발해의 최대 영토를 확보하였다.

12 발해의 중앙 정치 기구는 당의 3성 6부제를 본떠 조직하였으나, 조직의 명칭과 운영 방식에서 독자성을 보였다. 정당성 아래에 6부가 행정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6부의 명칭에는 유교 덕목을 반영하였다.

바로 알기 ③ ㉠ 발해의 3성은 정당성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13 (가) 시기인 675년에 신라가 매소성 전투에서 당의 군대를 크게 격파하였으며, 이후 698년에 옛 고구려 장수 출신인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였다.

바로 알기 ㄴ. 김헌창의 난은 822년으로 (가) 이후, ㄷ. 살수 대첩은 612년으로 (가)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

14 신라 말 정치가 혼란해지고 귀족의 수탈이 심해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 진성 여왕 때 일어난 원종과 애노의 난을 시작으로 농민 봉기가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적고적의 난으로 수도 금성까지 위협을 받게 되었다.

바로 알기 ㄱ, ㄴ은 지방 귀족의 반란이다.

15 골품제에 따라 관직 승진에 제한을 받았던 6두품은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신라 사회를 개혁하려 하였으나, 진골 귀족의 반대로 개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6두품 중 일부는 호족과 함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16 **예시 답안** 풍수지리설, 풍수지리설은 수도인 금성 중심의 인식에서 벗어나 지방의 독자성을 강조하여 지방 호족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17 900년에 견훤이 완산주(전주)를 도읍으로 하여 후백제를 세웠으며, 901년에는 궁예가 송악(개성)을 수도로 삼고 후고려(후고구려)를 세웠다. 후백제와 후고려(후고구려)가 성립되면서 한반도는 후삼국으로 나뉘었고, 신라의 영토는 경상도 일대로 축소되었다.

바로 알기 | ㄱ. 후백제는 900년, 후고려(후고구려)는 901년에 건국되었다. ㄴ. 공예는 송악(개성)을 수도로 삼고 후고려(후고구려)를 세웠다.

18 제시된 글은 독서삼품과에 대한 설명이다. 원성왕은 관리 등 용 제도인 독서삼품과를 시행하여 유학 보급에 힘썼다.

19 통일 신라의 대표적 유학자인 강수는 외교 문서 작성에 능통하여 이름을 널리 알렸다. 설총은 이두를 이용하여 유교 경전을 우리말로 쉽게 풀이하였다.

바로 알기 | ㄱ은 김대문, ㄴ은 최치원에 대한 설명이다.

20 (가)는 화엄 사상으로 의상이 주장하였으며, (나)는 화쟁 사상으로 원효가 주장하였다. 의상은 당에서 화엄학을 공부하고 돌아와 화엄종을 개창하였다. 한편, 원효는 백성에게 ‘나무아미타불’만 외우면 극락정토에 갈 수 있다는 아미타 신앙을 전파하여 불교의 대중화에 앞장섰다.

바로 알기 | ㄴ은 원효, ㄷ은 혜초에 대한 설명이다.

21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은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는 내용을 통해 혜초임을 알 수 있다. 혜초는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순례하고 『왕오천축국전』을 저술하였다. 이 책에는 인도와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의 풍속과 지리, 역사 등이 기록되어 있다.

22 (가)는 경주 불국사 다보탑, (나)는 경주 불국사 삼층 석탑이다. 경주 불국사 다보탑은 목조 건축의 복잡한 구조를 조화롭고 화려하게 표현하였다. 경주 불국사 삼층 석탑은 통일 신라 시대에 유행한 이중 기단에 쌓은 3층 석탑으로, 석가탑, 무영탑으로도 불린다. 한편, 경주 불국사 삼층 석탑의 내부 수리 과정에서 불경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발견되었다.

바로 알기 | ㉔는 경주 감은사지 동·서 3층 석탑에 대한 설명이다.

23 통일 신라는 삼국의 불교문화를 받아들이고 융합하였으며, 주변 나라와 교류하면서 절, 불상, 탑 등 불교 예술을 발전시켰다. 통일 신라 시대에 석탑은 이중 기단에 쌓은 3층 석탑이 유행하였다.

바로 알기 | ㄱ은 발해에 대한 설명이다. 발해의 상경성 절터에 남아 있는 거대한 석등을 통해 발해에서 불교가 번성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ㄴ. 통일 신라는 부처의 힘을 빌려 왜구의 침입을 막고 자 감은사를 지었다.

24 발해의 막새와 치미 등 기와 모양, 온돌 시설 등은 발해가 고구려 문화를 계승하였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정효 공주 모는 당의 영향을 받아 벽돌무덤으로 만들었지만, 천장 구조는 고구려 양식을 계승하여 평행 고임 구조로 만들었다.

바로 알기 | ㉔ 발해 수도인 상경성은 당의 장안성을 모방하여 바둑판 구조로 설계되었다.

25 통일 신라의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한 울산항에는 아라비아 상인들도 왕래하였는데, 다양한 유물을 통해 신라와 서역이 교류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자 공작 무늬 등에 새겨진 사자와 공작 두 마리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서 유행하던 무늬이다. 또한 원성왕릉 무인석은 머리에 쓴 터번, 큼직한 코 등이 신라인과는 다른 서역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

바로 알기 | ㄱ은 발해의 문화유산이다. ㄴ은 신라의 금속 주조 기술을 보여 주는 것으로, 서역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다.

실전 대비 2회

98쪽~101쪽

1 ①	2 ②	3 ③	4 ②	5 대조영	6 ④
7 ③	8 ⑤	9 해설 참조		10 ②	11 ④
12 장보고	13 ②	14 ④	15 ②	16 ②	17 ①
18 ⑤	19 ③	20 석굴암	21 ⑤	22 ②	23 ②
24 ④	25 ①				

1 고구려와 수의 전쟁은 ‘(가) 수 문제의 고구려 침략-(나) 수 양제의 평양성 공격-(다) 살수 대첩’의 순서로 전개되었다.

2 고구려는 절벽이나 가파른 산 등 험준한 지형에 견고한 산성을 쌓아 방어력을 높였으며, 전쟁이 일어나면 식량을 없애고 성안으로 들어가 수비하는 청야 수성 전술 등을 활용하였다. 또한 우수한 제철 기술을 바탕으로 철제 무기와 갑옷을 만들었고, 개마 무사 등을 중심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였다.

바로 알기 | ② 고구려는 수와 당의 침입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왜의 지원을 받지 않았다.

3 고구려가 멸망한 뒤 고구려의 유민들이 부흥 운동을 벌였다. 김모잠은 보장왕의 아들인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였으며, 고연무는 신라의 지원을 받아 요동에서 당군에 맞섰다.

바로 알기 | ㄱ, ㄴ은 백제 부흥 운동 중에 볼 수 있는 모습이다.

4 삼국 통일 과정에서 주요 역사적 사건은 ‘(마) 나당 동맹 체결(648)-(가) 백제 멸망(660)-(나) 고구려 멸망(668)-(라) 매소성 전투(675)-(다) 기벌포 전투(676)’의 순서로 일어났다. 따라서 세 번째로 일어난 일은 (나) 고구려 멸망이다.

5 고구려가 멸망한 뒤 요서 지방의 영주에는 고구려 유민, 말갈인, 거란인 등이 모여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거란인이 당의 통치에 반발하여 반란을 일으키자, 옛 고구려 장수 출신인 대조영은 이를 틈타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 등을 이끌고 요동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대조영은 뒤쫓아 온 당의 군대를 천문령에서 물리친 뒤 중국 지린의 동모산 근처에 발해를 세웠다.

6 ㉔은 5소경이다. 통일 신라는 수도 금성이 동남쪽에 치우친 점을 보완하고자 주요 지역에 5소경을 설치하였다. 5소경에는 일부 중앙 귀족, 옛 백제와 고구려의 귀족들을 옮겨 살게 하였다.

바로 알기 | ㄱ은 고려의 양계, ㄴ은 통일 신라의 중앙 정치에 대한 설명이다.

7 통일 신라는 군사 제도를 중앙군인 9서당과 지방군인 10정으로 정비하였다.

바로 알기 | ①의 답은 3성 6부, ②의 답은 5경 15부 62주이다. ④ 신문왕 때 토지 제도를 정비하여 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음을 폐지하였다. ⑤의 답은 9주 5소경이다.

8 (가)는 무왕이다. 무왕은 당과 신라를 견제하였으며, 장문휴를 보내 당의 등주를 공격하였다.

바로 알기 | ①, ④는 문왕, ②, ③은 선왕의 업적이다.

9 **예시 답안** 발해는 당과 달리 정당성을 중심으로 3성을 운영하였다. 정당성 아래에는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6부를 두고, 6부의 명칭은 유교 덕목을 따서 지었다.

10 밑줄 친 '이 기구'는 정당성이다. 발해의 중앙 정치는 정당성을 중심으로 운영하였으며, 정당성 아래에 6부를 두어 행정 실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바로 알기 ①, ④는 정당성과 함께 발해의 3성을 이루었다. ③은 발해의 교육 기관, ⑤는 발해의 관리 비리 감찰 기구이다.

11 발해는 중앙군으로 10위를 두고 왕궁과 수도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였다.

바로 알기 ①, ⑤는 통일 신라, ②는 고려의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이다. ③ 주현군은 고려 시대에 5도의 군사 방어를 담당하였다.

12 9세기 전반에 장보고는 현재의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였다. 이후 해적들을 소탕하고 당, 신라, 일본을 잇는 중계 무역을 통해 세력을 키웠으나, 왕위 다툼에 끼어들어 반란을 일으켰다가 암살되었다.

13 신라 말에 지방에서는 호족 세력이 성장하였다. 호족은 주로 토착 세력인 촌주 출신이었으나, 중앙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귀족, 무역 활동으로 성장한 해상 세력, 국경 수비를 위해 설치된 군인의 무장 세력도 포함되었다. 이들은 스스로를 성주나 장군이라 불렀으며, 근거지에 성을 쌓고 군사와 행정을 장악하였다. 또한 골품제에 불만을 가진 6두품과 손잡고 새로운 사회를 세우려 하였으며, 선종과 풍수지리설을 사상적 기반으로 삼았다.

바로 알기 ② ㉠ 최치원은 6두품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호족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장보고, 견훤, 궁예, 왕건 등이 있다.

14 선종과 풍수지리설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지방 호족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바로 알기 ①은 불교, ②는 선종, ③은 교종, ⑤는 도교에 대한 설명이다.

15 (가)는 후고려(후고구려), (나)는 후백제이다. 후고려(후고구려)는 901년에 궁예가 옛 고구려의 부흥을 내세우며 건국하였으며, 국호를 마진, 태봉 등으로 바꾸었다. 후백제는 900년에 견훤이 옛 백제의 부흥을 내세우며 건국하였다. 후백제는 중국, 일본 등과 교류하며 신라를 위협하였다.

바로 알기 ② 궁예는 송악(개성)을 수도로 삼고 후고려(후고구려)를 세웠으나, 이후 수도를 철원으로 옮겼다.

16 (나) 후백제를 세운 인물은 견훤이다. 서남해안을 지키는 군인이었던 견훤은 옛 백제의 부흥을 주장하며 완산주(전주)를 도읍으로 하여 후백제를 건국하였다.

바로 알기 ㉠은 궁예에 대한 설명이다. 복원의 호족인 양길의 부하였던 궁예는 자립한 뒤 일부 호족의 도움을 받아 후고려(후고구려)를 세웠다. ㉡은 최치원 등에 대한 설명이다. 최치원은 당의 빈공과에 합격하여 관리로 활약하다가 신라로 귀국하였다.

17 통일 신라는 신문왕 때 국학을 세워 유학을 가르치고, 원성왕 때는 관리 등용 제도인 독서삼품과를 실시하여 유학을 보급하고자 하였다.

바로 알기 ㉠은 발해, ㉡은 백제의 유학 보급 정책이다.

18 6두품 출신인 최치원은 당에 유학하여 빈공과에 합격하였다. 이후 신라로 돌아와 진성 여왕에게 개혁안을 올렸으나 진골 귀족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 제시된 주장은 화엄 사상으로, 통일 신라의 승려인 의상이 주장하였다. 의상은 당에서 화엄 사상을 공부하고 돌아와 신라 화엄종을 개창하였다.

20 석굴암은 통일 신라의 대표적인 불교 문화유산으로, 화강암을 쌓아 만든 인공 석굴 사원이다. 석굴암은 수학 지식과 건축 기술을 활용하여 정교하게 지어졌다. 천장은 여러 개의 돌을 짜 맞추어 돔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석굴 내부에는 습도를 조절하는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석굴암의 중앙에 있는 본존상은 신라인들이 생각하던 부처의 이상적인 모습을 표현하였다.

21 불국사는 불교에서 추구하는 이상 세계를 표현하였으며, 석굴암은 수학적 원리와 건축 기술을 활용하여 만들었다. 감은사는 부처의 힘을 빌려 왜구의 침입을 막고자 지었다. 또한 성덕 대왕 신종은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가장 큰 종으로, '에밀레종'이라고도 불린다.

바로 알기 ⑤ 경주 불국사 삼층 석탑을 수리하던 중 탑의 2층에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발견되었다.

22 정효 공주 묘는 당의 영향을 받아 벽돌무덤으로 만들었으나, 천장 구조는 고구려 양식을 계승하여 천장이 점차 좁아지는 평형 고임 구조로 만들었다.

바로 알기 ㉠, ㉡은 발해 정혜 공주 묘의 특징이다.

23 발해는 고구려 문화를 계승하면서 당의 문화도 받아들였다. 발해 상경성은 당의 장안성을 모방하여 바둑판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발해의 삼채는 당의 3채 기법을 받아들여 3가지 색을 입혔다. 따라서 제시된 탐구 자료는 발해가 당 문화를 수용한 모습을 보여 준다.

바로 알기 ① 발해에서 유학이 발달하였음을 보여 주는 자료로는 6부의 명칭, 정혜 공주와 정효 공주의 묘지석 등이 있다. ③ 발해의 불교 예술 수준을 보여 주는 자료로는 상경성의 절터에서 발견된 석등 등이 있다. ④ 발해가 고구려 문화를 계승하였음을 보여 주는 자료로는 막새, 치미, 온돌 시설, 정혜 공주와 정효 공주의 묘 등이 있다. ⑤ 발해가 여러 나라와 활발히 교류하였음을 보여 주는 자료로는 옛 발해의 영토에서 발견된 소그드 은화 등이 있다.

24 통일 신라와 당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당의 산동반도에 신라방, 신라원, 법화원 등이 세워졌다. 한편, 통일 신라는 일본과도 활발히 교류하여 일본에 금속 제품과 모직물 등을 수출하였다.

바로 알기 ㉠, 신라는 당으로부터 비단, 책 등을 수입하였다. ㉡, 발해는 신라도를 이용하여 신라와 교류하였다.

25 ㉠은 당이다. 발해는 건국 초기에 당과 적대적인 관계였으나 문왕 때 친선 관계를 맺고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1 ④	2 ②	3 ④	4 해설 참조	5 ②
6 ③	7 해설 참조	8 ②		
9 ㉠ 시중(중시), ㉡ 상대등		10 ④	11 ③	12 ⑤
13 무왕	14 ①	15 ③	16 ②	17 ③
19 ㉠ 국학, ㉡ 주자감		20 ③	21 ②	22 ②
23 ②	24 ③	25 ③		

1 제시된 자료는 을지문덕이 수의 장군 우중문에게 보낸 첩수를 요구하는 시이다. 을지문덕은 우중문에게 첩수를 요구하는 시를 보내고 거짓으로 항복하였다. 오랜 이동과 굶주림으로 지친 수의 군대가 이에 속아 후퇴하자, 고구려군은 살수(청천강)에서 수군을 기습 공격하여 크게 승리하였다.

2 당 태종이 고구려에 복종을 요구하자 고구려는 천리장성을 쌓아 당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이후에도 고구려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당 태종은 고구려를 침략하였다. 당군은 요동성과 백암성을 무너뜨렸으나, 안시성에서 고구려군의 저항을 받고 물러났다(645). 고구려가 당의 침략을 막아 내는 동안 백제는 신라를 공격하였다. 위기에 처한 신라는 김춘추를 고구려에 보내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에 김춘추는 당으로 가서 군사 동맹을 제안하였고, 당 태종이 이를 받아들여 나당 동맹이 결성되었다(648).

3 백제의 공격으로 위기에 처한 신라는 김춘추를 고구려에 보내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결국 당과 동맹을 맺었다(648). 나당 연합군은 먼저 백제를 공격하였고 신라의 김유신이 이끄는 군대가 계백의 결사대를 격파하였다. 이후 의자왕이 항복하면서 백제가 멸망하였다(660). 이어 나당 연합군은 고구려를 공격하였고,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고구려가 멸망하였다(668). 그 뒤 당은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드러냈으나, 신라는 매소성 전투(675)에서 당군을 물리쳤다.

바로 알기 ㉠은 (가)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 의자왕은 대야성을 비롯한 여러 성을 빼앗으며 신라를 위협하였다. ㉡은 (나) 이후에 있었던 일이다. 신라는 기벌포 전투에서 당군을 크게 물리치고 삼국 통일을 이루었다(676).

4 **예시 답안** 당은 백제의 옛 땅에 웅진도독부, 고구려의 옛 땅에 안동도호부, 신라에 계림도독부를 두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욕심을 드러냈다.

5 백제가 멸망한 뒤 복신과 도침, 흑치상지 등을 중심으로 백제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 이들은 왜의 지원을 받아 나당 연합군에 맞섰으나, 백강 전투에서 패하였다. 이후 주류성과 임존성이 나당 연합군에 함락되면서 백제 부흥 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바로 알기 ㉠, ㉡은 고구려 부흥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6 밑줄 친 '이 인물'은 대조영이다. 고구려가 멸망한 뒤 당은 요서 지방의 영주에 고구려 유민, 말갈인, 거란인 등을 이주시켰다. 거란인이 당의 지배에 반발하여 반란을 일으키자, 대조영은 이를 틈타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 등을 이끌고 요동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그는 뒤쫓아 온 당의 군대를 천문령에서 물리친 뒤 중국 지린의 동모산 근처에 도읍을 정하고 발해를 세웠다.

바로 알기 ①은 신라 신문왕, ②는 발해 문왕, ④는 신라 혜공왕 등, ⑤는 발해 무왕에 대한 설명이다.

7 **예시 답안** 발해는 고구려 유민이 세운 나라로, 고구려 계승 의식을 분명히 드러냈다.

8 신문왕은 장인인 김흠돌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고, 반란에 가담한 진골 귀족들을 제거하였다. 또한 교육 기관인 국학을 설치하여 유학을 보급하였다.

바로 알기 ㉠은 무열왕, ㉡은 문무왕에 대한 설명이다.

9 통일 이후 신라의 중앙 정치는 국왕 직속 기구인 집사부를 중심으로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집사부 장관인 시중(중시)의 권한이 강해졌다. 반면, 귀족 회의인 화백 회의의 기능과 상대등의 역할은 줄어들었다.

10 삼국을 통일한 이후 신라는 체제를 재정비하였다. 신문왕 때 교육 기관으로 국학을 세워 유학을 보급하였다. 중앙군은 9서당으로 정비하여 신라인뿐만 아니라 고구려, 백제 출신과 말갈인까지 포함하였다. 가장 낮은 단위의 지방 행정 구역인 촌은 토착 세력을 촌주로 임명하여 관리하였다. 옛 백제와 고구려 땅의 주요 지역에는 5소경을 설치하고, 일부 중앙 귀족 및 옛 백제와 고구려 귀족들을 옮겨 살게 하였다.

바로 알기 ④ 정당성은 발해의 정치 기구로, ④는 발해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다.

11 지도에 표시된 최대 영역을 차지한 나라는 발해이다. 발해는 고구려 유민이 세운 나라인 만큼 고구려 계승 의식을 내세웠다. 발해의 주민은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었으며, 그중에서도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이 주를 이루었다. 발해의 중앙 정치 기구는 당의 3성 6부제를 본떠 정비되었다. 9세기 말부터 지배층의 권력 다툼 등으로 약해진 발해는 결국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하였다(926).

바로 알기 ③ 9서당은 통일 신라의 중앙군이다. 발해는 중앙군으로 10위를 두어 왕궁과 수도를 경비하였다.

12 밑줄 친 '이 왕'은 문왕이다. 문왕은 수도를 중경에서 상경으로 옮겼으며, 최고 교육 기관으로 주자감을 설치하여 유학을 보급하였다.

바로 알기 ㉠은 무왕의 업적이다. 당이 발해를 압박하자, 무왕은 장문휴를 보내 당의 산둥반도(등주)를 공격하였다. ㉡은 선왕의 업적이다. 선왕은 최대 영토를 확보하여 발해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이 시기에 당은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불렀다.

13 발해의 무왕은 '인안'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또한 당이 발해를 압박하자, 돌궐, 일본 등과 친선 관계를 맺는 한편, 장문휴를 보내 당의 산둥 지방(등주)을 공격하였다.

14 지도는 신라 말에 일어난 반란을 나타낸 것이다. 신라 말에는 진골 귀족들 사이의 왕위 다툼으로 정치가 혼란해졌다. 이로 인해 중앙의 지방 통제력이 약해지면서 김현창의 난과 장보고의 난 등 지방 귀족들의 반란이 일어났다. 귀족들의 수탈은 더욱 심해졌고, 여기에 자연재해와 흉년까지 겹치자 농민들이 몰락하였다. 세금이 줄어들자 정부는 조세 징수를 독촉하였고, 분노한 농민들은 원종과 애노의 난 등 봉기를 일으켰다. 한편, 지방에서는 호족이 성장하였는데, 이들은 주로 토착 세력인 촌주 출신이었으나 중앙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귀족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바로 알기 ㉠, ㉡은 삼국 통일 이후 왕권이 강력하였던 시기의 신라에 대한 설명이다.

15 신라 말 중앙 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약해지자, 지방에서 호족이 성장하였다. 이들은 스스로를 성주 혹은 장군이라 불렀으며, 자신의 근거지에 성을 쌓고 군사와 행정을 장악하여 지방을 실질적으로 다스렸다.

바로 알기 ㄱ. 호족은 대부분 토착 세력인 촌주 출신이었다. ㄴ은 6두품에 대한 설명이다. 빈공과에 합격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최치원 등이 있다.

16 신라 말에는 선종과 풍수지리설이 크게 유행하였다. 선종은 새로운 불교 사상으로, 참선 등의 수행을 하면 누구나 내면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선종 승려 도선은 땅의 생김새와 기운이 인간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풍수지리설을 확산시켰다. 풍수지리설은 수도인 금성 중심의 지리 인식에서 벗어나 지방의 독자성을 강조하여 선종과 함께 지방 호족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바로 알기 ② 선종은 중앙의 권위와 귀족의 수탈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던 호족과 백성의 호응을 받았다. 호족의 후원으로 전국에 선종 사찰이 세워졌다.

17 최치원은 6두품 출신으로, 빈공과에 합격하여 당의 관리로 활약하였다. 이후 신라로 돌아와 혼란스러운 사회를 바로잡고자 진성 여왕에게 개혁안을 제출하였으나, 진골 귀족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바로 알기 ①은 김대문, ②는 김흠돌, 김현창, 장보고 등, ④는 설총, ⑤는 궁예에 대한 설명이다.

18 궁예는 901년에 고구려 부흥을 내세우며 후고려(후고구려)를 세웠다. 이후 그는 나라 이름을 마진으로 고쳤다가, 그 뒤에 다시 태봉으로 바꾸었다.

바로 알기 ①은 후백제, ②, ④는 발해, ③은 신라에 대한 설명이다.

19 통일 신라와 발해는 유학을 중시하여 나라의 통치 이념에 유학을 반영하고, 교육 기관을 세워 유학을 보급하였다. 통일 신라는 신문왕 때 국학을 세우고, 발해는 문왕 때 주자감을 설치하여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길렀다.

20 밀줄 친 '이 인물'은 원효이다. 원효는 백성에게 '나무아미타불'만 외우면 극락정도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며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그는 불교 종파들 간의 사상적 대립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원효는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다양한 불교 종파와 교리도 높은 차원에서 보면 하나라고 말하며 화쟁 사상을 주장하였다.

바로 알기 ① 설총은 이두를 정리하여 유교 경전을 우리말로 풀이하였다. ②, ④ 의상은 부석사를 세워 제자를 양성하였고, 신라 화엄종을 개창하였다. ⑤ 혜초는 인도와 중앙아시아 등을 순례하고 돌아와 『왕오천축국전』을 저술하였다.

21 제시된 사찰은 경주 불국사이다. 불국사는 통일 신라의 대표적인 불교 문화유산으로, 불교에서 추구하는 이상 세계를 표현하였다. 불국사는 건물과 탑이 균형 있게 배치되어 있으며, 사찰 안에는 삼층 석탑과 다보탑이 세워져 있다. 경주 불국사 삼층 석탑은 석가탑 또는 무영탑으로도 불린다.

바로 알기 ㄴ은 부석사, ㄷ은 감은사에 대한 설명이다.

22 발해에서는 고구려, 당, 말갈 등 여러 문화가 어우러진 융합적인 문화가 발달하였다. 가장 오랜 기간 수도였던 상경성은 당의 장안성과 같이 바둑판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외성과 내성, 주작대로를 갖추었다. 상경성에서는 고구려 전통을 계승한 온돌 시설도 발견되었다. 또한 발해의 삼채는 당의 기법을 받아들여 3가지 색으로 만들어졌다. 한편, 일반 백성들은 주로 말갈의 영향을 받은 흙무덤과 말갈식 토기를 만들었다.

바로 알기 ② 정혜 공주 묘는 고구려의 양식을 계승하여 굴식 돌방무덤에 모출임천장 구조로 지어졌다.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고분으로는 백제의 무령왕릉이 있다.

23 장보고는 해적의 약탈이 심해지자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적을 소탕하였다. 그는 청해진을 중심으로 당, 신라, 일본을 연결하는 해상 무역을 장악하였으며, 산동반도에 거주하던 신라인들을 위해 법화원이라는 사찰을 세웠다. 청해진에서 해상 무역과 군사 활동으로 세력을 키운 장보고는 왕위 다툼에 끼어들어 반란을 일으켰다.

바로 알기 ㄴ은 최치원 등에 대한 설명이다. 신라의 6두품 출신이었던 최치원은 당의 빈공과에 합격하여 높은 벼슬을 지냈다. ㄷ은 김현창에 대한 설명이다. 신라 말에 웅주 도독 김현창은 무열왕의 직계 후손인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데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다.

24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당과 관계를 회복하고 문물을 교류하였다. 이에 산동반도 일대에는 신라인 마을(신라방)을 비롯하여 감독 관청(신라소), 사찰(신라원), 숙박 시설(신라관) 등 신라인을 위한 다양한 시설들이 세워졌다. 또한 당에서 유학한 학생들은 빈공과에 합격하여 당의 관리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최치원 등이 있다.

25 발해는 건국 초에 당과 신라를 견제하고자 일본과 친선 관계를 맺고 교류하였다. 이후 문왕 때부터 당과 교류하기 시작하여 승려와 유학생 등을 보내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다. 발해는 당에 말, 모피, 인삼 등을 수출하고 당에서 비단, 책 등을 수입하였다. 한편, 신라와는 건국 초에 대립하였으나 문왕 때 신라도를 개설하여 사신과 물자를 교환하였다.

바로 알기 ③ 울산항은 통일 신라의 국제 무역항이다.

Ⅲ. 고려의 성립과 변천

실전 대비 1회

106쪽 ~ 109쪽

1 ①	2 해설 참조	3 ⑤	4 ⑤	5 여사대
6 ⑤	7 ①	8 ①	9 ④	10 ⑤
11 ②	12 ④	13 ⑤	14 ⑤	15 ③
16 ⑤	17 ③	18 해설 참조	19 ②	20 (나)-(가)-(라)-(다)
21 ⑤	22 해설 참조	23 ④	24 ①	25 ⑤

1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 통일 과정은 '② 고려의 송악 천도-③ 고려의 공산(대구) 전투 패배-⑤ 고려의 고창(안동) 전투 승리-① 신라 경순왕의 투항-④ 고려의 일리천(구미) 전투 승리'의 순서로 일어났다. 따라서 네 번째로 일어난 일은 ① 신라 경순왕의 투항이다.

2 **예시 답안** 태조는 유력한 호족과 혼인 관계를 맺고 관직과 토지, 왕씨 성을 내려 주었다. 또한 사심관 제도와 기인 제도를 실시하였다.

3 밑줄 친 '이 왕'은 성종이다. 성종은 개경에 최고 교육 기관인 국자감을 세웠다. 또한 당과 송의 제도를 참고하여 중앙 정치 조직을 2성 6부로 정비하였다.

바로 알기 ㄱ. 태조(왕건)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내세우며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고자 북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ㄴ. 공민왕은 전민 변정도감을 두어 권문세족이 불법으로 차지한 토지와 노비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 주고, 강제로 노비가 된 양인을 해방하였다.

4 제시된 자료는 고려 시대에 과거제를 처음으로 실시한 내용을 보여 준다. 고려에 과거제를 도입한 왕은 광종이다. 광종은 스스로를 황제라고 부르고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며 고려가 황제의 나라임을 알렸다.

바로 알기 ①, ②는 태조, ③, ④는 성종에 대한 설명이다.

5 여사대의 관리는 증서문하성의 낭사와 함께 '대간'으로 불렸다. 이들은 관리들과 왕의 잘못을 감찰하고 왕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권한을 가졌다.

6 고려는 과거와 음서 등의 제도로 관리를 등용하였다. 과거는 원칙적으로 양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었으며, 문관을 뽑는 제술과와 명경과, 기술관을 뽑는 잡과, 승려에게 승계를 부여하는 승과로 구성되었다. 음서는 왕족과 공신, 5품 이상 고위 관리의 자손이 시험 없이 관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였다.

바로 알기 ⑤는 음서에 대한 설명이다. 지배층은 음서를 이용하여 후손에게 대대로 관직을 물려주기도 하였다.

7 지도는 5도, 양계로 정비한 고려의 지방 행정 조직을 보여 준다. 고려는 성종 때 중앙 정치 조직을 2성 6부로 정비하였다. 또한 개경에 최고 교육 기관인 국자감을 설치하여 유교 경전과 역사서, 기술학을 가르쳤다. 고려는 특수 행정 구역으로 고을 안에 향·부곡·소를 두었다. 고려 정부는 일반 행정 구역인 5도에 안찰사를, 군사 행정 구역인 양계에 병마사를 보내 백성을 다스렸다.

바로 알기 ① 고려는 중앙군으로 2군 6위를 두었다. 9서당은 통일 신라의 중앙군, 10정은 통일 신라의 지방군이다.

8 밑줄 친 '그'는 딸들을 예종, 인종과 혼인시켰으며, 척준경과 반란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통해 이자겸임을 알 수 있다. 이자겸은 경원 이씨 가문 출신으로, 경원 이씨 가문은 왕실과 거둔 혼인 관계를 맺으며 문벌로 성장하였다. 이자겸이 정치권력을 장악한 시기에 금이 고려에 군신 관계를 요구하자, 반대 여론을 억누르고 금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바로 알기 ㄷ은 묘청 등 서경 세력, ㄹ은 김부식에 대한 설명이다.

9 묘청 세력은 서경으로 천도하자고 주장하였으나, 김부식 등 개경의 문벌 세력이 반발하여 좌절되었다. 이에 묘청 세력은 나라 이름을 '대위', 연호를 '천개'라고 내세우며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 반란은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이후 더 이상 견제 세력이 없어진 문벌은 권력을 독점하게 되었다.

바로 알기 ④는 무신 정변에 대한 설명이다.

10 (가)는 최충헌에 이어 집권하였다는 사실, 정방을 새로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통해 최우임을 알 수 있다. 최우는 서방을 설치하고 능력 있는 문신을 등용하여 정책을 자문받았다. 한편, 최우가 집권하던 시기에 몽골이 침입하였다. 몽골군은 고려와 강화를 맺고 돌아갔으나, 최우는 항전을 준비하고자 수도를 강화도로 옮길 것을 결정하였다.

바로 알기 ㄱ은 이의민 등, ㄴ은 최충헌에 대한 설명이다.

11 (나)는 교정도감이다. 최충헌은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였다. 이후 교정도감은 무신 정권의 권력 기구로 유지되었다.

12 망이·망소이의 난(1176), 전주 관노의 난(1182), 김사미와 효심의 난(1193), 만적의 난(1198)은 모두 무신 정권기에 농민과 천민이 일으킨 봉기이다. 무신 정권은 무신 정변(1170)으로 성립되었고, 고려 정부가 몽골과 강화를 맺고 개경으로 환도하던 시기에 붕괴되었다(1270).

13 거란의 세 차례 침입을 모두 물리친 고려는 개경에 나성을, 국경 지역에 천리장성을 쌓아 북방 민족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14 12세기 무렵 여진은 완연부를 중심으로 세력을 통합한 뒤 고려를 자주 침략하였다. 이에 윤관은 숙종에게 특수 부대인 별무반을 만들어 여진을 정벌하자고 건의하였다. 이후 예종 때에는 직접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 정벌에 나섰으며, 점령한 동북 지역에 9성을 쌓아 고려의 영토로 삼았다.

15 지도는 삼별초의 이동과 저항 경로를 보여 준다. 삼별초는 몽골과의 강화와 개경 환도에 끝까지 반대하여 진도와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기며 저항하였다.

바로 알기 ①은 정중부와 이의방 등 무신 세력, ②는 별무반, ④는 통일 신라의 중앙군인 9서당, ⑤는 2군에 대한 설명이다.

16 제시된 왕들의 시호가 '충(忠)○왕'인 것을 통해 이 왕들이 재위한 시기는 원 간섭기임을 알 수 있다. 원은 일본 원정을 목적으로 동동행성을 설치하였으나, 원정이 실패한 뒤에도 그대로 두고 고려 내정을 간섭하였다. 또한 고려에 공물뿐만 아니라 환관과 공녀까지 요구하였다. 고려의 왕실 용어도 격이 낮아지면서 폐하를 전하로, 태자를 세자로 불렀다. 한편, 고려에서는 몽골식 모자(발립), 머리 모양(변발), 의복(철릭) 등 몽골의 풍습이 유행하였다.

바로 알기 | ⑤는 공민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일로, 공민왕은 충정왕 이후에 즉위하였다.

17 원 간섭기에 고려에서는 친원적 성향을 가진 권문세족이 성장하였다. 이들은 기존의 지배층뿐 아니라 국왕의 측근 세력, 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인물들, 원 황실과 혼인 관계를 맺은 가문(기철 가문) 등으로 구성되었다.

18 **예시 답안** 고려에 침입한 흉건적과 왜구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큰 공을 세운 무인들이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 신흥 무인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19 ㉠은 성리학, ㉡은 불교이다. 신진 사대부는 성리학을 개혁 사상으로 삼고 권문세족의 횡포와 불교계의 폐단을 비판하였다.

20 고려 말에 일어난 주요 사건은 ‘(나) 명이 철령 이북의 땅 요구-(가) 위화도 회군-(라) 이성계의 정치·군사적 실권 장악-(다) 이성계 세력의 온건파 신진 사대부 제거’의 순서로 전개되었다.

21 고려는 개경에 최고 교육 기관인 국자감을 세우고 지방 주요 지역에 향교를 설치하였다. 또한 12목에 유학 교육을 담당하는 경학박사와 의학 교육을 담당하는 의학박사를 파견하였다. 그러나 고려 중기에는 관학이 쇠퇴하고, 최충이 세운 9재 학당과 같은 사학이 번성하였다. 이에 예종과 인종은 관학을 되살리고자 국자감의 교육 제도를 정비하였다.

22 **예시 답안** 『삼국사기』는 사실로 보기 힘든 전설, 신화 등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으나, 『삼국유사』는 전설, 신화 등을 비중 있게 서술하였다.

23 지눌은 무신 정권기에 불교의 세속화를 비판하며 수선사(송광사)를 중심으로 불교 개혁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불경 공부, 수행, 노동에 골고루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바로 알기 | ①은 신라 의상, ②는 신라 혜초, ③은 고려 의천, ⑤는 신라 원효의 활동이다.

24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은 기둥 위에만 공포를 얹은 주심포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가운데가 불룩한 배흘림기둥을 사용하였다.

바로 알기 | ㄷ. 몽골의 침입으로 소실된 문화유산은 초조대장경 목판과 황룡사 9층 목탑이다. ㄹ. 고려 후기에 원의 영향을 받은 다포 양식의 사찰이 지어졌다.

25 고려는 송의 통치 제도를 참고하여 국가 체제를 정비하였다. 고려의 정치 기구인 중추원과 삼사는 송의 제도를 수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고려가 송과 교류하며 실리를 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알기 | ① 고려와 송은 거란과 여진을 피해 주로 바닷길로 교류하였다. ② 고려는 원으로부터 수시력을 도입하였다. ③ 아라비아 상인은 고려를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서방 세계에 알렸다. ④ 여진은 고려에 토산품을 바치고 생활필수품을 받아 갔다.

실전 대비 2회

110쪽~113쪽

1 ⑤	2 노비안검법	3 ④	4 ②		
5 해설 참조		6 ④	7 ②	8 ②	9 ⑤
10 ①	11 해설 참조	12 ②	13 ③	14 ⑤	
15 ①	16 ④	17 ⑤	18 해설 참조	19 ④	
20 ①	21 ⑤	22 의천	23 ⑤	24 ④	25 ⑤

1 제시된 자료는 혼요 10조로, 이를 남긴 ㉠은 태조이다. 태조는 건국 초부터 고구려 계승 의식을 내세우며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고자 북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 중시하였다.

바로 알기 | ①, ②는 광종, ③, ④는 성종에 대한 설명이다.

2 광종은 노비안검법을 시행하여 호족이 불법으로 차지한 노비를 양인으로 풀어주었다. 그 결과 호족의 경제와 군사 기반이 약화되었다.

3 최승로는 시무 28조에서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라고 하며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을 것을 건의하였다.

바로 알기 | ① 최승로의 시무 28조는 성종이 수용하였다. ②, ③, ⑤는 태조가 남긴 혼요 10조에 대한 설명이다. 태조는 혼요 10조에서 연동회와 팔관회를 성대하게 열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서경을 중시하여 왕이 정기적으로 방문하도록 하였으며,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되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고 강조하였다.

4 ㉠은 도병마사, ㉡은 식목도감이다. 고려는 당과 송의 제도를 참고하여 중앙 정치 조직을 정비하였으나, 도병마사와 식목도감과 같은 독자적인 기구도 설치하였다.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중서문하성과 중추원의 고위 관리들이 모여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고 처리하는 회의 기구였다. 도병마사에서는 국방과 군사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식목도감에서는 제도와 시행 규칙을 제정하였다.

5 **예시 답안** 고려의 특수 행정 구역인 향·부곡·소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일반 군현민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등 차별을 받았다.

6 제시된 글에서 설명하는 관리 등용 제도는 음서이다. 음서의 대상은 왕족, 공신, 고위 관리의 아들과 친손자뿐만 아니라 사위와 외손자까지 포함되었다. 지배층은 음서를 이용하여 관직을 자손에게 대대로 물려 주기도 하였다. 원 간섭기의 지배층인 권문세족도 음서를 이용하여 고위 관직을 독차지하였다.

바로 알기 | ㄱ, ㄷ은 과거에 대한 설명이다. 광종은 고려에 과거를 도입하여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등용하였다. 그리고 고려 말에 성장한 신진 사대부는 과거를 통해 중앙 정치로 진출하였다.

7 고려 전기에는 지방 호족과 신라 6두품 출신의 유학자가 지배층을 형성하였으며, 이들 가운데 여러 세대에 걸쳐 고위 관리를 배출한 가문이 문벌을 형성하였다. 따라서 ㉠은 문벌이다. 문벌은 왕실이나 다른 문벌과 혼인하여 세력을 넓혀 나갔다. 경원 이씨 가문은 대표적인 문벌로, 왕실과 거듭된 혼인 관계를 맺으며 유력한 외척 가문이 되었다. 특히 이자겸은 딸들을 예종, 인종과 혼인시키며 막강한 권력을 누렸다.

바로 알기 | ①은 권문세족, ③은 신진 사대부, ④는 신라 말에 성장한 호족, ⑤는 신흥 무인 세력에 대한 설명이다.

8 (가)는 무신 정권 초기, (나)는 최씨 무신 정권 시기이다. 무신 정권 초기에는 중방에서 국정을 운영하였다. 이후 최충현이 집권 하면서 최씨 무신 정권이 시작되었다. 최충현은 사병 조직인 도방을 확대하여 정권을 보호하였고,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였다. 한편, 최우가 집권하던 시기에 몽골이 침입하였다. 고려는 필사적으로 항전하였으나 결국 몽골과 강화를 맺게 되었다. 이후 몽골군이 물러갔지만 무신 정권은 항전을 준비하며 강화도로 수도를 옮겼다.

바로 알기 | ② 서방은 최우가 능력 있는 문신에게 정책 자문을 구하고자 설치하였다.

9 첫 번째 자료는 만적이 봉기를 계획하며 말한 내용, 두 번째 자료는 망이와 망소이 형제가 봉기를 일으키며 말한 내용이다. 만적이 난과 망이·망소이의 난은 무신 정권기에 일어난 대표적인 천민 봉기와 농민 봉기이다. 만적은 무신 정변 이후 천한 신분 출신도 고위 관직에 오른 사실을 언급하며 신분 해방을 목적으로 봉기를 계획하였다. 망이와 망소이 형제는 특수 행정 구역인 공주 명화소의 주민으로, 수탈과 차별에 반발하여 봉기를 일으켰다.

10 제시된 글은 거란의 1차 침입 당시 서희와 거란 장수 소손녕이 벌인 외교 담판에 대한 내용으로, 밑줄 친 ‘그’는 서희이다. 거란은 송과 고려의 연합을 막고자 고려를 침입하였다(993). 서희는 이러한 의도를 파악하고 소손녕과 담판을 벌였다. 서희가 송과의 관계를 끊고 거란과 교류하겠다고 약속하자, 거란군은 강화를 맺고 물러갔다.

11 **예시 답안** 고려는 송과의 관계를 끊고 거란과 교류하는 것을 조건으로 거란으로부터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인정받고 강동 6주를 확보하였다.

12 12세기 무렵 여진은 세력을 통합하고 고려를 자주 침입하였다. 이에 윤관은 숙종에게 특수 부대인 별무반을 만들어 여진을 정벌하자고 건의하였다. 별무반은 기병인 신기군, 보병인 신보군, 승려로 이루어진 향마군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예종 때에는 윤관이 직접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하였다.

바로 알기 | ㄴ은 주현군, ㄹ은 삼별초에 대한 설명이다.

13 몽골은 무신 정권기에 고려를 침입하였다. 몽골과의 전쟁 과정에서 초조대장경 목판과 황룡사 9층 목탑이 불타 사라졌으며, 고려 정부는 불교의 힘으로 몽골군을 물리치고자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다. 그러나 오랜 전쟁 끝에 몽골과의 강화가 추진되었다. 이에 반대하던 무신 정권은 내분으로 무너졌고, 고려 정부는 개경으로 환도하였다.

14 원 간섭기에 고려에서는 몽골식 모자(발립), 머리 모양(변발), 의복(철릭) 등 몽골의 풍습이 유행하였다.

15 고려는 몽골(원)과 강화를 맺은 뒤 원의 간섭을 받았다. 원 황제가 고려 국왕을 마음대로 임명하거나 폐위하기도 하였으며, 고려의 왕실 용어와 관제의 격은 제후국 수준으로 낮아졌다. 또한 원은 일본 원정을 목적으로 정동행성을 설치하였으나, 원정이 실패한 뒤에도 이를 그대로 두고 내정을 간섭하였다. 뿐만 아니라 쌍성총관부(철령 이복), 동녕부(서경), 탐라총관부(제주)를 설치하여 고려의 영토 일부를 직접 지배하였다.

바로 알기 | ①은 공민왕이 왕권을 강화하고자 실시한 정책이다. 공민왕은 정방을 폐지하고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16 밑줄 친 ‘왕’은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공민왕임을 알 수 있다. 공민왕은 일본 원정이 실패한 뒤에도 고려에 남아 내정을 간섭하던 정동행성이문소를 폐지하였다. 또한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원이 다스리던 철령 이복의 땅을 되찾았다.

바로 알기 | ㄱ은 우왕이 실시한 정책이다. 명이 철령 이복의 땅을 요구하자, 우왕은 최영과 함께 요동 정벌을 추진하였다. ㄷ은 광종이 실시한 정책이다. 광종은 스스로를 황제라고 부르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며 고려가 황제의 나라임을 널리 알렸다.

17 권문세족은 원 간섭기의 지배층으로, 음서를 이용하여 고위 관직을 독차지하였다. 이 시기에 불교계는 권문세족과 연결되어 많은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는 등 폐단을 일으켰다. 한편, 신진 사대부는 과거를 통해 관직에 나아갔다. 이들은 성리학을 개혁 사상으로 삼고 권문세족의 횡포와 불교계의 폐단을 비판하였다.

바로 알기 | ⑤ ㉠ 신진 사대부는 원과 명이 교체되는 시기에 명과 화친하자고 주장하였다.

18 **예시 답안**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국가 제도 전체를 개혁해야 합니다.

19 밑줄 친 ‘이 학문’은 성리학이다. 안향은 충렬왕 때 고려에 처음으로 성리학을 소개하였다. 이후 신진 사대부는 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삼고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들은 권문세족의 횡포와 불교계의 사회적·경제적 폐단을 비판하고, 토지 제도와 조세 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며 고려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또한 명이 성장하여 원을 북쪽으로 밀어내자, 명과 우호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려 말에는 신진 사대부가 크게 성장하면서 성리학이 통치 사상으로 발전하였다.

바로 알기 | ①은 풍수지리설, ②는 도교, ③은 유교, ⑤는 불교에 대한 설명이다.

20 『동명왕편』은 고구려를 세운 동명왕(주몽)의 업적을 칭송하는 영웅 서사시이다. 이규보는 무신 정권기에 『동명왕편』을 편찬하여 고구려 계승 의식을 드러냈다.

바로 알기 | ㄷ은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에 대한 설명이다. 고려 초기에 『7대 실록』과 『삼국사』가 편찬되었으나 오늘날 전하지 않는다. ㄹ은 이제현이 편찬한 『사략』에 대한 설명이다. 고려 후기에 성리학이 수용되면서 정통 의식과 대의명분을 강조하는 사관이 나타났다. 이제현은 이러한 사관을 반영하여 『사략』을 편찬하였다.

21 몽골의 침입과 원 간섭기를 겪으며 고려에서는 자주 의식을 담은 역사서가 편찬되었다. 일연은 『삼국유사』에서 처음으로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를 기록하였으며,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 전설, 설화 등을 수록하였다. 이승휴도 『제왕운기』에서 단군이 세운 고조선을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로 서술하였다.

바로 알기 | ㄱ은 무신 정권기에 고려의 고구려 계승 의식을 드러내고자 편찬되었다. ㄴ은 이자겸의 난과 서경 천도 운동 이후 왕권을 회복하고자 한 인종의 명령으로 편찬되었다.

22 의천은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로, 송에서 불교를 공부하고 돌아왔다. 당시 고려에서는 불교 종파 간의 대립이 심하였는데, 의천은 이를 해결하고자 교단 통합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 하였으며, 천태종을 창시하여 선종까지 포섭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의천이 죽은 뒤 교단은 다시 분열하였다.

23 제시된 청자 상감 운학문 매병과 청동 은입사 포류 수금문 정병은 모두 고려에서 만들었다. 청자 상감 운학문 매병은 상감 기법으로 표면에 화려한 무늬를 새긴 상감 청자이다. 청동 은입사 포류 수금문 정병은 은입사 기술을 적용하여 만든 금속 공예품이다. 이 밖에도 고려에서는 나전 칠기와 같은 섬세하고 정교한 목공예품이 큰 인기를 끌었다. 이처럼 고려 시대에는 독창적인 공예품이 유행하였다. 또한 고려는 주변 나라와 활발하게 교류하며 다양한 문물을 받아들였다. 거란의 대장경을 참고하여 대장경을 만들었으며, 원으로부터는 수시력을 들여왔다. 한편, 고려에서 가족과 친족은 성별이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각자의 혈연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가족 질서 내에서 남녀의 지위가 동등하였다.

바로 알기 | ⑤ 울산항과 당항성은 통일 신라의 국제 무역항이었다. 고려에서는 개경 가까이 있는 예성강 하구의 벽란도가 국제 무역항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송과 일본 상인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및 서역의 아라비아 상인들이 벽란도에 방문하여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24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고려 후기에 원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대리석 탑으로, 탑 전체가 화려하고 섬세한 조각으로 장식되었다.

바로 알기 | ①은 백제의 익산 미륵사지 석탑으로, 석탑이지만 목탑 양식에 따라 지어졌다. ②는 신라의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이다. 남아 있는 신라의 석탑 중 가장 오래되었으며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은 것이 특징이다. ③은 신라의 경주 불국사 삼층 석탑으로, 3층 석탑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⑤는 고려의 평창 월정사 8각 9층 석탑으로, 고려 전기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다각 다층 석탑이다.

25 고려 시대의 혼인 형태는 일부일처제가 일반적이었다. 신분은 법적으로 양인과 천민으로 나뉘었으며, 양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백정은 농사를 지으며 국가에 세금, 노동력, 특산물을 납부하였다. 지배층은 관리가 되어 관직 수행의 대가로 토지와 녹봉을 받았다. 한편, 백성들은 불교 신앙 공동체인 향도를 조직하여 마을의 일을 함께 돕고, 내세의 행운과 나라의 평안을 비는 매향 활동을 하였다.

바로 알기 | ⑤ 고려에서는 가족 질서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지위가 평등하였다. 이에 따라 재산도 성별과 나이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상속되었다.

실전 대비 3회

114쪽~118쪽

1 ⑤	2 ④	3 해설 참조	4 ④	5 ④
6 ⑤	7 ③	8 ④	9 ③	10 ③
11 ① 교정도감, ㉠ 정방, ㉡ 서방	12 ②	13 ③	14 ⑤	
15 정동행성	16 해설 참조	17 ③	18 ⑤	
19 ③	20 ①	21 성균관	22 ⑤	23 ③
24 ③	25 ⑤	26 ⑤	27 ④	28 ②
			29 ④	30 ①

1 고려는 호족의 도움으로 고창(안동) 전투에서 후백제군에 승리하였다(930). 이후 후백제의 견훤이 고려에 투항하였고, 신라 경순왕도 나라를 고려에 넘겨주었다(935). 결국 고려는 일리천(구미)에서 신검이 이끄는 후백제군을 크게 물리치고 후삼국을 통일하였다(936).

바로 알기 | ㄱ은 919년, ㄴ은 927년에 일어난 일로, 모두 고려 건국(918)과 고창(안동) 전투(930) 사이 시기에 일어났다.

2 제시된 자료에서 흑창을 설치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밑줄 친 '왕'이 고려 태조임을 알 수 있다. 태조는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세금을 줄였으며, 흑창을 설치하여 가난한 백성에게 곡식을 빌려주었다. 또한 태조는 왕권을 안정시키고자 호족을 포섭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는 지방의 유력한 호족과 혼인 관계를 맺고, 일부에게는 왕씨 성을 내려 주었다.

바로 알기 | ①, ②는 광종, ③은 공민왕, ⑤는 성종에 대한 설명이다.

3 **예시 답안** 태조는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중시하여 서경으로 삼고, 남쪽 지방의 백성들을 옮겨 와 살게 하였다. 또한 발해 유민을 서북 지방에 살게 하여 거란을 경계하게 하였다.

4 '광덕', '준풍' 등의 연호를 사용한 왕은 광종이다. 그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고 스스로를 황제라고 부르며 고려가 황제의 나라임을 알렸다. 또한 광종은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여 호족이 불법으로 차지한 노비를 양인으로 풀어 주었다. 그 결과 호족의 경제와 군사 기반이 약화되었다.

바로 알기 | ①, ⑤는 성종, ②, ③은 태조가 실시한 정책이다.

5 ①은 성종이다.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개경에 최고 교육 기관인 국자감을 세워 유교 경전과 역사서를 가르쳤다. 또한 성종은 연등회와 팔관회를 억제하여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였으며, 지방의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그리고 당과 송의 제도를 참고하여 중앙 정치 조직을 2성 6부로 정비하였다.

바로 알기 | ④는 광종의 활동이다.

6 고려는 중앙 정치 조직을 2성 6부로 정비하였다. 최고 관청인 중서문하성의 장관인 문하시중이 국정을 총괄하였으며, 상서성은 아래에 실무 관청인 6부를 두고 정책을 집행하였다. 어사대는 관리를 감찰하였는데, 이곳의 관리는 중서문하성의 낭사와 함께 '대간'으로 불리며 왕과 관리의 잘못을 비판하거나 왕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권한을 가졌다. 삼사는 재정의 출납과 회계를 담당하였다.

바로 알기 | ⑤ 중추원은 국왕의 비서 기구로, 왕의 명령을 전달하고 군사 기밀을 담당하였다. 고위 관료들이 모여 국방과 군사 문제를 논의한 기구는 도병마사이다.

7 고려는 전국을 5도(일반 행정 구역), 양계(국경의 군사 행정 구역), 경기(수도 개경과 주변 지역)로 나누어 다스렸다. 고려 정부는 5도에는 안찰사, 양계에는 병마사를 보내 관리하였으며, 행정과 군사 실무는 각 고을의 향리가 자치적으로 담당하도록 하였다. 한편, 고려는 일반 군현 외에도 특수 행정 구역으로 향·부곡·소를 두었다.

바로 알기 ③ 고려의 군현은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과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으로 구분되었다. 주현에 파견된 지방관이 속현까지 관리하였다.

8 이자겸이 강력한 외척 세력이 되어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왕권을 위협하자, 인종은 그를 제거하려 하였다. 이를 눈치챈 이자겸이 척준경과 반란을 일으켰으나 인종에 의해 진압되었다. 이후 인종은 왕권을 회복하고자 묘청, 정지상 등 개혁 세력을 등용하였다.

바로 알기 ①, ②, ③, ⑤는 (나) 이후에 있었던 일이다.

9 제시된 자료에서 (가)는 풍수지리설을 내세워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고 주장하며, (나)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는 묘청 등 서경 세력, (나)는 김부식 등 개경의 문벌 세력임을 알 수 있다. 묘청 세력은 서경 천도와 금 정벌, 황제 칭호와 연호 사용 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개경 세력의 반대로 서경 천도가 무산되자 나라 이름을 '대위', 연호를 '천개'로 내세우며 반란을 일으켰다. 김부식 등 문벌 세력은 개경에 세력 기반을 두고 있었다. 서경 천도 운동이 실패로 끝나자, 더 이상 견제 세력이 없어진 문벌 세력은 더욱 막강한 권세를 누렸다.

바로 알기 ③ 서경 천도 운동이 일어났던 1135년에는 아직 중국에서 원이 등장하지 않았다. 친원적 성향을 가진 세력은 권문세족이다.

10 밑줄 친 '정변'은 무신 정변이다. 당시 국왕이었던 의종은 즉위 초반에 문벌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문벌의 반발로 실패한 뒤 연희와 놀이에 빠졌다. 이후 문신이 대부분인 문벌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무신에 대한 차별은 더욱 심해졌다. 무신은 관직 승진에 한계가 있었고, 하급 군인은 각종 공사에 동원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불만을 느낀 무신들은 정변을 일으켜 문신들을 제거하고 의종을 폐위하였다.

바로 알기 ③ 무신 정변이 일어날 무렵 문신은 군사 지휘권을 장악하였다.

11 최충헌은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였다. 뒤를 이어 집권한 최우는 자신의 집에 정방을 설치하여 인사 행정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서방에 능력 있는 문신을 두어 정책을 자문하였다.

12 지도는 무신 정권기에 일어난 농민과 천민 봉기를 보여 준다. 당시 무신들 간의 권력 다툼으로 정치가 혼란해지자 중앙의 지방 통제력이 약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관들은 백성의 토지를 빼앗고 가혹한 세금을 거두는 등 백성을 수탈하였다. 또한 천민 출신 집권자가 등장하면서 백성들 사이에는 신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퍼졌다. 이러한 상황이 배경이 되어 전국적으로 농민과 천민의 봉기가 일어났다.

바로 알기 ㄴ. 몽골과의 강화에 반대하며 반란을 일으킨 세력은 삼별초이다. ㄷ. 지도의 봉기가 일어난 시기에는 권문세족이 등장하지 않았다.

13 거란이 세 번째로 침입하였을 때, 강감찬이 이끈 고려군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크게 물리쳤다.

바로 알기 ①, ⑤는 왜구 토벌, ②는 여진 정벌, ④는 몽골에 대한 저항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다.

14 몽골의 침략에 맞선 고려의 항쟁 과정은 '④ 박서가 귀주성에서 항전-② 고려 정부의 강화도 천도-⑤ 처인성 전투 승리-③ 몽골과의 강화 체결-① 고려 정부의 개경 환도'의 순서로 일어났다. 따라서 세 번째로 일어난 일은 ⑤ 처인성 전투 승리이다.

15 원은 일본을 정벌하고자 고려에 정동행성을 설치하고 원정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요구하였다. 원은 일본 원정이 실패한 뒤에도 정동행성을 그대로 두고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는 기구로 활용하였다.

16 **예시 답안** 원은 철령의 북쪽 지역(회주)에 쌍성총관부, 서경 지역에 동녕부, 제주도에 탐라총관부를 설치하여 고려의 영토 일부를 직접 지배하였다.

17 제시된 자료는 권문세족의 출신을 보여 주는 내용으로, ㉠은 권문세족이다. 권문세족은 기존의 지배 세력뿐만 아니라, 몽골어 통역관, 응방에서 근무하는 관리 등 원과 관련된 업무 종사자가 포함되었다.

18 권문세족은 백성들의 땅과 노비를 강제로 빼앗아 불법적으로 대농장을 경영하였다. 심지어 가난한 백성을 노비로 삼아 농사짓게 하기도 하였다. 정치적으로는 음서를 통해 고위 관직을 독차지하였다.

바로 알기 ㄱ. 권문세족은 공민왕의 개혁에 반발하였다. ㄴ. 원 간섭기에 불교계는 권문세족과 연결되어 폐단을 일으켰다.

19 밑줄 친 '왕'은 변발 등 몽골의 풍습을 금지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공민왕임을 알 수 있다. 공민왕은 일본 원정이 실패한 뒤에도 고려에 남아 내정을 간섭하였던 정동행성이문소를 폐지하였다.

바로 알기 ①은 최충헌, ②는 현종, ④는 광종, ⑤는 태조가 실시한 정책이다.

20 제시된 인물들은 신진 사대부이다. 신진 사대부는 성리학을 개혁 사상으로 삼고 권문세족의 횡포를 비판하였다.

바로 알기 ㄷ은 권문세족에 대한 설명이다. ㄹ은 신진 사대부 중 급진파 신진 사대부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21 공민왕은 국가감을 성균관으로 고치고 재정비하였다. 이를 통해 유학 교육을 강화하고 개혁을 뒷받침할 세력을 양성하였다.

22 ㉠은 이성계이다. 이성계는 급진파 신진 사대부와 함께 다양한 개혁을 추진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자 하였다. 그는 이에 반대하는 온건파 신진 사대부를 제거한 뒤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하였다.

바로 알기 ①은 복신, 도침, 흑치상지 등, ②는 윤관, ③은 정중부, 이의방 등 무신, ④는 공민왕에 대한 설명이다.

23 밑줄 친 '이 사상'은 유교이다. 고려는 광종 때부터 과거제를 시행하여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등용하였다. 또한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개경에 국가감을 설치하고 지방에 향교를 세워 유교 경전을 가르쳤다.

24 김부식은 이자겸의 난과 서경 천도 운동으로 약해진 왕권을 회복하고자 한 인종의 명령으로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삼국사기』는 신라 계승 의식과 유교 사관을 반영하였으며, 설화, 전설과 같은 사실이 아닌 내용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다.

바로 알기 | ㉓ 단군과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역사서는 일연의 『삼국유사』, 이승휴의 『제왕운기』 등이다.

25 고려 시대에 불교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 크게 발전하였다. 고려 정부는 사찰에 토지와 노비를 지급하였으며, 연등회와 팔관회 등의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또한 덕망이 높은 승려를 국사와 왕사로 임명하여 나라의 스승으로 삼았고, 과거제에 승과를 설치하여 합격한 승려에게 승계를 부여하였다.

바로 알기 | ㉓ 만권당은 충선왕이 원에서 지낼 때 대도(배이징)의 저택에 지은 서재이다. 고려의 학자들은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와 교류하며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였다.

26 1377년에 청주 흥덕사에서 만들어진 『직지심체요절』은 현재 존재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이다. 1234년에 『상정고금예문』을 금속 활자로 인쇄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오늘날 전하지 않는다.

27 ㉑은 몽골, ㉒은 합천 해인사이다. 팔만대장경판은 몽골의 침입으로 초조대장경이 소실되자, 불교의 힘으로 몽골군을 물리치고자 최우 집권기에 만들어졌다. 현재 합천 해인사의 장경판전에 보관되어 있다.

28 고려 전기에는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과 같은 지방의 특색이 반영된 불상이 만들어졌다. 고려 후기에는 지배층의 후원을 받아 「수월관음도」와 같은 불화가 그려졌고, 원의 영향을 받은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세워졌다. 한편, 고려는 독자적인 기술로 청자를 만들었는데, 11세기까지 청자 참외 모양 병처럼 표면에 무늬가 없는 순청자가 제작되었다.

바로 알기 | ㉒ 원성왕릉 무인석은 통일 신라의 문화유산이다.

29 고려는 건국 초기에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배척하였으나, 거란의 침략을 물리친 뒤에는 친선 관계를 맺고 양국이 사신을 교환하였다. 한편, 아라비아 상인은 고려의 국제 무역항인 벽란도를 거쳐 개경까지 들어와 교류하였다.

바로 알기 | ㄱ. 고려와 송은 거란과 여진을 피하고자 주로 바닷길을 통해 교류하였다. ㄷ. 고려를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서방 세계에 알린 사람들은 아라비아 상인이다.

30 고려 후기에는 원과의 교류가 늘어나면서 사회 전반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다. 원의 농서인 『농사집요』가 유입되면서 농업 기술이 발달하고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었으며, 원의 천체 관측기구가 도입되어 천문학도 발달하였다. 또한 문익점은 원에서 목화를 들여와 고려의 의생활에 변화를 가져왔다. 한편, 신진 사대부는 원에서 수용한 성리학을 개혁 사상으로 삼았는데, 이들이 성장하면서 성리학이 점차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바로 알기 | ㉑ 고려청자는 초기에 당과 송의 기술을 받아들여 제작되었다가, 점차 고려의 독창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만들어졌다.



